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7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 378 호

신개발품 전자칼라인등 佛心院

법석 초대 **수도 스님** 양산 용주사 주석



"부처님은 일월처럼 언제나 차별없이 중생을 비추고 있건만 중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망상 때문에 그 빛을 가리고서는 부처님만 탓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스스로의 마음과 행을 마음안에 계시는 부처님께 비추어가면서 생활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센과 치히로…'를 보고

일본에서 2천4백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관객을 동원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며칠전 보았다. 과연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명작답게 2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영화에 흠뻑 빠져들게 만든다. 평범한 10살짜리 소녀 치히로가 엄가 아빠와 함께 이사를 가는 길에 겪는 환타지 모험담이다.

영화 곳곳에서 불교적인 가르침도 캐치할 수 있다. 온천장 주인 '유바바'라는 마녀가 사람들을 평생 수하에서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은 고용할 때 새 이름을 주고 본명을 잊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쿠'는 '센이 된 치히로'에게 본명을 잊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며 늘 본명을 잊지말라고 한다. 마치 무명에 가려져 본성을 잊고사는 우리들에게 본성(불성) 찾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비유처럼 느껴진다. 또 '가오나시'라는 귀신은 무엇이든 꿀꺽꿀꺽 삼킨다. 가오나시가 만들어내는 황금과 그의 탐식은 온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끊임없이 삼키지만 항상 배고파하는 가오나시는 그러나 늘 외로운 모습이다. 한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욕심은 끝이 없지만 마음속은 허전하고 비어있는 현대인들의 황금만능주의를 상징하는 것 같다.

영화 곳곳에서 불교적 가르침이 느껴지자 우리 불교계는 왜 이렇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도 작품성도 인정받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심을 갖지 못하나 아쉬움이 들었다. 불교는 이러한 작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무궁무진한 문화콘텐츠의 보고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도 불교계는 불상, 탑, 종 등 하드웨어적 불사에 주력하고 있다. 불교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더라도 부처님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쉽게, 대중적인 감동을 주면서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인데 말이다.



불교 하면 대부분 아직도 '어렵다, 고루하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등등을 연상한다. 이 고정된 이미지서 벗어나는 길은 보편적이고 대중적 매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다. '치히로…'를 보면서 불교가, 〈법화경〉의, 친구가 옷속에 보배를 넣어놓았음에도 자신에게 보배가 있는 줄 몰라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처지처럼 느껴져 더욱 안타까웠다.

이경숙(취재 1부 부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전자신도증

1. 사찰 신도증과 신용카드의 기능 등이 결합된 전자신도증을 소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있다 ②없다
2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①편리성 ②불자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③사찰에 대한 소속감 고취 ④기타

설문 참여: 7월 18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9호 9면에 싣습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 따라 사찰 역할 증대

환경수호 등 공익기능 강화 필요

역사 · 문화 · 교육 · 휴식의 장으로
템플스테이 실시 삶의 질 향상 기여

사찰은 불교신행의 장소이자 모든 사람을 위한 열린공간이다. 종교의 다름을 따지지 않는 불교의 포용성은 국민모두에게 전통문화 향유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전통사찰은 그 입지의 특성상 이미 많은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역사 · 문화 · 교육의 장, 쉼터, 자연환경수호 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문화와 정보창구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찰의 공익기능은 국민의 세금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소투자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국민 복지'이기도 하다.

최근 주 5일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여가 레저문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찰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형 포교모델이라 할 다양한 문화이벤트 즉 사찰내 전시와 공연,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사찰에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상적인 형태의 포교이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화이기도 하다.

시민 교육 공간으로 사찰의 개방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사찰이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측면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재 교실, 템플스테이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월드컵 기간중 실시한 템플스테이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국민 여가문화의 선양을 위한 중요한 방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신도들에게 즐거운 믿음의 장을 제공해주는 사찰수련회 및 주말수련회 등의 상설화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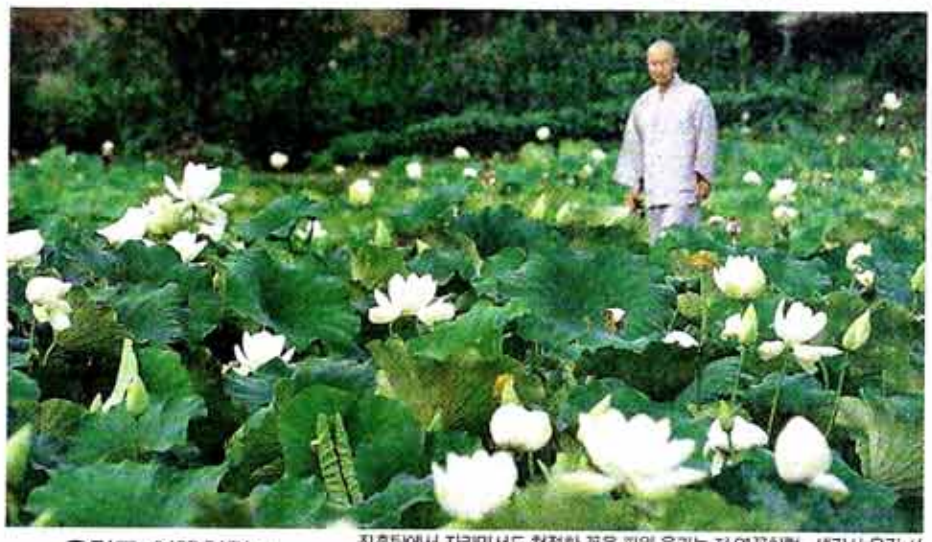
이밖에도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사찰 역할과 정보화 창구로서의 사찰 기능도 증대돼야 한다.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도립, 군립 공원 대부분 토지는 사찰소유라고 봐도 무방하다. 환경적으로 잘 보존되고 있는 사찰림은 국토의 허파로서 환경의 호법신장이기도 하다. 사찰이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불법을 홍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커지는 지역간, 계층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찰이 지역정보창구로 거듭나야 한다. 정보화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농촌과 산촌지역 지역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귀의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인 이병인(밀양대 교수는 "환경,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찰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며 "사찰 기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때 사회간접자본 투자 측면에서 정부지원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도 연꽃처럼… 진흙탕에서 자라면서도 청정한 꽃을 피워 올리는 저 연꽃처럼, 세간사 온갖 시비분별에 흔들림 없는 불자로 살아 있기를 …. 본디 우리 본성도 저 백련(白蓮)처럼 티없이 맑았음을 잊고 사는 우리. '내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는 가르침을 항상 새겨야겠다.

김재 청운사=고영배기자

가사 통일화 작업 구체화
18일 의제 실무연구회 발족

조계종은 18일 오후 2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의제실무연구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승가 의제 개혁에 나선다.

의제실무연구회는 월우(계단위원회 위원) 종진(법계위원회 위원) 무관(교재편찬위원회 위원장) 무상(법주사 부주지) 스님과 조계종 기획 · 총무 · 사무 국장과 복식연구가 김경숙씨 등 8인의 연구위원과, 교육원 연구과장, 교무주임, 기획주임 등 3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제실무연구회는 가사에 초점을 맞춰, 현재 법계와 관계없이 착용되고 있는 가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가사의 색상을 통일하는 한편, 조계종 스님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휘장(마크)을 마련한다. 또 의제법 개정 및 의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 의제 개혁 작업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시안게임 때도 템플스테이

33개 사찰 상설화… 낙산사 등 3寺 추가 지정

"템플스테이의 한국 불교 홍보효과를 광고비로 따지면 조계종 1년 예산을 웃돌 것이다."

960여명의 외국인이 33개 전통사찰에서 체험한 템플스테이가 '월드컵을 통틀어 가장 주목받은 문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33개 지정 사찰들은 오는 10월 아시안게임은 물론 상설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키로 했다.

통도사와 범어사 삼광사 등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부산지역 사찰들은 대회 기간중 템플스테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으며, 예산 수덕사와 강릉 낙산사, 서산 부석사 등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상운 스님은 9일 포교원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운영자 평가회의에서 "템플 스테이는 종단 분규로 실추된 한국불교의 이미지를 기사회생 시키고, 그 존재마저 모르던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각인시킨 엄청난 국제포교의 성과를 낳았다"며, "템플스테이를 문화 관광자원으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구독 신청 (02)737-0090

불교문화 체험하고 신심도 키우고

가자!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는 불교 알남의 주인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5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미륵종찰 법주사와 놀이시설이 가까운 유스타운,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밝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 정: 2002년 7월 30일(화) ~ 8월 1일(목) 2박3일
- ◆장 소: 속리산 법주사, 유스타운 일대
- ◆대 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300명)
- ◆참가비: 7만원
- ◆준비물: 점심 도시락 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 ◆문의전화: 02 736-7860
- ◆은행계좌: 농협 (63-02-177171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출 발 :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도 착 : 8월 1일 오후 6시 조계사 봉은사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협 찬 : (재)보덕학회, 신수회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봉은사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 · 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몰"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

사 설

신도회의 사찰운영 참여

승가란 다양한 성향의 출가자와 재가자들의 집합체란 점에서 화합을 중요시했으며 4부대중의 원만한 화합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출가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을 화상이라 불렀다. 화상이란 화중지상인(和衆之尙人)을 줄인 말로, 대중의 화합을 주도하는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특히 대승불교의 승단은 재가와 출가의 구분마저 없애버리고 역동성이나 대중성이 떨어진 부파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 종단의 승가는 출가와 재가를 종속과 피종속,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고착화시켰다.

이제 시대는 21세기를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러나 승단은 아직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최근들의 승단의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변화의 몸짓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6월 25일 대구 동화사는 '말사 주지스님들을 비롯해 교구신도회 관계자, 산하 신행단체 임원 등 4백여명을 초청, 4년간의 교구 종책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시대상황에 맞는 교구운영에 박수를 보낸다. 원래 94년 개혁종단 이후 "신도회 간부들의 의무적인 사찰운영 참여"를 제정한 바 있었지만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신도회야말로 사찰 구성원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사찰운영 전반에 대한 그들의 참여와 감사는 의무와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이제는 모든 교구본사들도 신도회가 사찰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신도들을 사찰 외호의 '시주자'로만 여기는 풍토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미래지향의 열린 사찰로

불교계는 최대자산인 사찰 운영 방식에 대해 그동안 미비됐던 점은 보완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 공간, 복지 공간 등으로 활용, 현실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법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단지 불교의 전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사찰이 미래 사회에 제대로 존재하기 위한,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주 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고 시민들의 여가 활용에 대한 모색이 다각화되는 추세다. 사찰이 시대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요구는 자연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타종교와 여타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위락 시설 등에 쏠리게 되어, 사찰은 차츰 고사상태에 빠지게 될 지도 모른다. 또한 출가스님들이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찰의 기본적 기능을 여법하게 지탱해나가는 일조차 벅차게 될 것이다. 다양한 모색 없이 그런 기본적 기능 만을 하는 사찰로는 다양화된 사회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전문가를 영입하고, 재가 신도들과의 협력 속에서 운영체제를 혁신하여 언제나 지역사회와 일반시민을 상대로 열려있는 공간으로 사찰을 바꿔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 우선 스님들이 사찰 운영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수행도량은 철저히 보호 육성하며, 포교사찰에서도 스님들만의 영역을 확실히 하는 것이 오히려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다. 그 외의 영역에서는 전문가에 맡기고 재가자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찰의 성격을 바꿔 나가는 것에 불교의 밝은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회당대종사 탄생100돌사업 차질

진각종 총본산건립 지연 각종 기념사업에 영향

변화의지 뒷받침할 행정시스템 필요

진각종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은 진각종이 종단체계 및 구조 정비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종단 혁신 작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각종은 지난해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신행체계 확립 및 진각공동체 구현 등을 목적으로 한 40여 개의 사업을 확정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100주년기념사업회까지 구성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올 6월까지 실시키로 예정됐던 9개 사업가운데 '인간 4사 운동'과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선포식' 등 5개 사업만이 진행됐을 뿐, '포교백서 발간' 및 '서원가 아카데미 설립' 등의 사업은 뒤로 연기됐다. 또한 진각대학원 대학교 설립, 납골당 건립, 평양 컴퓨터 교습소 개설 등 올해 착수해 연차적으로 진행키로 한 '계속사업' 들도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100주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5월로 예정됐던 총본산 건립이 늦어지면서 이와 맞물린 기념사업들이 모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화(스승)직과 전문(종무행정)직으로 나누는 체제개편작업이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포함해 총무부 포교부 등 부서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무 추진력을 잃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그 단적인 예로, 불과 세 달 전의 제를 바꿨음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종단 홈페이지는 몇 달째 업데이트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100주년 기념사업과는 무관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종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종단 밖에서는 100주년 기념사업의 본질이 종단 혁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변화의지를 뒷받침할만한 안목과 행정시스템이 결여돼 있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소수의 종단간부만이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 실무자들조차도 사업진행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폐쇄적 종무구조도 '힘'을 떨어뜨리는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진각종 문사부장 무외정사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일부 사업의 일정이 조정됐을 뿐이다. 다만 변화에 따른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 종교인들은 '공권력 오 남용 근절'을 외치며 11일 조계사에서 탑골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여성 종교인·노동자들 공권력 남용 규탄대회

조계사서, 경찰청장 공식사과 등 요구 행진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 종교인들과 한국시그네틱스 여성 노조원등 500여명은 11일 조계사에서 '여성인권회복과 공권력 오남용 근절을 위한 종교인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혜조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위원장)은 대표인사를 통해 "오늘 대회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이팔호 경찰청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서명 △경찰의 직권남용과 위법성이 드러난 해당 경찰관의 민, 형사적인 책임 및 즉각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경찰청 내부훈령 개정 등 공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조계사에서 탑골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날 대회는 LG 건설 측의 비구니 스님 폭행을 경찰이 방관한 것과, 파업 중이던 한국시그네틱 여성노조원들에 대한 알몸수색,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촉구 집회 중이던 두 수녀의 감금 등 공권력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열린 것이다. 남동우 기자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

조계종 16교구 고운사

조계종 제 16교구 본사 고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조)는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고운사 대웅보전에서 개최한다.

이번 고운사 주지선거에는 혜승스님(의정부포교원 주지)이 단독으로 입후보 했다. 054) 833~2324.

김원우 기자

"남북불교 동질성회복 등 성과

민추본 창립2돌, 화해·협력으로 북한변화 유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련)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통일강연회가 지하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양산스님(조계종 사회부장) 정세현 통일부 장관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정련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민추본은 지난 2년간 불교적 관점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수립, 남북불교교류, 북한동포돕기 지원, 북한 사찰에 대한 조사 연구, 남북공동 행사 참가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미진하나마 민족의 화합과 통일, 남북불교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소중한 성과를 쌓았다"며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이해 지난 성과를 단단히 다지고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여 나가자"고 말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기념 통일강연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분단된 조국을 화합과 평화의 통일정토로 만들기 위해 애쓴 정련스님 이하 민추본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사찰을 심신정화 도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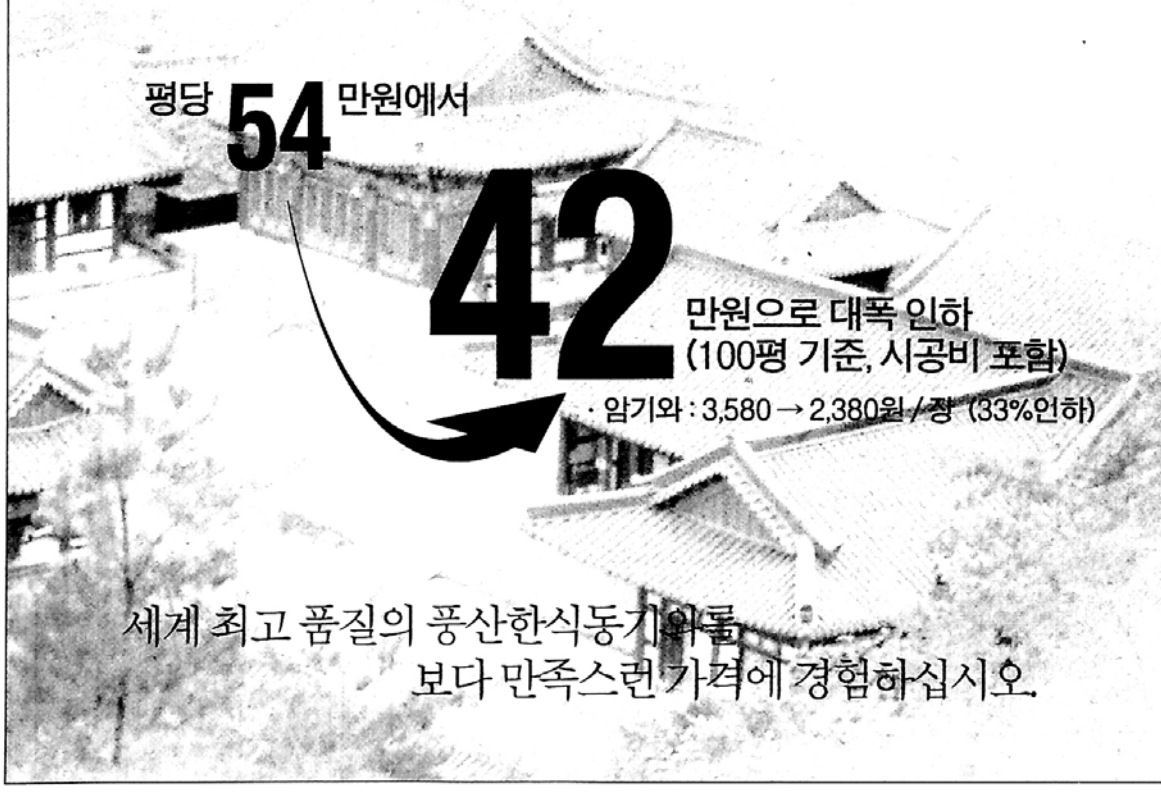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풍산한식銅기와 가격을 대폭 내렸습니다



평당 54 만원에서
42 만원으로 대폭 인하
(100평 기준, 시공비 포함)
· 암기와 : 3,580 → 2,380원/장 (33%인하)

세계 최고 품질의 풍산한식동기와를
보다 만족스런 가격에 경험하십시오.

풍산한식동기와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 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 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풍산한식銅기와는 이런 곳에 시공하면 좋습니다.
- 세찬 비바람과 추위로 기와가 날아가거나 동파가 심한 곳
- 건물 지반이나 골조가 약해 지붕의 하중을 줄여야 하는 곳
- 한국의 전통미와 실용성이 필요한 건물
-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해야하는 건물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부품 하나 하나마다 새겨진
풍산한식銅기와 마크를 확인하십시오.
풍산한식동기와는 당사 지정 전문시공사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풍산지정 전문시공사
보광금속(서울) : 011-204-6238
성원금속(서울) : 011-445-7811
세주판금(청주) : 011-401-5312

문의 : (주)풍산 건축자재 담당 02-3406-5114, 011-898-9720
주식회사 풍산
www.poongsan.co.kr

인도불교지원 1차 3건 확정

우리는 선우·종단협 등 6개 단체 8~9월중 예산 집행

메밀 구입비는 월말 티베트 망명정부 전달



◇시멘트로 마을 공터에 불상과 마야부인상을 조성, 불교공원과 법당, 학교를 건립할 계획인 인도 메인뿌리지역의 나미간지 마을

우리는선우,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주최하고 종단협의회,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가 후원하는 인도불교 지원사업의 1차 지원대상에, 이미 결정된 △인도 불가촉천민을 돕기 위한 티베트 망명정부의 메밀 구입사업(달라이라마방한 준비위 측 1만불 포함한 2만불)을 비롯한 UP(Uttar Pradesh)주의 마을 세 곳의 공사가 선정됐다.

6개 단체 대표들은 10일 조계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컨노즈지역 바데뿌르 체브라무우 마을의 불교공원과 학교조성 사업(1만5천불) △나비강 메인뿌리 지역 나미간지 마을 법당 건립 공사(5천불) △메인뿌리 지역 본사온의 마하야마 아카데미 학교공사(1만불) 등을 첫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8~9월중에 예산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메밀 구입비 2만불은 이달 말 티베트 망명정부의 일본 동북아대표부 자툴 린포체에게 전달할 예정.

인도불교 전법지원운동 사무국은 이밖에도 메인뿌리 불교청년회 사무실과 이따와 불교청년회, 아쇼카보드 비하르의 사무실 운영비(각각 연 500불 정도)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종단협은 출·재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10만~20만불 소요)에 관심을 갖고 지원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2002년 5월부터 2004년 5월(3년간, 총 15만불)까지 추진하는 △1인 수계비용 1달러 지원 '개종운동 지원 사업' △불교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 △법당 건립 및 불상 봉안 지원 △재가불교지도자 양성 사업 △불가촉 천민을 위한 자활 지원 △불가촉 천민지역에 티베트 난민 경작 메밀지원 등 인도불교 6대 지원사업에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인도불교 전법지원운동 사무국 : 02-745-7799, 후원계좌 : 조흥은행(계좌명=인도돕기) 741-04-3659-50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차 지원 대상사업

▣컨노즈의 불교공원과 학교

100% 석가족이자 달릿트(불가촉천민)로 구성된 마을. 컨노즈(Kannoz)에는 예전에 110 개의 법당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주민들은 1994년 불상들이 출토된 땅(1800평)에 농사를 짓지않고 학교(Sakaymoy Academy)와 법당, 불교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불교공원을 조성중이던 이 지역 불교청년회 회장이 최근 힌두교도에 의해 피살돼 충격을 주었다.

▣보가온 마을의 마하야마 아카데미

메인뿌리(Mainpuri)에서 25km 거리의 보가온(Bhonsaon)마을에 위치. 1996년 15명의 마을 사람들이 땅을 기부하고 벽돌, 세멘트 철근등 재료를 샀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서 교실 한 개씩을 짓고 있다. 학교 안에는 석가족불교청년회(YBS, 회장 수레스)가 세운 법당이 있다. 현재 1200평에 교실 2개를 완성했으며, 3개는 미완성인 상태다.

▣나미간지 마을의 법당

나미간지(Navigang) 마을의 약100세대 1,500명 가량이 석가족인데 80%가 불교를 믿는다. 인근 마을 까지 약 55,000 주민의 33%가 석가족이며 15%가 달리트 계층이다. 찬드라 보드(Chandra Bouddh) 주축으로 지난 해 10월 마을 공터에 마야부인과 아기 부처님 그리고 불상을 시멘트로 조성해 예쁘게 페인트를 칠을 했으며, 그 자리에 마을회관으로 쓸 법당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

공익적 사찰 모델은…

사회·문화공간으로 항상 열려있어야
타종교인도 부담없이 찾는 도량으로
환경·문화유적 보호에도 중심 역할

사찰의 문은 열려있어야 한다. 불자만의 공간이 아닌 일반인들은 물론 타종교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공익도량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찰이 사회적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 불교의 위상은 한국 사회의 정신적 귀의처로 격상될 것이다. 공익적 사찰모델을 제시해 본다.

◐음악·전시회 등 문화 향유 장소

사찰은 더 이상 불자들만이 찾는 곳이 아니다.

봄에는 봄꽃을 따라 가을엔 단풍을 보려는 산행객들이 모여들고, 꽃축제, 산사음악회 등의 이름으로 전시와 공연,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심곡암의 문화축제나, 보탑사·길상사 등의 사찰음악회는 대표적인 예다. 산사음악회는 절밖의 사람들을 음악이라는 방편으로 묶어내는 새로운 포교 방편이 되고 있다.

또 사찰마다 전시공간을 따로 마련하거나,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절마당에 펼쳐 오가는 불자들이 잠시나마 둘러보고, 마음의 여유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찰도 늘고 있다. 절마다 전통찻집이 자리를 잡아 방문객에게 향그러운 차향을 통해 산사의 아름다움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기도 한다.

◐심신 안정 휴식처

전국 33개 사찰이 월드컵을 맞아 외국인을 상대로 실시한 템플스테이가 내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상설화 될 예정이어서, 국민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템플스테이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국민 여가문화의 선양과 사찰수련회 및 주말수련회 등의 상설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주말수련회를 준비한 사찰은 해남 대둔사, 보성 대원사, 서울 길상사, 나주 불회사, 대구 영남불교대학 등.

가족수련회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화성 용주사(8/2~4), 예산 수덕사(8/6~8), 대구 동화사(7/30~8/1), 서울 진관사(8/3~18), 홍천 칠불선원(7/22~25)은 가족단위의 참가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아예 가족수련회를 마련했다.

이러한 특성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산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을 갖춰 국민들의 정신적 휴식처로서 공익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 사찰의 전통적인 수행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여러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

◐환경 파수꾼

우리국토의 70%가 산이고, 산마다 절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절들은 산의 수호 신장 기능을 충실히 해왔고, 그 결과 사찰림과 같은 녹지는 전국토의 허파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실상사가 지리산 살리기에 나서고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만들어 생협운동을 벌이고, 귀농학교와 환경생태학교를 개교한 것은 의미가 크다. 또 해인사와 월정사, 석남사, 범어사가 개발로부터 가야산과 오대산, 천성산, 금정산 지키기에 나서는 등 전국 주요 사찰들이 산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돋보이는 환경실천 운동이다. 특히 북한산 일대 사찰들이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은 대표적인 환경운동 사례로 평가된다.

사찰이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쌓아가야 사찰환경과 문화재보호가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민을 위한 정보화 창구

지리적으로 깊은 산속에 위치한 김천의 청암사는 겉보기와 달리 사찰내 네트워크를 갖춘 최첨단 정보사찰이다. 청암사 승가대학 학장 지형스님을 비롯 사중 스님들이 급속히 변화해 가는 시대 상황 속에 스님들도 정보화 마인드가 없이는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청암사 홈페이지(http://chungam-sa.or.kr)는 매일 많은 불자들이 방문하는 등 인기가 높다. 특히 청암사와 승가대학 소식은 물론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린이 여름학교, 가을 운동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네티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보사회가 진행될수록 커지는 지역간, 계층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찰이 지역정보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방안은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찰을 통해 정보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농촌과 산촌지역 지역민의 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원우·김재경
이은자·김두식 기자

"전문성 강화 싱크탱크로 육성"

김봉건 신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지난 6월 정년퇴임한 조유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후임으로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장이 9일 취임했다. 조유전 소장이 고고학 전공이었던데 비해 김 소장은 '전통 중층목조 건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고건축 전문가다.

김봉건 신임 소장은 "괘불이나 고건축 등 상당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보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문화재 유형별 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78년 상공부 건축사무관으로 일하다 83년 문화재연구소로 옮긴 뒤 줄곧 미술공예실에서 일해왔다. 전공을 살려 주로 사찰, 서원 등 고건축 조사와 복원을 맡아오다 지난해부터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서쪽 석탑 해체 복원 사업을 이끌고 있다. 미륵사탑은 현재 4층 해체 작업이 한창이며 3층까지 해체 작업을 끝내는 게 올해 목표다.

"외부에 노출된 돌에 비해 안쪽의 돌들은 의외로 생생하게 남아 있다. 3층 밑으로 해체 작업이 진행되면 아마 미술사학계가 깜짝 놀랄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된다."

김 소장은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과학적 구조진단을 적극 도입한 사람이다. 90년대 중반 '석굴암 균열 보도' 등으로 석굴암 안전이 문제가 됐을 때 컴퓨터 3차원 구조역학 조사로 석굴암 균열은 일본인들이 덧씌운 1.8m 두께의 콘크리트가 수축해서 생긴 것이지 석굴암 자체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석굴암과 불국사가 우리 나라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때 현지 조사를 나온 유네스코 전문가들에게 현장 설명을 했던 사람이 김 소장이기도 하다.

새로 취임한 김 소장에게는 문화재연구소 내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가장 큰 고민은 인력구조. 연구직이 100여 명이지만 절반이 임시 고용직이다. 김 소장은 "문화재연구소가 출범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위상은 초라하다"며 "전문성을 강화해 문화재 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급이나 부서에 얽매이지 않고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문화재 보존 관리에서는 전문가들보다도 오히려 일반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7월중으로 연구소 홈페이지를 개통해 각종 조사 자료나 사업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륵사탑 해체·복원사업 큰 기대
문화재 유형별 조사 연차적 실시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봐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입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봐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봐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太古思想研究 第5次 學術大會

◆기조강연 : 現代社會의 葛藤과 太古思想 – 無空(太古學會長)

한국불교 태고학회는 한국불교의 종조요 중흥조이신 태고보우국사의 사상을 계승하여 어두운 이 시대와 사회에 빛을 던져 주고자 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현대사회의 갈등과 태고사상> 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불교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학술회의에서 우리는 문명의 전환점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여러 갈등에 대하여 태고국사의 사상이 제시할 수 있는 방향과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의 갈등에는 여러 양상이 있으나 우선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택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태고사상은 한국불교의 갈등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태고사상은 정치와 사회, 경제 문제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가 태고사상은 자연과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정보산업 문명 시대에 태고사상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다종교사회에서의 태고사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대문명의 여러 문제와 세계 평화 그리고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술행사를 통하여 태고사상이 교계뿐 아니라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의 여러 갈등의 해소와 미래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정신으로 조망되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6년
서기 2002년 4월 17일

한국불교 태고학회 회장 서무공 합장

제 1 부
태고탄신 701주년(음 9월 21일)
※ 대회 일자 : 불기 2546년(2002년) 10월 25일(음 9월 20일)
※ 대회 장소 : 추후 발표함 [세종문화회관이나 불교방송국 中]
제 1주제 태고사상과 한국불교의 갈등현상 이봉춘 (동국대교수)
제 2주제 태고사상과 인간심성의 문제 최연자 (원광보건대교수)
제 3주제 종교간의 갈등과 태고사상 김용표 (동국대교수)
제 4주제 사회적 불평등문제와 태고사상 박경준 (동국대교수)
제 5주제 환경위기와 태고사상 장 익 (위덕대 교수)

제 2 부
태고탄신 702주년(음 9월 21일)
※ 대회 일자 : 불기 2547년(2003년) 음 9월 20일
제 6주제 태고사상과 한국의 정치적 갈등문제
제 7주제 정보산업 문명시대와 태고사상
제 8주제 세계평화의 문제와 태고사상
제 9주제 태고사상과 남북통일 문제
제 10주제 지구촌시대의 경제문제와 태고사상

태고학회 임원

삼 사 덕암(태고종정), 서암(전 조계종정), 송산(화계사 조실)
증 명 운산(태고종총무원장), 정대(조계종총무원장), 혜초(태고종승정), 원주(경실련이사장), 일우(태고종승정), 남파(태고종승정), 일공(원융종정), 법장(전 태고종총무원장), 무찰(재, 일붕선교종정)
고 문 서돈각(불교진흥원이사장), 손희정(국회의원), 송석구(동대총장)
자문위원 성장(군불교진흥회장, 화계사주지), 도기(전국일붕문도회장, 관음사주지), 청송(전 일붕선교종총무원장), 성각(한국불교승가회중앙회장), 현광(보림사주지), 인공(영산재보존회장, 봉원사주지), 동광(도선사, 청담복지재단이사장), 원성(강북사암연합회장), 자월(태고종총무원부원장), 정각(전 일붕선교종총무원장), 월운(태고종사정부원장),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김철회(태고종신도명회장)
회 장 무공(태고종중앙포교원장)
상임부회장 대은(해동불교법음대학장)
부 회 장 동봉(재, 일붕선교종총무원장), 도운(내자사주지), 법청(선암사포교국장), 지족(태고종전통문예원장), 지공(재, 일붕선교종사정원장), 월해(태고종총무부장), 혜광(용화정사주지), 설산((사)21세기한국불사회이사장)
심사위원장 서윤길(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연구위원 (회 원) 권기종(동대불교학회장), 정태혁(동국대명예교수), 오형근(동국대명예교수),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김상현(동대교수), 법산(동대교수), 종범(승가대총장), 허흥식(정신문화연구원교수), 성본(동대교수), 종호(동대교수), 이봉춘(동대교수), 김용표(동대교수), 박경준(동대교수), 장익(위덕대교수), 최연자(원광보건대교수), 김방룡(영산불교대교수), 진원(동국대겸임교수), 주명철(동국대겸임교수)
총무이사 법현(종회사무국장)
교무이사 성덕(수덕사주지)
재무이사 법련(혜능사주지)
사회이사 도봉(약사사주지)
포교이사 경담(태고종규정부장)
호법이사 동우(태고종교임부장)
연구이사 도각(태고종청년회장), 혜일(정방사주지), 대봉(불성사주지)
홍보이사 석환(선문화대표)
국제이사 철안(서울불교편집국장)
이 사 (무 순) 혜찬(재, 일붕선교종총무원부원장), 덕봉(성국사주지), 통영(재, 일붕선교종원로), 법우(전태고종재무부장), 법운(재, 일붕선교종교육원장), 화엄(재, 일붕선교종포교원장), 법성(태고종경기남부종무원장), 법성(재, 일붕선교종사정부원장), 정담(해운사주지), 복정(복정사주지), 성오(남가섬사주지), 삼현(능엄선원주지), 송덕(관음사주지), 대선(바라정사(대선사)주지), 월단(덕화사주지), 태일(달마선원주지), 지관(정토사주지), 혜성(성덕사주지), 우종곤(영인봉신대표), 최인순(무량사관음회장), 박범준(朴範埈, 무량사학생회장)
감 사 명종(재, 일붕선교종회의장대), 칭봉(태고종종정홍보원부원장)

태고법손 五대 결의문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에 따라)

1. 태고 법손 종단은 한국불교 종조 및 중흥조이신 태고탄신일 다례제를 반드시 봉행하자
2. 태고 법손은 한국불교 종조 및 중흥조이신 태고보우국사의 사상 연구 선양사업에 동참하자
3. 태고 법손은 태고보우국사의 일불승사상 및 선교겸수의 대법을 연구 수행 종풍을 진작하자
4. 태고 법손은 태고보우국사의 원융 회통 통합의 정신 실천으로 한국불교의 대화합과 통합을 도모하자
5. 태고 법손은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불교실천 사상을 현대 사회의 모든 갈등 해소와 미래 인류 평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대 정신으로 승화하자

※ 본 태고학회는 임원 의무금(년 1백만원)과 주최종단 및 단체의 후원금,찬조금으로 운영한다. 뜻있는 태고법손의 동참을 바란다.

불기2545 7월 8일
서기2002

■주 최 :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조계종,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한국불교 승가회 중앙회
■주 관 : 한국불교 태고학회

한국불교 태고학회 회장 서무공
서울 강북구 수유4동 584-14,12(무량사내) 전화 02)904-0081,0016 / FAX 904-0083 / H·P 011-750-0016

일주문



역경원 개원 38주년 법회

월운 동국역경원장 스님은 1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역경원 개원 38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노인재소자 환갑잔치

만오 법인종 총무원장은 12일 청송 제1감호소의 60세 이상 노인 재소자 24명의 환갑잔치를 열어주었다.



재가연대 운영위 개최

박광서 참여불교 재가연대 상임대표는 24일 오후 6시 30분 음식점 다우에서 '2002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대구 국제로타리 총재에

장영관 대구광역시 불교신도회장은 1일 국제로타리 3700지구(대구 경북 일원) 총재에 취임해 취임식을 가졌다.

前 불교방송사장

김태호 의원 별세



불교방송 사장, 국회 정각회장 등을 역임한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사진)이 10일 오후 9시10분경 서울대병원에서 지병인 골수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지난 12대때 국회에 첫 진출한 뒤 13, 15, 16대까지 4선을 지낸 고인은 국회 정각회장 재직시절 중앙승가대 4년제 승격, 전국 유명사찰 복원 등 불교계 현안 해결에 앞장서 도와왔다. 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하는 동안에도 '마음만 깨치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불교가 모든 사회적 병리현상을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했었다.

고인은 불교방송 사장, 국회 정각회장, 한나라당 불교신도회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내무부 장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본인이 설립한 울산 장애인학교 '태연학교' 인근 산에 묻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연숙(65 · 조계사 신도회장)씨와 3남1녀가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국가 배상판결 여성인권 향상 계기"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 변론 승소 배금자 변호사



"1년8개월 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협박전화를 받는 등 끊임없이 신변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처님 가피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2000년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과 관련,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국가와 포주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배금자 변호사(42 ·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사진)는 이 성과를 부처님 가피로 돌렸다. 이번 판결은 윤락여성의 인권보호를 외면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역사적인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이번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감금돼 성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경찰과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조교 사건' 등 인권문제해결 헌신

배변호사는 잘못된 사회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담배소송, 주한미군범죄소송 등 공익소송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로 유명하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 우조교 사건' 등 여성인권문제와 관련한 각종 사건을 맡아 여성차별적 사회관행을 깨뜨리는데도 매달려왔다. 그런 때문인지, 배변호사는 이제는 불교계도 반성하고 여성을 인격의 주체로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여성 불자들을 '아줌마'로 인식하는 한 불교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 여성성(여성다움)을 강요합니까. 사찰에서 이런 교육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뤄지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성이 아닌 한 불자로서의 개인적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배변호사는 매일 아침 남편(나승렬씨 · 농림부불자회 회장)과 함께 목탁을 치며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경하고 108배를 하는 등 신심이 돈독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선각종 사단법인 등록 기념법회

대한불교선각종은 5일 광주 국제불교대학 법당에서 사단법인 등록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5월 27일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것을 기념해 열린 이날 법회에는 종정 정엄, 총무원장 정암 스님을 비롯해 광주전남불교신도회 김두원 회장 등이 동참했다. 선각종은 이날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수호종단 현판식도 가졌다.



용인 대원사 우란분재 입재식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스님은 6일 용인 대원사에서 우란분재 지장기도 49일 기도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송산스님은 "불가에서는 매년 음력 칠월 보름에 우란분재라고 하여 목련존자의 효심을 기리고 선망부모와 누대조상의 천도를 불보살님 전에 기원해 왔다"고 말했다. 회향일은 8월 23일이다.

"어르신 욕구 '맞춤형 사업' 더 개발"

개관 3주년 은평노인복지관장 성운 스님



8일 개관 3주년을 맞는 서울은평노인복지관 관장 성운 스님(사진)은 지금까지 복지관은 '재가복지' 중심의 성장기 단계였다고 자평한 뒤, 운영 중인 120여개 프로그램의 질적 서비스 강화는 물론, 내실화에도 사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운 스님은 노인복지관 장기 플랜으로 △NGO 사업 극대화 △재활치료 강화 △생활복지 제공 △자활후견 사업을 통한 생산복지 증대 등 4대 운영방침을 밝히고, 내달 초에 노인복지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와 사례들을 모은 〈노인복지회관 현장론〉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라는 그릇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 불교 노인복지 분야에서 만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불교미술사 연구, 교리 공부 필수"

한일불교문화학술상 받은 박형국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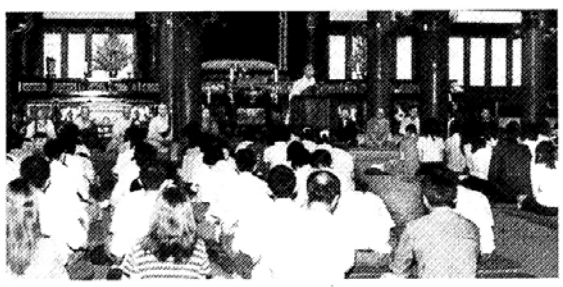


"미술사는 종합 학문입니다. 미술사 전반에 대한 공부뿐 아니라 불교철학이나 교리에 대해서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형국(사진)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 조교수가 6~7일 동국대서 열린 한일 공동 인도학불교학학술대회에서 중국과 인도, 한국, 일본, 동남아의 불상을 비교한 저서 〈비로자나불의 도상학적 연구〉로 제1회 한일 불교문화학술상을 받았다. 연세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에서 불교미술사로 석박사를 받은 박 교수는 "어릴 때부터 절에 가면 불상이 제일 좋았는데, 아마 그래서 불상을 전공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본의 미술사 연구자가 4천명인데 비해 한국은 2백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연구층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파라미타 울산지부 발대식

파라미타 울산지부 발대식 및 울산지부장 취임법회가 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파라미타 울산 지부장으로 취임한 현문스님을 비롯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 파라미타 이병두 사무총장과 울산지역 중 · 고등학생 1백여명이 참석했다. 파라미타 울산지부에는 녹수중, 경인고, 울산공고, 울산여고, 학성여고 등 1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포교사단, 남순지장회에 컴퓨터 기증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 통일 · 종교편향특위(위원장 임희웅)는 2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사무실에서 김명철 남순지장회 회장에게 컴퓨터와 프린터 한 세트를 전달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포교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탈북 귀순자들의 불자모임인 남순지장회 회원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



청정화합연대 '인간성 회복' 세미나

청정화합시민연대(상임대표 정각)는 11일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현대문명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청정화합시민연대 고문 도원스님의 인사말, 정각스님의 기조연설에 이어 최진호 교수의 '현대문명과 인간성 회복운동'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마창 · 진해불교련 都 · 市政 발전 기원법회

마창불교연합회(회장 지태)와 진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근)는 10일 창원 성주사에서 민선3기 지방자치 출범 도 · 시정 발전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원로대표 경호스님, 김혁규 도지사, 공창섭 경남공무원 불자연합회장, 배한성 창원시장, 황철곤 마산시장, 김병로 진해시장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1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인환스님(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 한문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우리춤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2년 6월 15일 ~ 2002년 8월 3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우리춤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학일시 2002년 8월 10일(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743-4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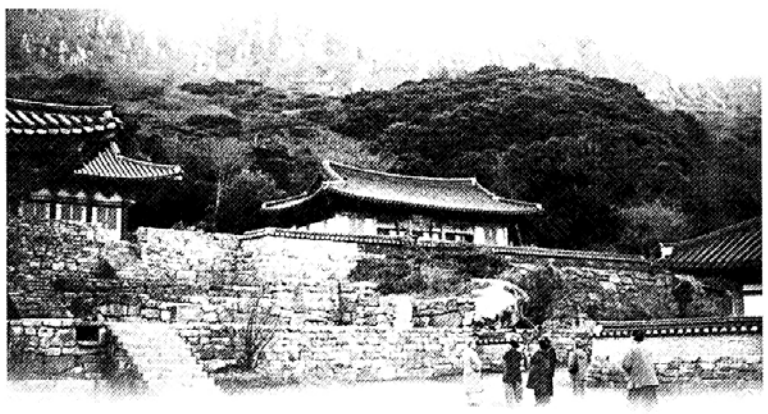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합시다. 나무아미타불.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제 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2년도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정지대회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흥사, 설악산 백담사를 순례하였고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정지대회를 마련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2년 8월 5일 ~ 7일(2박 3일)
◆ 장 소 : 전남 해남 땅끝마을 미황사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참 가 비 : 40,000원(염불포교제및식사제공)
◆ 교 통 편 : 개인별 미황사 5일 오후 2시까지 도착
◆ 신청방법 : 전화 신청후 은행계좌 입금
국민은행 : 023-21-0667-309 : 염불만일회
농 협 : 053-02-128104 : 염불만일회

(서울, 경기지역 출발안내)
◆ 출발장소 : 서울조계사 앞
◆ 출발시간 : 2002년 8월 5일(월) 오전 6시
◆ 교 통 편 : 관광버스(단. 동참자는 참가비, 교통비포함) 65,000원을 미리접수 바랍니다.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02)732-1215~7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국립의료원 법우회 백중기도 입재

국립의료원 법우회는 11일 병원법당에서 백중기도 입재에 들어갔다. 8월 2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6시 열리는 백중기도는 조인오 법사의 집전으로 진행된다. 조인오 법사는 "남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20여 회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동참한 11일 입재기도에서는 조상영가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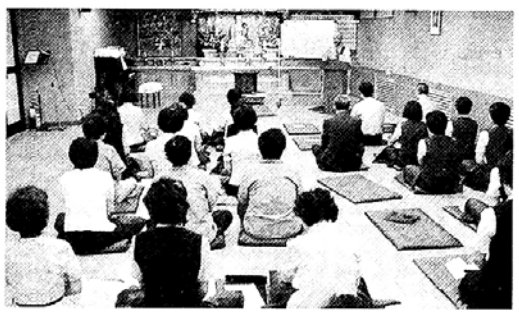
서울불교산악회 수락산상 법회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는 7일 서울 수락산 산행을 다녀왔다. 이날 산행에 동참한 30여 회원들은 수락산 정상에서 산상법회를 봉행하고 산악인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북한산 관통도로의 저지와 노선 변경을 기원했다. 하산길에는 양주 내원암에 들러 참배했다. 한편 금강메아리는 21일 영주 부석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경찰청불교회 금강경 강좌

경찰청 불교회(회장 박재진)는 11일 경찰청 법당에서 금강경 강좌법회를 봉행했다. 30여 회원들이 동참한 이날 강의는 자우스님(서울 금강사 주지)이 맡았다. 경찰청 불교회는 매월 2차례 경전과 불교입문 강좌를 열어 회원들의 신행활동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장경과 법화경을 공부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동일직종·지역간 연합활동 '호응'

방송사 등 직장불교회…정보공유·법사지원 등 어려움 해결

회원들의 저조한 참여로 법희를 제대로 열지 못하는 일부 직장 불교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일 직종, 지역별 교류 및 연합활동 강화가 시도되고 있다. 친목 도모는 물론 정보 공유, 법사 지원, 수적 열세 극복 등 상호 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활동해 결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동일 직종간 연합활동은 법회 프로그램 다양화 시도와 함께 직장불교회의 활로를 여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동일 직종간 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단체들은 연합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공무원불자회, 철도청불자회를 비롯해 방송사 불자모임, 울산공단내 석유화학 불자회, 거제 조선 불자회, 창원 중공업 불자회 등이다. 연합단체로 구성된 철도불자, 병원불자 등은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연합활동을 펼치지만, 석유화학 불자회와 거제 조선 불자회, 창원 중공업 불자회 등은 동일 직종, 동일 지역에 기반을 둔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 광범위한 조직구성을 보이는 공무원불자연합회는 전국 연합활동은 물론 지역별 교류도 추진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연합활동을 진행해 온 KBS, MBC, SBS 등 방송사 불자모임은 매월 한차례씩 연합법회를 갖고 있으며, 합동 성지순례도 갖고 있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연합활동을 기반으로 방송사 불자회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다. 조계종 포교원에서도 협의체 구성을 적극 후원하고 있어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삼성정밀화학, 카프로락담, 울산지원주식회사, S-oil 불자회가 있는 울산공단내 석유화학 불자회간 교류는 단위 불자회만으로 법회를 열수 없을 만큼 회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대한 돌파구로 작용했다. 4월 S-oil 불자회가 결성되면서 연합법회 등의 본격적인 교류를 시도했다. 이들은 울산불교신행단체연합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상호 정보를 교환해 왔던 것이 보탬이 됐다.

직장단체이면서 청년단체이기도 한 대우조선의 대우불교청년회와 삼성조선의 거제불교청년회는 수련회 공동개최 등의 교류를 갖고 있다. 갑작스런 법사 부재 문제도 서로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두 단체의 교류는 회원 감소현상 보다는 동일 직종 · 지역의 불자모임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한일합섬 한일법우회, 한국중공업 법우회 등은 법회를 열고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다. 한일법우회는 마산시 공무원불자회, 경남은행불자회, 정법사 거사림회 등과 큰스님 초청법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마산 정법사를 중심으로 연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중공업 법우회는 창원 성주사에서 법회를 여는 대우종합기계 ·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기적인 교류를 갖고 있다.

180여 불교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불자들의 교류는 과천청사, 대전청사, 지자체간 교류가 더욱 활발하다. 공무원불자연합회 차원의 수계법회와 성지순례, 창립기념 행사는 물론 부산, 대구, 대전, 경남, 전남, 경북 등 지역별 교류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불자회 미창립 지역의 공무원불자회 구성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조양희 신도주임은 "직장 불교단체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각 단체들은 법회 참석 인원의 감소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단체들이 같은 지역의 직장 불교단체와 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대전시청·5개구청 공무원 불자들

예불·발우공양등 산사체험

20~21일 공주 갑사서

대전광역시청을 비롯해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구청 소속 공무원불자들이 20~21일 공주 갑사에서 템플스테이 체험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한일월드컵 기간중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유치해 큰 호응을 얻은 공주 갑사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대전공무원불자연합회는 대전 공무원불자들의 화합과 교류를 이끌어내는 발판으로 삼아, 회원들의 신심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창립한 시청, 동구청, 서구청, 유성구청 등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예불, 발우공양, 신행토론, 불교무술 실습, 신흥암 등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법륜교수불자회 총회

20일 하동 칠불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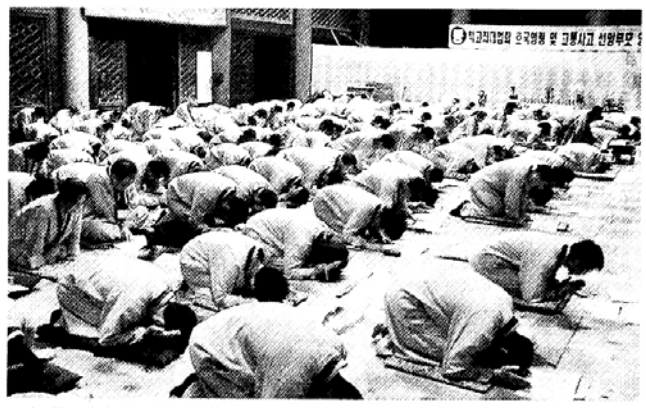
영남지역 교수불자들로 구성된 법륜교수불자회는 20일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진 선출, 회칙 개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륜교수불자회는 총회에 이어 21일까지 칠불사 회주 통광 · 주지 동림스님 등 법문과 강수균 대구대 교수의 불교유적 강의, 참선 등 산사 체험을 갖는다. 수련회를 마친 후에는 칠불사 인근에 있는 지리산 쌍계사를 참배한다.

서울 중구 반야회 구민법회

서울 중구청 반야회(회장 김용중)는 19일 오후 6시30분 서울 필동 흥정사에서 '김동일 중구청장 취임기념 중구민 대법회'를 봉행한다.

회원들의 퇴직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반야회는 이번 법회를 계기로 회원들의 단합을 꾀하고 조직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직장직능 단체 임원과 지도자들이 6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108참회를 하고 있다.

직장 신행단체 지도자수련회

110 단체서 230명, "체험 · 정보 회원들에 회향"

직장직능 신행단체 임원과 지도자들의 수련회가 6~7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렸다. 공무원불자연합회, 운전기사불자연합회, 병원불자연합회 등 110여 단체 230여명이 동참한 이번 수련회는 임원과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을 향상시켜 직장불교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개최됐다.

직장불교의 관심이 높아진 199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도자수련회는 직장불교 지도자들의 다양한 신행체험과 교육으로 진행돼 직장불교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직장직능 단체간의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계종 포교원 박용규 신도과장은 "전국 직장직능 단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많은 얘기를 나눔으로써 각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수련회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들을 각 직장법회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련회에 참석한 문화방송 불교연구회 황진옥 회장은 "한걸음 걷고 한배의 절을 하면서 통일대불을 도는 1보1배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감동적인 체험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수련회에서 얻은 체험과 정보들을 직장에 돌아가 회원들에게 회향해 신행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념 區政에

창립6돌 부산사하구청법우회 이중근 회장



"구민들을 위하는 참다운 봉사를 하기 위해 일속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정진하는 불자가 되고자 합니다."

16일 관음사에서 창립 6주년 기념법회를 연 사하구청법우회 이중근(56 사회복지과 과장 · 사진) 회장이 밝히는 사하구청 법우회의 존재 이유다. 심신의 정진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보는 안목을 길러 구민들의 참다운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발원한 법우회 회원은 78명. 매월 둘째 화요일마다 열리는 법회 때에는 관음사 법당을 가득 채운다.

"6년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정기법회를 이어온 것에 긍지를 갖고 있다"는 이회장은 "적멸보궁 참배, 봄가을 삼사순례, 수계법회 등으로 회원들의 신심을 더욱 진작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하구청 법우회는 이병주 총무가 관리하는 홈페이지(http://my.netian.com/~sahabud/)를 통해 회원들이 기초교리, 사찰 예절, 경전, 불교예술 등의 공부를 온라인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불교는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수행이 근본이 된다"는 이회장의 뚜렷한 종교관과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교육은 사하구청 법우회를 수행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모임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회원들 한사람 한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며 회원자랑을 잊지 않는 이회장은 "앞으로 불우시설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2.학교연혁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 합격(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2년 8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7 FAX.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9월 본과(학사)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영문)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학사 졸업자 한함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3월예정(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8월 23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석사과정 졸업자는 중의사고시 시험가능 1년인턴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스: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2002. 8. 23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탐욕과 성냄 다스리기

7월-인욕의 달
· 기꺼운 불편 감수
· 탐욕과 성냄 다스리기
· 하심과 관용
· 인욕통한 몸·마음의 해탈



◇업장을 소멸하고 탐욕과 성냄 등 온갖 번뇌를 참는 인욕의 실제적인 공부에는 '절 하기'만큼 좋은 게 없다. 매일 점심 때마다 108배로 인내를 기르는 명성여고 학생들.

말보다 실천 먼저… '그림자 보살'

우리 절 우리 신도

서울 약왕정사 신도회 이정순 부회장



◇자원봉사단체 '동심회(同心會)' 회원들에게 이정순 씨(가운데)가 수지침을 가르치고 있다.

이정순 보살(61 · 법명 정법수). 이 보살을 만나기 전, 서울 수유동 약왕정사 현오 스님에게 먼저 소개를 받았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사람. 누구라도 자신을 필요로 하면, '내 절 네 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찾아가 도와줘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람. 수지침과 약초를 들고 전국 각지를 돌며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다음날 이 보살을 만났다. 하지만 이 보살을 보자마자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일 거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질끈 동여맨 회색 몸빼 바지, 차분하다 못해 수줍음까지 타는 얼굴,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 여느 절에서 볼 수 있는 '공앙주 보살'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림자 보살'. 약왕정사 신도들은 이 보살을 이렇게 부른다. 늘 밀없이 사찰의 대소사를 챙기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보살은 매일같이 약왕정사로 '출근(?)'을 한다. 신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 정기 법회나 사찰 행사 준비는 물론, 신도들 상담에서부터 법당 청소에 이르기까지 이 보살은 온갖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척척' 해낸다.

이 보살의 활동은 약왕정사 내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1996년 이 보살은 '우리 절 남의 절 가릴 것 없이 어려운 사찰을 찾아다니며 보살행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자원봉사 단체 '동심회(同心會)'를 결성했다. 약왕정사 신도 15명과 의기투합, 동심회의 산파역을 했던 이 보살은 회원들과 함께 인근 사찰 신도의 애경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 서울 강북지역 복지관을 일일이 돌며 독거 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위문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인들에게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이 보살이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데 든든한 도반이 되어 주었다.

이뿐만 아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 보살은 6년 전 불교방송 문화센터에서 '수지침'과 '약초학'을 배웠다. 좀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강북구청 인터넷 검색 교육까지 받았을 정도였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듯, 부처님을 항상 그리워했어요. 서른아홉 살, 다 늦은 나이에 부처님을 알게 된 거죠. 우연히 절에 들렀다가 〈법화경〉과 〈유마경〉을 강의하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갈등과 괴로움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결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무척 반가웠어요. 제가 이렇게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게 된 것도 이 때 시작이 된거죠. 모든 사물이며 생명들이 내 몸과 같은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약왕정사 총무 이형숙 보살(47 · 반야행)은 "처음에는 말수도 적은데다가 너무나 조용해 법당에 와서 자식들과 남편만을 위해 불공만 드리고 가는 보살님인 줄 알았다"며 "뒤늦게 이 보살이 남을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웠다"며 털어놓았다.

요즘 들어 이 보살은 노인 ·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복지 '케어(care)복지'를 공부하고 있다. 올 9월 경기도 포천지역에 1만 여평 규모로 첫 삽을 뜰 '케어복지센터' '불무사(佛舞寺)' 불사에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는 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불무'라는 뜻이 '부처님 법을 깨달아 법열에 취해 춤춘다'는 의미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복지사업에 있는 힘을 모두 다 쏟을 생각"이라며 밝게 웃음지었다.

김철우 기자

내 절·네 절 가리지 않고 봉사, '동심회' 창립

'케어복지센터 佛舞寺건립에 헌신' 원 세워

慈相 · 慈觀 등 6가지 방법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권의 불서를 집필했지만, 당시의 사건은 격렬한 논쟁과 그로 인한 분노, 논쟁의 후유증을 드러낸 상징적인 일로 회자되고 있다.

오늘날은 1분1초를 다투는 경쟁의 시대다.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때로는 서로에게 분노를 준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팽배로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에는 불평과 불만을 품거나 쉽게 화를 내, 스스로와 주위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불교에서는 무엇에 욕심을 내며 괴로워하는 이를 위해서는 보시라는 베풂의 실천 덕목을 분한 마음과 성내는 이를 위해서 인욕이란 참을성의 덕행을 깨우쳐 마음의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사실 우리는 남과 싸워 이기려는 위세는 당당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살펴 볼 겨를은 없다. 하지만 불자들이 이겨야 할 대상은 남이라기보다 자신이다. 탐욕과 성냄의 대상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의 번뇌가 투영된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며, 그 마음을 거두고, 화내는 마음을 버려야 하나니, 도를 행함에 있어서 인욕이 가장 훌륭한 방법"(법구경)이라고 설했다. 특히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분노와 욕심을 관찰하고 제거하는데 적합한 관법(觀法) 수행은, 인욕의 가장 큰 극복대상인 분노를 없애는 6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한다.

①자상(慈相)을 얻고 ②자관(慈觀)에 전념할 것 ③업은 자신의 것임을 생각할 것 ④자관의 좋은 점과 분노의 해로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 ⑤분노를 잘 다스리는 선지식을 가까이 할 것 ⑥자관의 이로움과 분노의 불이익에 대한 말을 할 것.

김재경 기자

신행 캘린더

7월 17일 (수)

■정토수련원 '깨달음 · 나눔의 장' = 문경 정토수련원에서는 17~21일까지 4박 5일간 '깨달음의 장 · 나눔의 장' 수련회가 열린다. 바쁜 일상에 쫓겨 '참 나'를 잃어가는 현대인들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는 수련마당. 참가비 20만원(054)571-6031

7월 18일 (목)

■재가연대 '경영관리자 과정 강좌' = 참여불교 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는 20일까지 북악파크호텔에서 '3기 경영관리자 과정'을 실시한다. '21세기 사찰모형탐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정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불교지도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정보화 시대 사찰운영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한다. 선착순 30명. (02)745-7799

7월 20일 (토)

■동화사 '백고좌 대법회' =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는 20일 임재식을 시작으로 '민족화합 평화통일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한다. 초청법사로는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스님을 비롯, 전국 5대총림 방장스님과 중견스님들이 나선다. 선지식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053)985-4404

■양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어울마당' =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7월 20일 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부산진구 파워(power)1318 가곡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 합창단 및 청소년 음악동아리를 대상으로 가곡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2곡(우리가곡 : 1곡, 자유곡 :1곡)을 준비해야한다. (051)868-0750

7월 21일 (일)

■대구불교사회복지회 '108사찰순례' = '단순한 사찰 순례는 싫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사찰순례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 불자라면 '108사찰 순례'에 참가해 보자. 매달 세 차례 기도 순례를 마련하고 있는 대구불교사회복지회가 이번에는 경북 봉화 청량사로 떠난다. 참가비는 2만5천원. (053)475-1080



◇'108사찰순례단' 회향법회 모습.

7월 22일 (월)

■영남불교대 '어린이 불교학교' =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는 21일 관음사 3층 대법당에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초등학생 및 유치부(1000명 선착순)를 대상으로 하는 법회에서는 만화영화 상영, 레크레이션, 단주만들기, 사경기도 등을 한다. 또 참석자 전원에게 수계증, 수료증, 불자T셔츠, 법요집을 지급한다. 회비 5천원. (053)474-8228

7월 23일 (화)

■불교자원봉사련 '푸른서울가꾸기 자원봉사' =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나무와 숲에 관한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나무와 숲에 대한 이론교육 후 가로수와 공원의 나무를 직접 가꾸는 현장학습도 이뤄진다. 교육 수료 후에는 나무와 결연을 맺어 아픈 나무를 관리하는 활동도 펼칠 수 있다. 어린이, 초 · 중고생, 일반인, 또는 가족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 (02)723-6258

추천의 말

현오스님 약왕정사 주지



1996년 약왕정사가 서울 수유동 산등네 연립주택에 도량을 마련할 때부터 지금까지 동고동락을 해 온 사람이 바로 이정순 보살입니다. 약왕정사 신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보살은 평소 '걸림없는 보살행' 실천으로 대중의 화합은 물론, 사찰의 대소사를 손수 챙기는 등 다른 신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보다 실천을 먼저 보이는 이 보살은 '네 절, 내 절을 가리지 않고 보살행을 실천'해 도움을 받고 있는 여러 사찰의 스님들이 이정순 보살에게 '전국구 보살'이라고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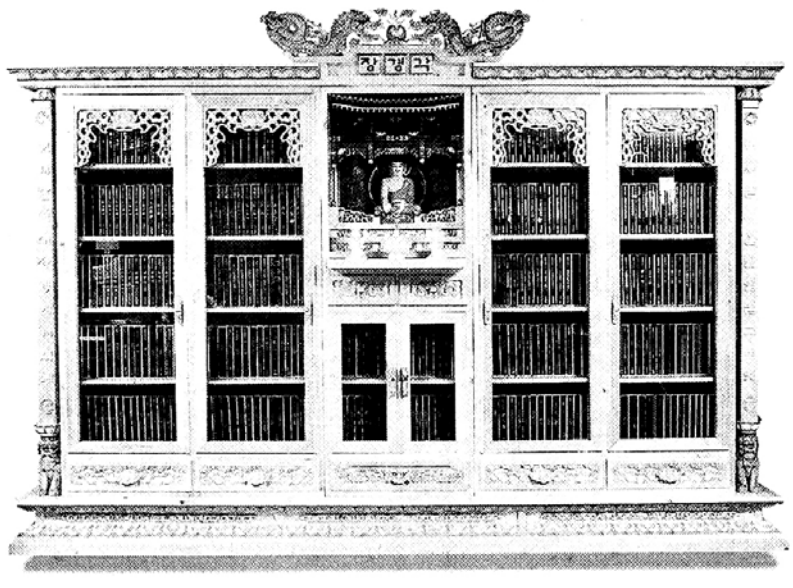
올 9월 약왕정사는 케어복지센터 '불무사(佛舞寺)' 기공식을 갖습니다. 경기도 포천 지역 '불교케어복지 전문도량'이 될 이곳은 앞으로 노인 · 장애인 등을 위한 불국정토로 거듭날 것입니다. 약왕정사가 이렇게 '복지 인간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정순 보살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불교대학을 찾아서

⑥ 동방불교대학



◇졸업과 동시에 영산재 보존회 이수증도 수여받는 범패과는 동방대의 대표학과다. 사진은 졸업시연회에서 범패과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는 모습.

태고종 종립대…건학이념 자비·전법·도생
불교학과로 시작, 범패·불교미술 증설
한국불교 전통의 맥 잇는다는 긍지로 면학

서울 성북동 태고종 중앙불교회관. 하얀 법복을 입은 스님이 춤을 춘다. 징, 나팔 소리에 맞춰 세상 모든 번뇌를 끊으려 함인가. 원을 그리다 깨트리고, 다시 원을 그리며 스스로 원이 된다. 회관 내 다른 공간. 세상 만물이 정지한 듯한 고요 속에 붓 놀리는 소리만 살아있다. 불화 그리는 이의 얼굴은 그림 속의 그것과 닮은 듯하다.

'자비, 전법, 도생'이 건학이념인 동방불교대학(이하 동방대, 학장 정태혁)은 전문 포교사 양성을 위해 1982년 서울 중곡동에서 '불교 포교사 전문대학'으로 개교했다. 이듬해 동방대로 개명한 후, 1985년 현 성북동으로 교사를 이전했다. 처음에는 불교학과만 개설하다 1990년 범패과와 기숙사를, 1991년에는 불교미술과를 신설했다.

불교학과에서는 불교신행론, 태고사상 등의 공통과목 외 불교의식, 유식학, 포교론 등을 배운다. 범패과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인 영산재보존회 소속 스님들에게 불교의식론과 상주권공을 이수받는다. 또 불교미술과에서는 경산화파(서울·경기 지역의 불화풍. 강한 선과 화려한 색으로 생동감을 표현한다)의 맥을 이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만봉 스님의 법제자들로부터 단청과 불화를 전수받는다.

동방대는 태고종립 대학답게 범패와 불화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불교 전통의 맥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가운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녹아들어, 졸업후 바로 실무에 투입되어도 별무리 없을 정도다.

특히 범패과의 경우 졸업을 하면 영산재보존회에서 이수증을 수여하여, 졸업생들로 하여금 한국불교의 전통을 잇는다는 자긍심을 심어준다.

동방대의 학사관리는 엄격하다. 재학생들은 학기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며, 주 5일 수업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또한 매월 1박 2일은 발우공양 등을 몸으로 익혀야 한다.

동방대의 또 다른 특징은 재학생 중 승가와 재가의 비율이 반반이라는 점이다. 종립 대학이라는 특성 때문인데, 재학생과 졸업생이 같은 종도라는 소속감으로 강한 유대감도 보여주고 있다. 그 예가 각종 졸업생들의 다양한 장학금 기탁이다.

동방대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이운산 총무원장 취임 후 태고종은 선 교육 후 득도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 먼저 동방대에서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득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태고종은 이 불사를 위해 향후 2년간 합동득도 제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개교한 지 20여년. 교수들의 한 획, 한 동작까지 세심한 지도로 정평난 대학. 범패와 불화의 요람 동방불교대학.

정태혁 학장은 "현재 동방대는 한국불교 전통을 바탕으로 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교대학원 중심 대학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학부·대학원 마친후 법문가요로 포교
6기졸업생 법만스님



법만스님(서울 법만사 주지, 사진)은 동방대 불교학과에서 학부(6기)와 대학원까지 마쳤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법문을 리듬과 멜로디라는 옷을 입혀 '법문가요'라는 장르를 개척한 스님은 대중포교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스님은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동방대에서의 배움이 포교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불교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는 동방대에서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인 김홍성의

네 팔 사 는 이야기

〈5〉 뻐꾸기



구슬피 우는 설산 뻐꾸기 생각하며
주어진 삶 다시한번 보듬어 보는 꿈을

또 비가 옵니다. 멀리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창 밖 가득 사탕 같은 꽃을 떨구던 석류나무 잎새에 비 듣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치는 청중들의 박수처럼 지루하게 들려옵니다.

올해 네팔의 우기는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뻐꾸기 우는 소리는 전처럼 자주 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뻐꾸기들은 비를 피해 설산 가까이 날아가 울고 있을 겁니다. 재작년 우기에는 설산과 설산 사이의 드높은 고개 토롱라 밑에서 그 놈들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말라야에 우기가 올 띠쯤이면 카트만두 변두리에 찾아와 울다가는 뻐꾸기들에게 어느새 정이 들었나 봅니다. 어제는 뻐꾸기 우는 설산 밑까지 긴 도보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설산 밑에서 듣는 뻐꾸기 울음소리는 카트만두에서 듣는 뻐꾸기 울음소리와 많이 다릅니다. 설산 밑에서 뻐꾸기 우는 소리를 들으면 눈물납니다. 뻐꾸기 우는 소리는 차마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아주 떠날 수는 없는 속세에서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공을 향해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이 세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뻐꾸기 우는 소리를 등지고 저자거리를 향해 내려오노라면 나는 왜 내려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눈물이 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르겠더군요. 정말 모르겠더군요. 그냥 눈물만 나더군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사랑해 보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번번이 실패하는 사랑이었을지라도, 비록 번번이 실패하는 인내였을지라도, 또한 번번이 실패하는 용서였을지라도,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해 볼 아무런 의욕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뻐꾸기가 찾아와 울었던 겁니다.

어느 천 년에 이미 사라진 옛날 사투리로 뻐꾹 뻐꾹 울다 간 그 뻐꾸기가 오늘 이 빗속 어디선가 또다시 울고 있습니다. 저 놈의 뻐꾸기.

저는 제 골방에 누워서 진종일 비 오는 골목을 벗어나 뻐꾸기 우는 능선에 올라서는 꿈을 꿉니다. 태양이 빛나는 푸른 창공 아래서, 그리고 새하얀 뭉개 구름 아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보듬어 안는 꿈을 꿉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경불련 외국인센터' 찾는 외국인노동자들

고통 덜어줄 '도움' 절실

주거환경 열악·산재·임금체불 수개월
"중국·몽골·영어 자원봉사자 있었으면…"

외국인노동자 40만 명 시대. '불법체류자'라는 멍에가 이들의 절대다수를 옭아매고 있다. 그러다보니 고질적인 임금체불, 산업재해를 당해도 마땅히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전형적인 도농도시, 경기도 김포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가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는 김포 지역 내 5천 여 외국인노동자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9일 인권문화센터를 찾은 앳된 얼굴의 원덴하이 씨(25). 잘려나간 손가락만 물끄러미 내려 보고 있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2년 전 한국에 찾아온 젊은이. 그러나 지난 4월 인천 서구 공업사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 셋째, 넷째, 다섯째 마디가 잘려나갔다. 기계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당한 갑작스런 사고. 답답한 마음에 인권문화센터를 방문했다. 경기 김포시 마송 지하 단칸 셋방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몽골인 잉케(29) 씨. 그 역시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컵 공장에서 오른손 손가락 세 개가 잘렸다.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상황서 한 달만에 사출기계를 다루다보니 이렇게 됐다. 다행히 산재보상 1천만원을 받았지만, 잘려나간 손만 쳐다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경불련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정진우 실장이 베트남인 원덴하이 씨의 손가락이 잘려나간 손을 들여다보고 있다.

잉케 씨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옥죄는 것은 비단 '산업재해'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임금체불' 문제다. 3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파키스탄인 무스타큐(45) 씨는 아직까지 9개월 치 임금 96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인 마닉(28)과 칼람(29) 씨, 이들 또한 불법입국자라는 신분으로 체불임금 5백만원을 고스란히 떼일 지경이다. 참다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 임금지급 명령 판정을 받았지만, 고용주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당국에 신고당하더라도 벌금만 조금 내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려운 형편에 대다수가 컨테이너 박스, 창고를 개조한 집, 심지어 버려진 빈농가에까지 들어가 산다. 사정이 조금 낫다 싶은 외국인노동자들은 15~20만원 정도의 사글셋방에서 사는 정도.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정진우 실장은 "한국인들의 각성이 절실하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유대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오는 산업재해, 질병, 체불임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 고용주의 폭행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인권상담, 의료기관 알선,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후원금에 전적을 의지하다보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는 무엇보다도 중국어, 몽골어, 영어 등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하다며 불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문의 : (031)997-2301

후원계좌 : 조흥은행 877-06-008223(예금주:외국인노동자센터)

김포=김철우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이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처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到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

대표팀 주치의 김현철박사는
"우리선수들의 체력증진에는 파워프로그램이 큰 구실을 했지만 보양식도 큰 역할을 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우리 선수들의 지구력이 우리와 비슷한 파워프로그램으로 훈련한 다른 유럽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대표팀 선수들은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세차례식사때 오가피를 먹고 있으며, - 중략 -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이다.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아일보 6월 20일 보도)

꼭 확인하십시오!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고있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7-0047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⑥



그림 · 문병성

전자입실

20세기말에 이르러 과학은 크게 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양자물리학을 통해 물질의 기본이 되는 원자의 신비를 밝혔으며, 이 양자물리학을 근간으로 한, 독자적인 분자생물학의 발달은 생명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생명체들의 유전자 정보를 모두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빠른 과학 및 공학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컴퓨터를 보유하게 하였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과학 분야 전문가들은 21세기에는 이들 세 분야가 결합하여 매우 빠르게 과학과 공학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예측대로 정말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선진국들은 이들 분야의 통합적 핵심 연구과제의 하나인, 나노 미터(10억분의 1m: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인 길이) 크기인 미시세계를 제어할 수 있는 나노기술 개발 및 상업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일반인들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일이지만, 생물학자들이 한때 일시적으로 생명의 청사진이 들어있는 수백만의 유전자의 비밀을 도저히 다 풀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면서 유전자 서열 규명 작업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실리콘 칩 제작 방식으로는 2020년이 되면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컴퓨터의 빠른 연산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유전자 염기 서열 규명 작업도 역시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자 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유형의 기술인 광컴퓨터, 분자컴퓨터, DNA 컴퓨터, 양자컴퓨터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괄목할 만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가운데에서도 특히 현대인들 모두에게 생활 속에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은, 2002년 4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억대 정도 보급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한 인터넷 분야일 것이다. 사실 요즈음은 시골 할아버지 가운데에도 개인용 PC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과 더불어 하루를 보내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인터넷은 1969년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1986년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교육연구용으로 그 용도를 확장하였으며, 상업적 이용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따로 협호를 구성하여 1992년 상용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書狀' 보다 효과적 '전자서장' 출현 확신
부작용 보완위해 '인터넷계율' 제정 시급

그럼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컴퓨터 활용에 관한 불교적인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젖)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액)을 만든다'라는 구절이 있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이다. 21세기의 무한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 컴퓨터의 순기능인 빠른 정보처리 및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잘 활용하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으나, 컴퓨터의 역기능인 비정상적인 채팅, 게임, 도박 및 성인물 탐닉 등의 인터넷 중독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경쟁에서 뒤쳐지며 낙오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의 장점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승속을 떠나 종교적인 수행자의 경우, 언제 어디에서나 영적인 스승과 만날 수 있다. 즉 '깨침의 길'까지 맞닿아 있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종달 이회익 노사의 입적 이후 선도회 문하생들의 입실 지도를 해오던 중 지방에 계신 한 교수님의 적극적인 열의에 힘입어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실(電子入室)' 지도를 해보았다. 그 결과 직접적인 '입실' 지도와 똑같은 효과를 확인하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에 계신 여러 분들의 수행 과정을 잘 점검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전자입실' 지도방법을 곰곰이 살펴보면, 오늘날의 간화선 수행체계를 확립한 남송 시대의 대혜 종고 선사가 16년간 귀양살이를 하면서 사대부(당시의 전문 지식인)들과의 서신교류를 통해 행한 '서신입실' 지도방법과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대혜 선사께서 서신 지도했던 글을 모아 편찬한 〈서장(書狀)〉은 오늘날 간화선 수행자들의 요긴한 필독서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만일 많은 영적인 스승들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실' 지도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대혜 선사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 속에 이루어졌던) 〈서장〉보다도 더 효과적인 '전자서장(電子書狀)'이 출현하리라 확신한다. 한편 인터넷의 단점인 인터넷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현실 생활을 등한시함으로써 학업 · 직장 · 결혼 · 대인관계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중독 현상에 관해서는 석가세존께서 승단을 형성하면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그때마다 계율의 제정을 통해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셨듯이, 영적인 스승들이 현대인들을 위한 인터넷 계율을 제정하고 이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며 함께 하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park@ccs.sogang.ac.kr

이렇게 들었다

선지식 돈받고 뽑아서야…

교수임용 비리

'교수직 사고팔기', 결코 풍문이 아니었음이 확인됐다.

최근 교수신문과 학술 · 연구 · 채용 전문 사이트인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이 공동으로 실시한 '교수 임용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대학 교수직에 지원 경험이 있는 1천72명 가운데 사립대학 지원자 166명, 국공립 대학 지원자 11명 등 177명(16.5%)이 임용과정에서 금전적 요구나 학교발전기금 기부를 요청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 형식의 돈 액수도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달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또 응답자의 79%가 "교수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 "학연이나 인맥 등에 의해 뽑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채용 공고를 낸다"(78%)고 생각했다.

교수 임용비리가 횡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 직접적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되지만, 실력을 쌓는데 몰두해야 할 젊은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는 결국 학문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게 뻔하다. 학연과 지연, 인맥을 배제한, 철저한 능력 위주의 선수 선발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대학 사회도 마음에 새겨야 할 때다.

▨수행해 먼저 자신을 바로잡은 다음에라야 남을 바로잡을 수 있다. <법구경>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며, 몸으로 바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출요경 방일품>

▨선지식의 힘은 범행(청정한 행위)이 전부이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아첨을 하는 마음은 도와 어긋난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한다. 마땅히 아첨은 자타를 속일 뿐이어서, 불도에 들어온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교경>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⑱

그저 명백할 뿐이다

"무엇이 부처와 마구니입니까?"

"그대의 한 생각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이것이 마구니이다. 그대가 만약 만법은 생겨나지 않으며 마음은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다는 것에 통달하면, 다시는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어서 곳곳이 모두 청정하니, 이것이 바로 부처이다. 그러나 부처와 마구니는 물들거나 깨끗한 두 가지 경계이다. 나의 견처에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예도 없고 지금도 없으니, 얻는 자는 곧바로 얻을 뿐 시간을 거치지 않으며, 닦음도 없고 증득함도 없으며 얻음도 없고 잃음도 없을 뿐, 언제든지 다시 무슨 다른 법은 없다. 설사 이것을 넘어서는 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꿈이나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모두이다."

법이라고 말하면 이미 법이 아니다. 법이라는 말이 법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라는 말로써 법을 이해할 수는 없다. 법은 말하고 침묵하고 알고 모르는데에 상관이 없다. 사람이 법을 말하고 법에 관하여 알음알이를 지을 뿐이지만, 말과 알음알이는 마치 허공 속에 울리는 메아리 같이 허망한 것이다.

법은 명백하여 의심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캄캄한 것이지, 반쯤은 알고 반쯤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체험하여 법에 통하여 버리면 점차 의심 없이 명백해지지만, 체험이 없이 생각을 따라 배우면, 오래 상세히 법을 말할 수 있어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뿐이다.

견성, 이미 익숙한 '법' 체험하는 일

법은 반드시 체험을 통하여 확인된다. 이 체험을 흔히 견성이라고 부른다. 체험을 통하여 확인되는 법은 전혀 예상 밖의 생소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단순하고 당연하고 이미 익숙하게 사용해온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게도 된다. 이미 완전하게 갖추고 익숙하게 사용해온 것이긴 하지만, 체험이라는 확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넙은 그저 암흑 속의 비밀일 뿐이다.

체험은 어떤 과정을 차례차례 밟아서 하나하나 얻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치 달걀이 시간이 지나면 부화하여 병아리가 나오듯이, 법을 체험하고자 염원을 낸 자가 그 염원을 잃지 않고 더욱 간절하고 깊게 한다면 언젠가 그 염원이 부화하여 체험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공부에는 어떤 정해진 방법이 없다. 그저 간절히 소원하여 그 소원을 버리지 않고 더욱 깊게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공부 방법이란 이 소원을 일으켜서 잘 유지하고 더욱 깊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체험은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계기로 발생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와 그러한 계기가 체험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가져온 염원이 때가 되어서 폭발하는 것이다. 체험할 당시의 계기는 그 폭발을 일으키는 약간의 자극일 뿐이다.

폭발력은 법을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삶의 일차적 관심을 온통 그 염원에 둠으로써 생긴다. 그 염원의 힘이 커져서 온 몸을 지배하게 되면 마치 바람이 팽팽히 들어간 풍선처럼 되어 조그만 자극에도 폭발하는 것이다.

폭발의 체험을 하고 보면, 지금까지의 의심이 사라지고 그저 밝고 가볍고 편안할 뿐, 법이라는 이름이나 생각은 사라져 버린다. 이제 법의 힘이 온몸에서 직접 느껴지므로, 법에 관하여 말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저 명백할 뿐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대학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물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팔상도 Eight Scenes of the Buddha's Life

5. Asceticism

For six years he studied and meditated to find the truth. He punished and disciplined the body until he was nearly dead. Finally realizing that this was not the right way, he began to live moderately.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육년 동안 공부와 명상을 계속했다. 그는 극음에 이를 정도로 혹독한 고행을 했지만 결국 이 방법이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고 중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6. Temptation

The demon Mara, symbolizing delusions which arise during meditation, tries to disturb Siddhartha's practice. First he sent worldly pleasures, when these failed, he sent his army-cum-monsters but siddhartha was able to stop them. Siddhartha finally defeats all temptation and attain perfect enlightenment.

명상 중에 일어나는 망상을 상징하는 마왕 파순이 싯다르타의 수행을 방해하려고 시도한다. 처음에는 세속의 쾌락을 보내 실패하자 마군을 보냈으나 싯다르타는 이들을 막아냈다. 싯다르타는 마침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으로 으뜸가는 금강경!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미타기도법은 영가님들께
영원 생명과 무량한 빛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 천도를 하는 가족의 자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

이 책에는 업장과 참회,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절을 통한 참회, 참회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등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여러 가지 참회 기도법, 참회영험담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

목어 뒷마무리 잘하기



한창 수출국 운운하면서 수출에 열을 올렸던 1970년대의 블랙 코미디에 망가진 상품 하나를 들고 코미디언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외친다. 그러면 이런 코미디를 들고 보면 미국의 시청자들이 와르르 웃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게 그렇게도 우스운 일인지 코미디에까지 등장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만큼 뒷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회도 드물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그런 습관의 잔재는 구석구석 들쳐 볼 수 있다.

지난 6월 한달 동안은 월드컵 축구의 열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고통이 파묻혀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붉은 악마의 활동 덕택에 오랜만에 자발적인 일체감을 경험하도록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은 그런 열정적인 일체감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뒤끝이 흐지부지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기우이다. 기왕지사 일체감으로 분출했던 에너지라면 이 에너지를 사회의 각 분야에서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으로 활용 했으면 하는 것이다.

가깝게 템플 스테이가 수적으로는 많은 참가자를 끌어들인 것은 아니지만 그 발상이나 경험의 소중한 체험담으로 미루어 보면 확실히 성공하고 또 한국체험을 대표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월드컵이 끝났다고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종교가 다른 시민들에게도 템플 스테이는 담담하고 평온한 체험으로 기억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잘 마무리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외국인은 물론 타종교인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알리는 방편으로는 안성맞춤이다. 특히 서양세계의 가치변화를 동양의 문화 특히 불교적인 컨텐츠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뒷마무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우리도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깔끔한 뒷 마무리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이근후(불교상담개발원장)

불자 세상보기



김상득
전북대 철학과 교수
윤리학

인터넷-익명의 바다, 도덕 불감증

장마철이다. 비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공급해주는 자연의 선물이다. 하지만 그 물이 지나치면 홍수가 되어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다. 홍수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지닌다.

인터넷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터넷은 정보를 손쉽게 전달해주는 지식의 보고요 문명의 선물이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가 암시하듯, 인터넷 역시 사회적 재앙을 낳고 있다. 인터넷이 게임과 음란, 그리고 상업주의와 결탁하여 만들어낸 게임중독, 성매매, 자살 등의 사회적 병폐가 바로 그것이다. 그 일차적 희생자는 인터넷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다.

최근 청소년상담세미나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인터넷 채팅 중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제의받은 청소년 중 16%가 실제로 성매매에 응했다고 한다. 성매매를 제의받은 초등학생 149명 가운데 3명이 응했다고 답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은 자살 사이트를 접속한 경험이 있으며, 10명 중 4명은 동반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위험 수위를 넘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삼림이나 댐과 같은 치수산업으로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홍수는 재앙을 낳는다. 홍수는 자연 현상이지만 홍수 피해는 인재이다. 인터넷이나 성 해방이란 문화적 홍수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대비만 하면 된다. 홍수 재앙을 대비하지는 못하지만 문화적 홍수는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에 눈먼 인간들이 자유를 핑계로, 유해한 인터넷이나 성해방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으로 호도한다. 생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컴퓨터나 인터넷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이제 생활 자체이다.

인터넷 사용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들은 세계화의 주역이고, 또 정보 이용의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음란사이트나 자살사이트 접근을 막는 '차단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기술주의적 접근법이다. 이는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청소년 성매매나 탈선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는 철저한 이중성 사회에 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너의 구분이다. 내 아들이 음란 비디오를 보는 것에 반대하는 선량한 어른들이 자기 아들 또래 중·고생에게 음란비디오를 서슴없이 빌려준다. 내 딸의 원조교제에 대해서는 길길이 날뛰는 이 땅의 아버지가 자기 딸 또래의 여학생들과 원조교제 미끼를 던지고 즐긴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철저한 나와 너의 구분이요, 이중성이다. 이런 이중성을 버리지 않는 한 문화적 홍수 피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 개개인은 비판적 사고로 무장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를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촌이 논을 사면 자기도 논을 사야만 적성이 풀린다. 이성적 사고보다는 감성적 시각이 발달한 세대이다. 또 '어른들을 본받아' 정신적인 가치보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배금주의가 이들의 무의식을 지배하여, 성을 그 수단으로 생각한다. 어처구니없는 가치관의 혼란이다.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한 행복과 연관지어 사랑, 성 그리고 돈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을 길러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기고

월드컵, 그리고 북한산 관통도로

불교대중화와 세속화 혼동하지 말기를
스님과 불자들이 북한산 에워싸고 기도한다면…



이문재
시사저널 편집위원
시인

스님, 청안청락하신지요.

텃밭에 상추며 쑥갓, 아욱, 가지, 들깨가 한창이겠네요. 태풍이 씻고 간 산록과 계곡이 맨 처음처럼 청정해져 있겠습니다. 성난 듯 푸르러져 있는 숲의 빛깔에 탁한 눈 씻고, 우당탕탕 흘러내리는 물소리에 어두운 귀를 후벼 파고 싶기만 한데, 이 아둔한 몸은 세속에서, 일상적 삶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깥 출입이 거의 없으신 산중 스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6월 한 달, 이 나라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리는 날, 특히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 날은 어린이에서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함성을 지르고 손뼉을 쳐댔습니다. 뭔가에 쐬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서울 시청앞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붉은 옷을 입고 태극기를 든 수십 만명의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텔레비전에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스님들께서 축구 중계방송을 보다가 벌떡 일어나 서로 부둥켜 안고, 만세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팀과 경기를 벌이던 날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인사동 가는 길에 조계사에 들렀다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대웅전 앞에 대형 스크린과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끝날 때까지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받아야 했을까요? 스크린 너머로 부처님이 보였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내건 축구공 연등이나, 월드컵을 앞두고 장충동 국립극장 가득 스님들이 모여 월드컵 대회 성공을 기원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축구 경기를 보며 환호하는 스님들이나 조계사 경내의 대형 스크린이 낯설 까닭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어떤 사찰의 선방에서 수행을 멈추고 선방 수좌들이 다들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봐야 하는 금속성 이명이 머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지요. 뭔가 이상하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저 붉은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은 누구인가 라며 짐짓 흥분의 도가니로부터 비켜서려 했지만,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 때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은, 제 몸은 저의 것이 아니었지요.

어떤 이들은 '축구 앞에서 열광하는 스님들이 뭐가 이상한가'라며 반박합니다. 불교 대중화의 일환이라고도 말합니다. 불교가 당대 현실과 시차없이 대화하는 진일보라며 기뻐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스님, 과연 그런 것일까요? 세속적인 모든 인연을 훌훌 떨쳐버리고 대자유인으로 거듭나려는 스님들에게 월드컵 대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도 인간이고, 스님도 한국인이다, 라는 초등학교 어린이 수준의 반론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 수행이란 일체의 세속적 욕망, 가치, 인연 따위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려는 지극한 인위입니다. 척추를 곧추 세운 수행자와 '욕망의 테마 파크'인 월드컵 대회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습니다.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지요. 스님들께서 모르고 계셨던 것일까요? 월드컵 축구대회가 상업주의, 국가(민족)주의, 빈부 격차, 노동 착취, 인종 차별과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았던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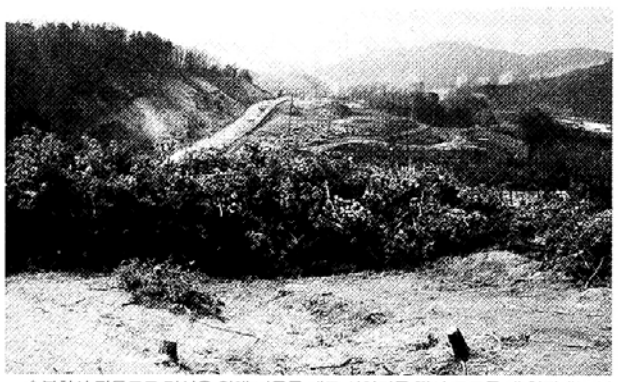
월드컵 열기에 편승해 불교를 대중화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불교와 사찰, 스님은 월드컵 열기를 측은해 했어야 합니다. 꾸짖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가 대중에게 다가가는 정도(正道)가 아닐까요. 불교의 대중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교 안에 있습니다. 불교가 불교다울 때, 사찰이 사찰다울 때, 스님이 스님다울 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불교의 대중화와 불교의 세속화가 부디 혼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열기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가 집중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새만금 갯벌이 매립되고, 북한산 국립공원이 훼손되는 사태야말로 불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본질적이고도 대중적인 사안이 아닐까요?

스님,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비구와 비구니 스님, 재가 불자들 수만 명이 북한산을 빙 둘러서서 침묵의 기도를 올리는 광경 말입니다.

위기에 처한 뭇생명들이 온전해지지 않는 한, 눕지 않겠다며 결가부좌하는 스님의 결연함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스님, 여름휴가 때 아이들 손을 잡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위해 나무를 베고 산허리를 깎아 도로를 낸 현장에는 북한산을 살리려는 스님들의 수행처 철마선원이 세워졌다.

불자의 생각

성보박물관



불자들은 사찰을 참배할때 성보박물관을 거의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6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디즌 설문조사 결과 44명(51.2%)의 불자들은 사찰에 갔을때 성보박물관을 반드시 관람한다, 42명(48.8%)은 가능하면 한다고 응답했다.

"사찰참배 때 꼭 관람" 51.2%

성보박물관을 관람할때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37명(43%)이 설명부족, 20명(23.3%)이 전시공간의 협소, 17명(19.8%)이 전시유물 빈약, 12명(13.9%)이 기타 라고 답변했다.

임연태 기자

티베트 · 수미산 순례

실크로드의 티베트 및 수미산 순례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월에 출발하는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티베트 일주 10박 11일

라사의 포탈라 궁전으로 부터 티베트고원을 횡단,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의 카투만두 까지

▶ 출발일 : 8월 27일 ▶ 여행경비 : 239만원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 시가-장무-카투만두-인천

수미산 순례 17박 18일

우주의 중심으로 불리우는 수미산과 성스러운 호수 마나사로바등 경전상의 수미산의 세계를 찾아 보는 일정으로 특히 올해는 철마년으로 불리우며 이해에 수미산 순례를 하면 업장소멸 및 그 공덕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수미산의 신비로운 기운과 영적인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수미산 순례는 고산증등으로 건장한 분만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수미산 순례에는 최소한 18일이 필요하며 일정을 단축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 출발일 : 8월 31일 ▶ 여행경비 : 359만원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시가체-라체-사가-파양-마나사로바-수미산-파양-사가-장무-카투만두-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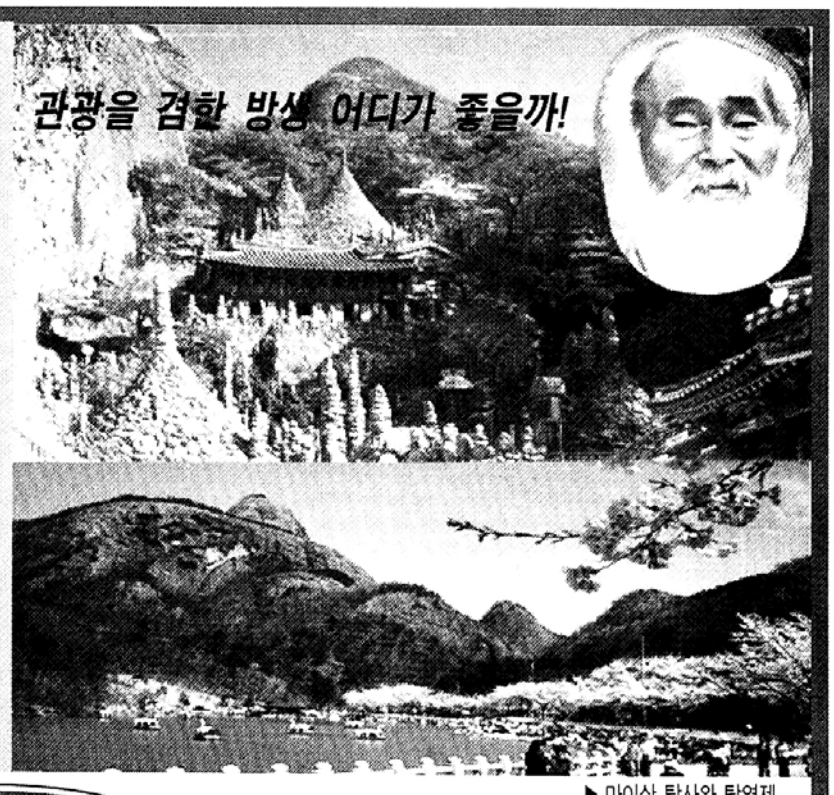
■ 스리랑카 성지순례 5박 6일

▶ 출발일 : 8월 30일
▶ 일 정 : 인천-싱가폴-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루와-시기라야-캔디-콜롬보-인천

(주)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건너편 신한은행 9층)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세계 여성 출가자 수계 형태

국 가	전 통	비구니계	사미니계	기타 수계	법복 색깔
미얀마	상좌부	무	무	10계	오렌지 및 분홍색
캄보디아	상좌부	무	무	8-10계	백색
중국(대만)	대승	유	유	무	회색, 흑색, 갈색
일본	대승	무	무	보살계 및 10계	흑 또는 백색
한국	대승	유	유	무	회색
라오스	상좌부	무	무	8-10계	백색
네팔	상좌부	무	무	10계	오렌지 및 분홍색
스리랑카	상좌부	무	무	10계	샛노랑색
태국	상좌부	무	무	8계	백색
티베트	대승(밀교)	무(소수 존재)	유	무	포도주색
베트남	대승	유	유	무	회색 또는 갈색
베트남	상좌부	무	무	10계	백색


◇미얀마.


◇터국.


◇중국.


◇대만.

세계의 여성 출가자들


◇티베트.


◇스리랑카.


◇일본.

현재 남방불교권에서는 비구니(또는 그 승단)가 소멸했지만, 북방불교권인 한국, 중국, 대만 등지에서는 비구니 계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비구니 승단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승단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계종의 경우 비구 수와 비슷한 7천여명에 달하는 스님들이 수행, 포교, 교화, 복지사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까르마 렉셔모 사라디타 회장 공식 사이트 게재 자료서 밝혀

출가 여성들의 수계 현황에 대해서는 불교국가마다 전통이 달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명 '붓다의 딸' (Sakyadhita)로 불리우는 국제불교여성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의 회장 까르마 렉셔모(Karma Lekshe Tsomo) 스님이 최근 공식 사이트(www.sakyadhita.org)에 게재한 자료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다.

렉셔모 스님에 따르면, 현재 여성에 대한 승가의 수계 형태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비구니(Bhikkhuni)계다. 비구니 계맥은 최근 대만으로부터 티베트로 전해지기 시작했지만 대승불교권의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에서만 전해지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아야 케마(Ayya Khema) 스님의 개척자적인 노력으로 소수의 비구니가 생기기 시작했다.

둘째는 사미니(Sramanerika)계다. 티베트에서는 비구니계맥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사미니계가 여성에 대한 최고의 수계였다.

셋째는 8계녀(戒女), 또는 10계녀다. 남방불교, 즉 상좌부불교 전통에서 비구니계가 존재했다가, 10세기 경 비구니계와 사미니계가 모두 사라진 후 나타난 특수한 여성 출가자들이다. 이들은 8계, 또는 10계를 받고 여성 수행자로서의 삶을 산다. 공식적인 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행자가 아닌 것도 아닌, 이 여성들은 교육, 재정적 지원 및 지위 등에 있어서 그들이 속한 승단의 비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계녀(持戒女, precept holders)들은 상좌부불교 전통의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에 존재한다. 다만 일본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살계 및 10계(독신)를 받는 그녀들은 비구니계와 사미니계를 받지 않았지만, 남방불교의 지계녀들보다는 높은 교단내 지위와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산다. 심지어 선사(Zen priest)가 되기까지 한다.

여성들은 출가하면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후, 보통 18세까지 사미니(沙彌尼)계를 받는다. 18세부터 2년간은 비구니의 계율을 익히는 정신(淨身) 점검기간이라고 해서 식차마나(式叉摩那)라 부른다. 24가지 284건의 행위 규범과 각종 의식 집행법을 배우고 348계(비구는 250계)의 구족계를 받으면 비로소 비구니가 된다.

비구니 사미니 8계녀

한국·중국·대만·베트남에만 존재

구족계 전단계…티베트 최고 계위

공식적 계 받지 않은채 출가자의 삶

비구니계맥 북방불교에서만 면면히…

한국, 7천명 수행·포교 활동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0월 11~23일 오스트리아 그라즈시서

세계평화 칼라차크라 대법회

달라이 라마 주재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오는 10월 11~23일 오스트리아 그라즈(Graz)시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칼라차크라(Kalachakra) 대법회'를 주관할 것이라고, '칼라차크라 그라즈 2002 준비위원회'가 최근 밝혔다.

이번 칼라차크라 대법회는 그라즈시의 초청과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및 오스트리아불교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오스트리아 정부 및 스타이리아 주정부도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대법회는 벌써부터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벌써부터 유럽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유럽에서는 1만5천여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그라즈시로 몰려들 전망이다. 할리우드 스타 리처드 기어도 이번 법회에 참석할 예정. 법회 예정지는 그라즈시 전시센터의 주정부 기념관. 5월 현재 50여개 국에서 6천여명이 이미 법회 참석을 예약했으며, 전세계에서 1만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칼라차크라 대법회란

달라이 라마에 의해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불교 의식의 하나다. '시간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칼라차크라'는 공과 보리심,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깊은 명상속에서 만다라를 그리고 우주적인 에너지를 형상화 하는 의식.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불자들의 정신적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법회는 거의 매년 (주로 인도에서) 열리며, 전세계의 불자 수만명이 참석한다. 오스트리아대법회는 서구에서 주관한 8번째 칼라차크라 법회다.


◇중국 사천성 민강의 절벽에 세워진 낙산대불은 지난해 3월 탈레반 집권당시 파괴된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대불보다 키가 16m 더 크다.

중국 낙산대불 전면 보수작업

8월말까지 3천만불 투입

중국 남부 사천(四川)성에 위치한 세계 최대 높이(71m)의 낙산대불(樂山大佛)이 1천30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보수작업에 들어간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관계당국은 당(唐)시대인 713년에 시작, 90년동안 건립된 이 불상이 지난 세월동안 풍상(風霜)과 많은 관광객 등의 영향으로 두상(頭上)에 새겨진 고수머리 일부가 깨지고 안면의 색깔이 바래 2억5천만 위앤(미화 약 3천만 달러)을 들여 오는 8월말까지 두달동안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벌인다.



일지 스님의 **감취진 불교이야기**

31. 바르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리는 젊음과 질병과 사멸의 길을 향해서 천천히 때로는 급격한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야만 하는 삶의 실상을 숨기거나 잊고 싶어한다. 그러나 불교는 언제나 "당신은 죽음에 관심이 없지만 죽음은 오직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자명한 명제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종교이다.

사람은 어떻게 죽어가는 것일까. 렁렁렁 이윽고 호흡과 심장이 멎고 뇌파가 사라진다. 이어서 고통도 사라진다. 헌 육신에서 빠져나간 생명이 어두운 공간을 떠다닌다. 고독감과 안정. 죽은 자는 자신의 새로운 식별력에 놀란다. 희미한 빛이 비쳐지고 생명은 그 빛을 향해서 날아간다. 경계처럼 느껴지는 선을 넘어서. 그리고 자신의 일생이 영상(映像)이 되어 자신을 갚숙하게 찌른다. 후회와 비통, 혹은 기쁨이 있다. 사자(死者)는 바르도의 상태에서 자신의 까르마에 따라 삶이후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맑고 순수한 까르마를 닦지 못했거나 아직도 지난 삶에 집착하고 있는 바르도는 혼미한 상태에 빠져 위대한 보살들의 지도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보다 저열한 생존이 시작된다. 개로, 돼지로, 그 이하의 것으로 렁렁렁. 이상이 〈티벳 사자(死者)의 서〉, "인간이여, 그대는 너의 뜻과는 달리 죽는구나. 죽음이 무엇인지 배우지도 못하고서. 죽음을 배우지 못한 자는 삶까지도 배울 수 없나니 죽음을 배울지니라. 그러면 그대는 삶까지도 배우게 될 것이니라"라는 〈바르도 퇴될(Bardo-Thol, 中陰聞度密法)〉이 설하는 죽음의 과정이자 삶이후의 삶이 시작되는 과정이다.

바르도(Bardo)란 죽음 이후의 생명이 까르마의 법칙에 의해 다른 육체로 이동해 가기 전 49일 동안 중유(中有, ānatarā-bhavika-skandha)의 상태를 의미한다.

중유란 원래 〈구사론〉의 용어이다. 바르도의 존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구사론〉권9 분별세품의 한 게송을 보기로 한다.

死後 다른육체로 이동前

49일간의 中有상태 의미

49재·우란분재 등에 영향

자아는 없고 오직 여러 은(蘊)만 있을 뿐이건만/ 번뇌의 업과 중유(中有)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태에 드는 것이 타오르는 등불과 같다/ 점차 증가하는 업이 이끄는대로/ 미혹된 업을 지속하며/ 다시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까닭에/ 처음과 끝이 없는 윤회는 계속되네(無我唯諸蘊 煩惱業所爲 由中有相續 入胎如燈焰 如引次第增 相續由惑業 更趣於餘世 故有輪無初).

〈구사론〉의 이 게송은 윤회에 관한 불교의 기본인식을 잘 보여준다. 〈구사론〉과 〈바르도 퇴될〉이 설하는 중유의 존재는 불교의 49재나 우란분재, 혹은 각종의 장의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불가에서 집전되는 49재나 장의의식의 사상적, 문화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즉 망자가 정토왕생에 합당한 까르마를 쌓지 못했다면 산 자들의 기도와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란분재와 49재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불가에서 집전하는 모든 불교의식의 총람(總覽)인 〈석문의범(釋門儀範)〉의 제대영(齊對靈: 망자, 즉 영가를 천도하는 의식) 고혼소(孤魂疏)에서는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에게 고하는 의식이 설해지고 있다. 인로왕보살은 죽은 자를 인도하여 정토로 인도하는 영계(靈界)의 안내자이다.

인로왕보살이라는 명칭은 경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란분재나 49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불교의식에서는 현재까지 나무대성인로왕보살(南無大聖引路王菩薩)이라고 쓴 번(幡)을 도량에 설치하고 있다. 그만큼 인로왕보살은 우리나라 불교신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대중의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임종에 이른 중생을 보호하여 극락정토로 인도한다는 임종내영(臨終來迎)의 사상은 정토불교의 특질이다.

불교의 역사에는 죽음의 전후에 이적을 행한 위대한 수행자들의 모습이 수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입적하는 때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시골 작은 절의 노스님도 가능한 일이다. 입적 직전에 빛을 발하거나 서방정토의 모습을 보이고, 담란(曇鸞)과 같은 정토수행자는 입적하던 날 허공에 나타난 화려한 깃발과 꽃다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향기와 신비스러운 음악이 온 절을 휘덮는 이적을 보여주기도 했다. ▩ 경학회 회주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3일간의 체험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 안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관념과 이상과 꿈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련 방법입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영가들의 장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온갖 꿈의 시달림에서 해방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이 치유되는 힘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여름수련일정

2002. 7. 5 ~ 2002. 8. 29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수련과정

本 性 (3 일)	참마음, 無心, 無分別智 업장소멸, 직시함
無碍法界 (3 일)	不空, 無分別後得智 영적문제해결(천도 薦度) 마음의 치유와 휴식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거듭남의 비결
無上覺	安息, 삶의 기쁨

033) 435-3166, 435-6166
FAX 033) 435-8166

여름마음수련 心田대광사

2002년도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선무도)

정기수련과정(1개월) 안내

1. 과정소개
개인 및 단체가 원주 금강승선관무 수련원에서 1개월간의 입산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신행 단체, 직장단체, 각종 사회단체, 체육선수단, 외국인 참가 단체등 각 특성에 따라 지도자와 사전협의 하여 일정표를 짜게 됩니다.

2. 참가회비
■개인 : 1개월 50만원 ■단체(30인이상 기준) 회비조정

3. 기준일과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불교기초교리
5시	오체유법 및 참선	15시	선·관·무 수련
6시 30분	아침공양(발우)	17시 30분	저녁예불
7시 30분	운력	18시	저녁공양(발우)
9시	선·관·무 수련	19시	예습 및 복습, 독서
11시	참선	22시	취침
12시	점심공양(발우)		

4. 개 강 일 ■2002년 7월 25일 년중무휴

5. 참고사항
가. 매주 금요일 회주스님 면담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 입과 후 개인외출, 술 담배 등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 규칙을 어길 경우 일정제재나 퇴소조치됩니다.
라. 수련회 참가자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계 특별수련회 안내

1. 일정 및 내용

	기간(3박4일)	내 용
1차	7월 25일 (목요일) ~ 7월28일 (일요일)	禪·觀·武 수련, 묵언(참선), 발우공양, 사찰예절, 전통문화강습, 예불, 108배, 운력
2차	7월 30일 (화요일) ~ 8월 2일 (금요일)	
3차	8월 6일 (화요일) ~ 8월 9일 (금요일)	
4차	8월 13일 (화요일) ~ 8월16일 (금요일)	
5차	8월 20일 (화요일) ~ 8월23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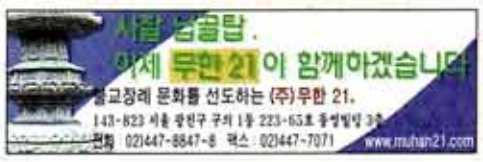
※ 초·중·고생 수련회는 다소 다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 준 비 물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운동화, 도복(별도)
3. 장 소 ■강원도 원주 금강승선관무 수련원
4. 신청기간 : 2002년 6월 ~ 각 차수 2주전까지
5. 수련회비 : 6만원(1인)
6. 입 금 처 : 국민은행 812-24-0442-619 예금주 - 이동규

◈중앙수련원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구)용암초등학교 우 220-852
◈서울수련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983-1 거양 B/D 4층 우 137-849

접수신청 ■전화 : 033)764-6362, 011)722-4779 02)803-4779, 02)598-6771
■팩스 : 02)891-0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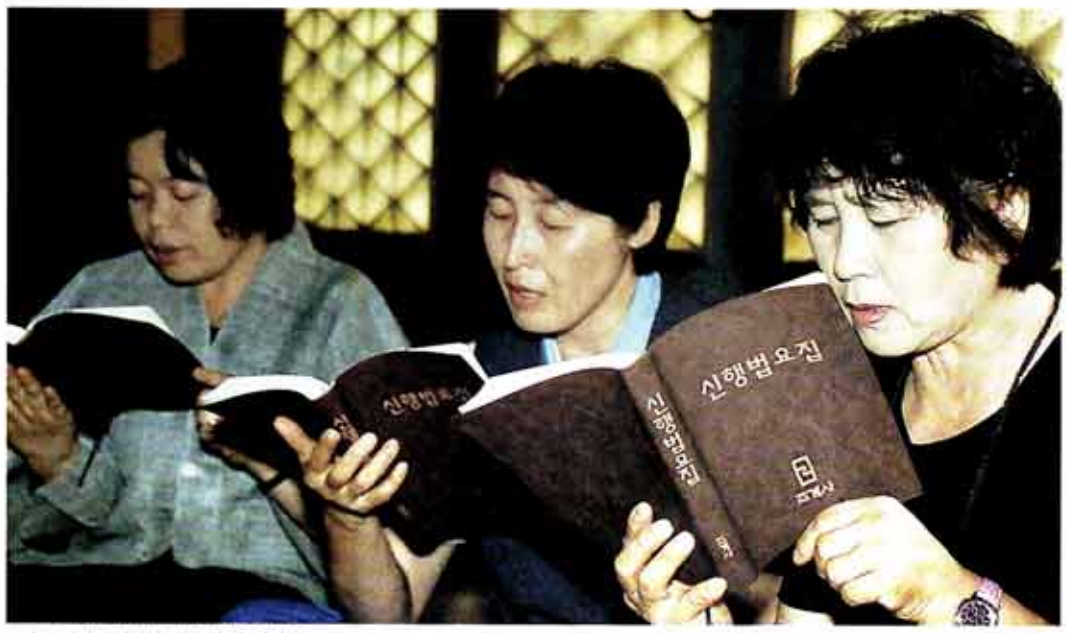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 총본회





"새 표정으로 대중에 더 가까이"

종단·사찰·신행단체 심벌마크 도입 활발



◇조계사는 기와와 귀자 모양을 이미지화 한 심벌마크를 문서와 봉투, 사보와 현수막, 신행법요집 등 곳곳에 활용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연꽃·귀자·법륜·코끼리 등 다양

진각종 상징 심벌로 이미지 쇄신

문서·신분증·포스터 등 다방면 활용

◇고려대장경 연구소

◇조계사

◇경주 장애인복지관

◇맑고 향기롭게

불교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진각종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안양지역회 유경순 회장(앞)이 신입회원 차량에 법륜 심벌마크를 부착해 주고 있다.



조계종 '종단 상징' 아직 없어

우리의 언어와 생활, 역사와 문화 속에는 불교의 이미지가 숨쉬고 있다.

'불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연꽃에서부터, 귀자, 법륜, 코끼리, 사자, 구름, 땅, 바람 등 자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불교 이미지들은 너무나 많다.

최근 종단을 비롯해 개별 사찰, 신행단체, 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미지를 도입해 자신들을 대표하는 상징(symbol)으로 활용하는 예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교계의 움직임은 그림이나 글자형태로 표현되는 기업들의 이미지 통합(CI:corporate identity)작업과 비교할 수 있다. 기업들이 무한 경쟁사회에서 해당 기업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브랜드 마케팅하여 이윤 창출로 연결시키고 있다면, 교계 단체들은 불교 가르침을 응축한 대표 이미지로 포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벌을 도입한 것이다.

불교 대표 이미지를 통해 가장 널리 일반에 알려진 불교 단체는 '맑고향기롭게'이다. 연꽃 문양을 응용,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발원하는 의미를 담은 심벌로 불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인식의 폭을 넓혀 큰 호응을 얻었다.

90년대 중반이후 교계 단체를 중심으로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한불교진흥원, 고려대장경연구소 등이 심벌 마크를 제작해 사용해 오고 있다. 또 조계사가 심벌 마크와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진각종이 2000년 4월 불교종단 가운데서는 최초로 심벌 마크와 로고 등을 정해 종무행정과 포교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대사회선 '이미지=경쟁력'

특히 최근에는 직장 직능별 신행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신들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표이미지를 제작 활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가 법륜도양의 심벌 마크를 차량에 부착하고 달리는 포교사의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한국조폐공사 경산 조폐창 불자회는 법륜에 염전 모양을 이미지화한 심벌을 사용하고 있다. 또 교정인불자회도 법륜 속 무궁화 위에 입을 맞추고 있는 비둘기 두 마리를 그려 넣은 심벌을, 염불만일회도 대표 이미지를 이용해 홈페이지까지 구축해 놓았다. 또 최근에는 복지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주장애인복지관이 로고와 심벌을 제작하기도 하는 등 그 활용 범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심벌들은 문서, 현수막, 신분증, 차량, 간판, 신도카드, 배지, 직원명찰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 사찰과 단체 회원의 소속감 일체감을 강화하고, 타 종단 및 종교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불교의 선진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교 대표상징물 개발 시급

그러나 지금까지 선보인 대부분의 심벌들이 소재적인 측면에서 귀자, 연꽃, 법륜, 삼보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인지도 면에서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선도해 왔던 불교의 위상에 걸맞는 상징물들의 현대적 응용과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조차 종단의 상징을 아직까지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98년 종단 이미지 표준화 사업을 발표했지만, 잇따른 종단사태 등으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던 캐릭터 아기부처님과 동자승이 호평을 받으며 제등행렬 등의 행사에서 활용되어 왔던 것과 비교할 때, 이미지 표준화 사업이 뒤쳐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이미지 통일작업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이나 국가, 일반 단체에서 기울이는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상품의 품질보다는 호감이 가는 상표로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경우를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개발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지가 곧 경쟁력이다. 새로운 표정으로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불교의 전통적 이미지들을 상징화하는 작업이야 말로 오늘의 불교를 내일로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라 할 것이다.

이은자 기자 eiee@buddhapia.com

"시각포교는 새로운 도전 미래지향 이미지 담아야"

고현 조선대 디자인대학원장



대표 이미지를 통해 불교를 보여주는 시각포교는, 새로운 도전이다.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 없이는 이러한 도전은 이루어 질 수 없다. 불교계의 이미지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각포교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스님들과 불자들이 디자인 작업의 어려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주상보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절집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지 않고, 전통문화에만 집착하는 것도 현대예술의 한 분야인 시각 디자인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양적·질적면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교의 대표이미지를 생산하는 일 또한 무궁무진할 수 밖에 없다. 연꽃, 구름, 십이지신상이 하나의 모양이지만, 디자인의 측면에서 새롭게 바라보면 광만사천의 부처님 법문만큼이나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⑪ 안락행품 제14

상투속 구슬의 비유

〈법화경〉은 4안락행을 설한 다음 '계중명주(髻中明珠)의 비유'를 통해 〈법화경〉이 모든 부처님 여래의 비밀장(秘密藏)으로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경전이라는 점을 말한다.

'계중명주' 즉 '상투 속의 밝은 구슬'에 관한 비유는 아래와 같다.

"만주슈리(文殊)여, 비유하면 강력한 전륜성왕이 그 위력으로 여러 나라를 평정하려 하지만 여러 나라들은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왕이 직접 토벌에 참가한다. 왕은 전공(戰功)을 세운 장병에게 각각 그 공로에 일맞게 여러 가지의 상을 내린다. 그러나 전륜성왕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상투 속에 있는 훌륭한 보배만은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보배구슬은 임금만이 상투 속에 비밀히 감추고(秘藏) 있는 것, 즉 왕위(王位)를 상징하므로 만일 그것을 주면 다른 왕들이 "왜 왕위를 남에게 줄까?" 하며 놀라고 괴이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만주슈리여, 여래의 경우도 이와 같다. 여래는 선정(禪定)과 지혜의 힘으로 진리의 국토를 얻은 전세계(全世界)의 왕이다. 그러나 많은 마왕은 진리의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므로 진리의 왕은 부처인 수행자의 여러 장군을 마군(魔軍)과 싸우게 한다. 이 싸움에서 전과(戰果)를 올린 수행자에게는 다시 많은 가르침을 설하여 그들을 기쁘게 한다. 또 여래는 해탈과 번뇌에 물들지 않는 소질의 힘이라는 진리의 재물(法財)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 포상을 받은 그들은 번뇌를 멸하여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기뻐하지만 그래도 여래는 이 〈법화경〉을 설하지 않는다. 만주슈리여, 전륜왕이 자기의 상투 속에 감추어 두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밝은 구슬을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여래도 또한 마음 속의 악마인 탐냄 · 성냄 · 어리석음의 세 가지의 독(三毒)을 멸한 위대한 수행자에게도 일찍이 설하지 않았던 〈법화경〉을 지금 여기서 설하려 한다.

만주슈리여, 왜냐하면 이 〈법화경〉은 일체 중생을 훌륭하게 여래의 지혜에 도달하게 하지만 그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는 도리어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래는 지금 이 경을 여기서 설한다. 만주슈리여, 〈법화경〉은 여래의 가장 높은 설법이며 수많은 설법 가운데서 가장 깊은 비밀의 가르침이므로 가장 최후에 그대들을 위해 자세히 설하려 한다." 이 '계중명주의 비유'에 등장하는 악마란 불도 수행을 방해하는 마음속의 번뇌를 표상한 것으로서 이 악마를 극복하는 것을 '항마(降魔)'라고 한다.

석존의 전기(傳記)에 의하면 석존께서 깨달음을 완성하려고 보리수 아래 앉아 있을 때, 갖가지의 악마가 나타나 협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며 석존의 깨달음을 방해하였지만 석존께서는 그 습격을 참고 견디며 결국에는 악마를 굴복시키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때의 석존께서 취하신 좌선(坐禪)의 자세는 가부좌(跏趺坐)인데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무릎 위에 두었다. 이를 항마좌(降魔坐)라 하고 왼손을 무릎 위에 두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두번째 손가락으로 대지(大地)를 가리키는 모습을 하였더니 악마가 물러갔다고 하여 이 두 손의 모양을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라 이름한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악마가 밖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 속에는 부처와 범부가 함께 살고 있으니 이를 선가(禪家)에서는 '불범동거(佛凡同居)'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와 범부는 모두 인격체가 아니며 부처는 불성(佛性)을, 범부는 인간성(人間性)을 비유한 말이다. 따라서 불성과 인간성은 원래 이질적이거나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동일성의 것이니 이것이 대승불교의 사상이다. 윤리의 세계에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선악과 정사(正邪)의 현상을 상대적으로 보고 선과 악, 정(正)과 사(邪)를 서로 싸우게 하여 선과 정이 악과 사에 이기도록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선과 악, 정과 사를 서로 적대적(敵對的)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동거(同居)하는 것으로 여겨 나란히 앉게 하여 선과 악, 정과 사를 하나의 몸(一體)으로 지향한다. 이리하여 〈기신론(起信論)〉에서는 "진리(法)는 곧 중생심인데 그 중생심 속에 진여심(眞如心)과 염심(染心)이 있다"고 하며 의상대사(義湘大師)의 〈법성게(法性偈)〉에서도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이라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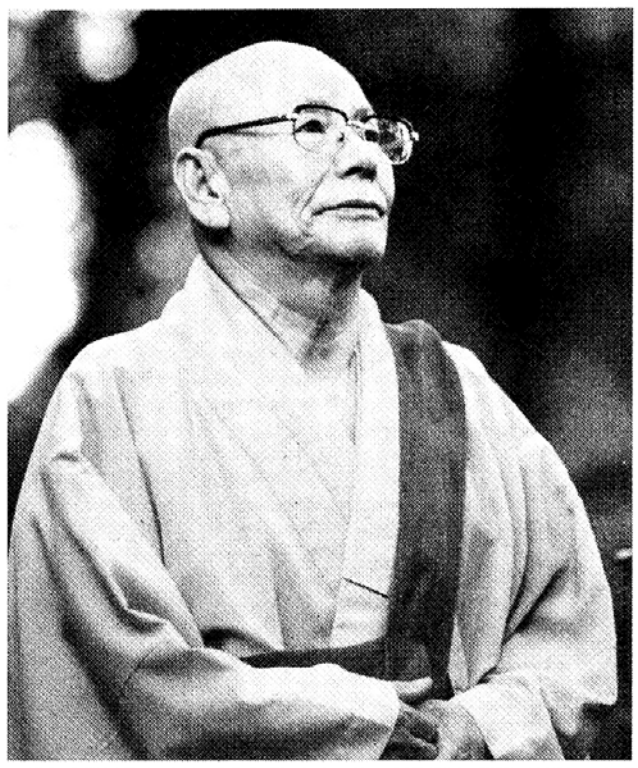
그러므로 선악, 정사를 한몸으로 하여 그 위치를 향상시키려면 양자를 싸움에 의하지 않고 정과 선이 각각 사와 악을 조어(調御), 즉 컨트롤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실천하는 것이 불교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무설정사 조실

비밀장…가장 얻기 힘든 경전의미

악마는 수행 방해 마음속 번뇌 표상

"마음속 부처님께 비



◇사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법문을 통해 전하며 전법도생의 길을 걷고있는 수도스님.

가까이서

수도스

수도스님은?

1925년 양산 상북면에서 태어난 도스님은 어릴적 유달리 병치레가 았다. 가족들이 먹는 육식은 아예 입도 못댔고 절에 가면 명을 이을 수다는 말에 부친이 13살에 통도사로 가를 시켰다. 집이 통도사에서 가까던 스님은 어린 마음에 부친을 만나위해 집을 찾아가면 부친이 회초리

'업경대'·'반야심경강

꾸짖으며 절로 다시 돌려보냈다. 자을 살리고 싶은 부친의 정성때문이는지 절에 와서 스님은 팔순을 바라는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1938년 살의 나이로 통도사에 입산하며 불을 맺은 후 1962년 이후부터 계속 주사에 주석하고 있다.

화초 키우기를 좋아하는 수도스이 가꿔놓은 도량은 소복하게 꽃을

부처님은 이

중생들을 비

끊임없이 이

그 빛 가리

숲 속을 거닐면서 숲의 기운을 쐬는 일은 상상만 해도 마음 한켠에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느낌이다. 우거진 숲이 방출하는 피톤치드의 살균 효과와 녹색으로 인한 정신적 해방감을 맛보게 한다는 점에서 산림욕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숲이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무언가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광 해변도로를 달려 도착한 용주사에서 소리없는 미소로 기자를 맞이한 수도 스님을 만나뵌 후의 느낌이 꼭 그랬다. 수도 스님이 내뿜는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울창한 숲속을 오래도록 거닐때 만끽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개운함 속에서 오래도록 쉬고 돌아왔다.

요사채 앞에 길게 깔린 평상에 나와 기자를 맞이한 스님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지독한 감기가 오래 머물다 갔다고 하신다. "집이 헌집이니 여기 고치고 나면 저기 탈이 나고 또 저기 고쳐 놓으면 어느새 다른 곳이 고장이 나고 그래. 옷을 오래 입고 있으니 헌옷이 다 되었어.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는데 멋진 옷이 있어야 갈아 입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하하하" 왠만큼 괴롭혔는지 저절로 물러났다는 감기를 마치 스님을 방문했다 간 손님 얘기하듯 들려주신다. 몸이 오래되었으니 병이 들고 고통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스님이지만 그래도 신도들 앞에서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 자꾸 아프다고 하면 부처님께 누가 된다고 여기는 까닭이다.

"오늘도 초하루 법회가 있었는데 내 몸 아픈 것은 잊어버리고 너무 말을 많이 했나봐. 한달에 두 번 열리는 법회니 하나라도 더 일러주고 싶어서 그랬지. 오늘은 남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법문했어요. 남의 마음이란 탐,진,치 삼독에 물든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란 뭐겠어요? 탐,진,치 삼독에 의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 마음이 아닌 본래 고요한 근본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번뇌망상 속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는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부처님만 나무라거든요. 그런 사람은 마치 길을 걸을때, 자신이 한눈을 팔다가 길에 솟은 돌부리를 발로 차고서는 걸음을 똑바로 걷지 못한 자신은 반성하지 않고 돌부리만 탓하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은 일월처럼 언제나 차별없이 중생을 비추고 있건만 중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망상 때문에 그 빛을 가리고서는 부처님만 탓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미혹의 깊은 잠에서 어서 깨어나서 세상을 똑바로 보아야 할텐데…"

번뇌망상은 간절함 없는탓

스님은 이어 번뇌망상의 원인이 간절함의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번뇌망상이 끼여들 틈이 없어요.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에도 기도할 때는 오로지 자신의 본마음으로 기도할 뿐 집안의 우환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집안 일에 마음을 뺏기는 시간이 더 많으니 본래의 텅빈 마음에 계합이 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불자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스님의 신도교육은 철저하다. 처음 이곳 바닷가에 용주사를 창건하면서는 고생도 무척 많았다.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마을 사람들의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마음이었다. 기복적인 마을사람들의 종교관을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일 자체가 커다란 장벽이 되었던 것이다.

"1962년, 이곳에 처음 왔는데 그해에는 전국적으로 보리흉년이 들었어요. 보리를 베어놓고 타작도 하기 전에 계속 비가 와서 보리에 모두 싹이 나 버렸어요. 그러니 먹을 수가 없게 되어 모든 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도 많이 굶었어요. 지금은 굶는다는 게 실감이 안나겠지만 그때는 다들 고생하던 시절이니까요.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펴겠다는 서원은 놓치지 않고 마을 포교를 시작했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스님, 배를 가지고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데 고사 좀 지내주십시오' 하고 찾아와요. 바닷가의 특성상 고사도 지내주고 점도 봐주는 무속신앙이 널리 성행하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였겠죠.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왜 징을 치고 굿을 하면서 정신을 빼앗기느냐고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절에 나오게 하면서 두가지 다짐을 받았어요. 절에 다니면서 한번이라도 점을 보러가면 절에 못 오게 하겠다고, 점을 보러 간 사람은 금덩어리를 가져와도 절에는 출입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반야심경〉을 3개월만에 못 외우면 절에 못 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보살들이 많은 곳이었으니 내가 각해도 신도들 고생 좀 시켰죠. 허허허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절에 너서는 안 된다는 스님의 지도 덕분에 용주사 신도들은 〈반야심경〉과 〈천경〉을 못 외우는 사람이 없다. 또한 의 뜻을 새기며 부처님 법 제대로 공하는 불자들이 많다. 멀리 부산에서 광까지 찾아오는 신도들이 많은 이유 여기에 있다. 또한 스님은 경을 외우

2002년 제16회 우리는 선우 여름 캠프

걸어봐, 찾아봐, 느껴봐, 또다른 세상!

세계적인 불교유적지 경주, 단순히 사진배경으로만 알고 있는 당신에게 사진 배경 아닌, 인생배경으로의 경주여행을 소개합니다.
여행의 배움과 캠프의 우정을 함께 드립니다.

경주가 다시보인다!
너와함께라면 ... '우리는선우'와 함께라면 ...
2002년 여름 새로운 배움과 우정을 갈망하는 당신!
불타는 젊음 초대합니다.

■ 날짜별 프로그램 :
2일 - 입재식 및 전체 불교레크레이션을 통한 하나되기
3일 - 무리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주 문화 체험하기
4일 - 무리별 프로그램 후, 바닷가에 모여 체험 공유하기
5일 - 전체답사 및 회향식을 통한 캠프 마무리
■ 기 간 : 2002년 8월 2일 - 8월 5일 (3박 4일)
■ 장 소 : 경상북도 경주
■ 예비소집 : 2002년 7월27일 오후 3시 30분 선우 법당
■ 참가대상 : 초(5,6학년) · 중 · 고등학생
■ 동 참 금 : 8만 5천원
※ 참가비는 무통장 입금하시고, 사무국으로 확인 전화주세요.
우리은행(구)한빛은행 170-019297-13-304 (예금주 : 우리는선우)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갈아입을 옷, 개인상비약
■ 접수기간 : 2002년 6월 17일 - 7월 26일
※ 자세한 사항은 우리는 선우 사무국 tel : 02)2278-8672~3
fax : 02)2278-8675
홈페이지: http://www.sunwoo.or.kr
E-mail: sunwoo@sunwoo.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행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참선은 인생관을 바로 깨닫게 하는 최상승 법이요 철학적인 법이요 과학적인 법이다.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에 현혹이 되어 날뛰고 있지마는 물질 문명으로서는 거룩한 인생을 깨달을 수 없다는 길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 한번 받는 인연은 허공에서 겨자씨가 떨어져서 바늘 끝에 꽂히기 보다 어려운 인연인데 人生이 자기 인생을 느끼지 못하면 어찌 自信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21세기의 宇宙의 主人公은 인생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宇宙의 조물주는 인생이라야 됩니다. 地球村의 주인공인 인생을 창조하는 大道는 오직 參禪입니다. 대중은 어리석은 迷惑에서 벗어나서 生死에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하여 大發心하여 금번 보림사 보림선원 칠일 용맹정진에 동참하여 칠일정진으로 見性悟道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용맹정진 기간중에는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최상승 선법문을 교재로 하고 법납 60년 수행하고 제방 선지식과 탁마를 하신 보림사 묵산스님께서 직접 지도하십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2년 7월 31일(수) 오후 8시부터
2002년 8월 6일(화)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 02)914-6187
■ 회 비 : 일반 8만원
■ 연락처 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3,51,16,710번
정릉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 앞 하차
(돈암역에서 약 20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합장

줘가며 생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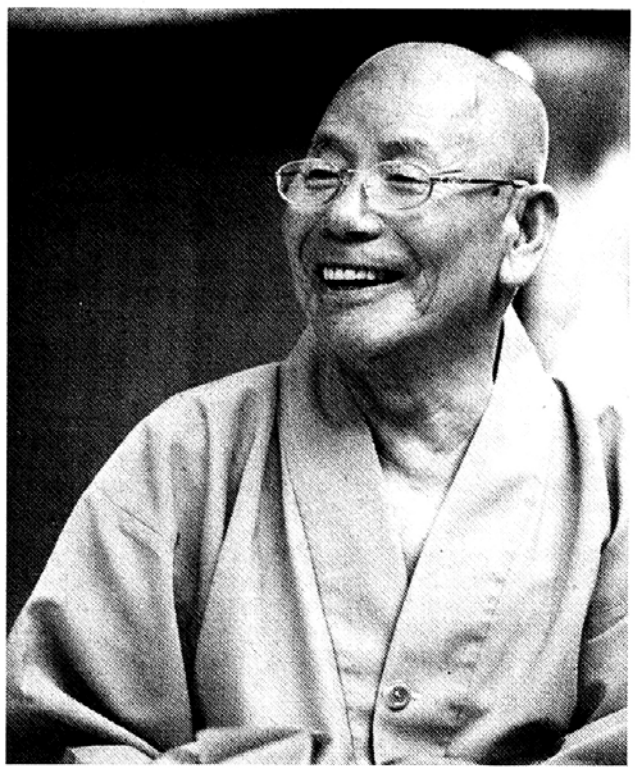
큰스님

(양산 용주사 주석)

수국과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에 가
련히 놓인 화분의 꽃들이 눈길을 끈
또한 용주사 주련, 현판 등이 모두
님의 솜씨다. 통도사에서 구하스님
배운 붓글씨 솜씨를 발휘한 것이다.
3년 전부터 절 살림을 신도들에게
긴 이후 "독경하고 참선하는 일외에
다른 일이 없다"는 스님이지만 어
서든 법문을 청하면 마다하지 않는
〈업경대〉 〈반야심경강설〉 등의 저

도소 법보시…포교힘써

를 교도소에 법보시하며 교도소나
소년 보호시설 등의 포교에 각별한
심을 기울이고 있다. 용주사를 둘러
수령 칠십이 넘은 소나무와 벗이 되
절에 살고 있는 두꺼비에게는 밥까
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스님은 사
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법문을
해 전하며 전법도생의 길을 묵묵히
고 있는 것이다.



◇수도스님은 자신의 책을 법보시 하는 등 교도소나 청소년 보호시설 등의 포교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일상생활이 佛法실천의 場

별없이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회때마다 경전의 뜻을 법문에 풀어서 들려주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법회 때마다 스님이 들려주는 예화가 곁들여진 경전풀이를 통해 있는데 들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생활의 상때문에 를 경험했다. 신도들이 못알아 듣는 님 탓만… 은 아무리 그 내용이 깊어도 아무 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님은 한마디 해도 신도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 는 것을 불제자의 의무라고 여기고 . 전법도생의 길, 그것이 스님이 생 는 수행자의 길이자 의무이다. 불교를 믿되 바른 불자가 드 세요. 말은 불자라고 하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이들은 드물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자상하게 일러 놓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걸음을 걸을 때도 바로 하라 했어요. 물건을 쥘 때도 가만히 쥐고 가만히 놓을 것이며 음식을 먹고 마셔도 조용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피고 고요히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사람들 생활을 가만히 보면 밥 먹는 것 하나만 봐도 조금만 맛있는 것을 보면 탐심을 일으키며 '후루룩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어요. 지금 자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만 살펴봐도 내가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크고 거창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전부 부처님법이요 실천의 장이라는 말입니다."

생활 실천을 강조하시는 스님이지만 그렇다고 법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엄하게 꾸짖는다. 언제나 자상하고 온화한 스님도 법회에 오다가 말다가 하는 신도를 보면 따끔하게 충고한다. 법회에 두세번 빠진 보살이 저만치 걸어오면 스님은 더욱 반갑게 그 보살에게 다가가 "아이구, 보살님! 십년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하고 인사를 건넨다. 스님의 꾸지람은 이와 같다. 호통을 치는 법도 없고 싫은 소리를 하지도 않는다. 스님의 웃음 섞인 말씀은 오히려 마음 깊은 곳을 울려주는 경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퍼런 칼을 들고 가로막는다 해도 법회에 가겠다는 간절한 신심과 열정으로 공부하라고 늘 강조하는 스님. 그런 신심이 있다면 칼을 들고 법회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장애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스님은 용주사를 창건해 지금껏 신도들을 이끌어온 삶이 열정과 신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회고했다. "도둑질 빼고는 안한 것이 없을 정도"라는 스님의 우스개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실제로 스님은 절 불사 틈틈히 텃밭에 야채를 길러 시장에 내다파는 일은 물론 탁발도 마다하지 않았다. 절 불사에만 전념했다면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산 동래에 있었던 고아원인 새들원의 원생 5명과 결연해 3년 동안 보살피게 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절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의 원조가 끊겼다고 우리의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잖아요. 우리마저 외면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남자 아이 4명, 여자 아이 1명을 후원하겠다고 서명을 했지. 나중에 알고 보니 단일 사찰로서는 부산에서 내가 가장 많은 아이들을 후원했어요. 범어사가 2명을 후원했으니 내가 얼마나 힘에 버거운 일을 벌인 건지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먹으면 안되잖아요.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결심을 했죠. 그러고 나니 당장 매월 들어가는 후원금도 마련해야지, 입학하면 입학선물이라도 해줘야지, 또 겨울 되면 옷이라도 사 줘야지, 제대로 부모노릇 하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그러나 찾아가면 멀리서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 내 다리를 부여 안으며 아버지하고 부르며 매달리는데 참 기가 차고, 힘들다고 그만 둘 수가 없대요."

이렇게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스님은 절 텃밭에서 야채를 키우고 다듬어 등짐을 지고 동래시장까지 꼬박 하루를 걸어 야채를 팔러 나가기도 했다. 부지런히 걸어도 꼬박 하룻길이었던 동래시장까지 걸어다녔던 스님의 걸음걸음이 아이들을 위한 스님의 기도였던 셈이다. 지금도 결연 당시 받았던 아이들의 서류와 빛 바랜 흑백사진을 간직하고 있다. 사진을 보여주시며 "특별히 나한테는 예쁜 자식들만 인연이 되었다"며 부모가 자식 자랑하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스님은 지금도 종종 서류와 사진을 들어다 보며 이제 나이 서른을 훌쩍 넘겼을 그 당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잘 살아가길 기도한다.

이어 스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버티게 한 힘은 결국 부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한마음뿐이었다"**며 빙긋 웃었다. "행자시절에 힘들게 지내면서도 부처님께서 나를 야단하시지나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잘 단속하며 지내왔던 게 버릇이 된 셈이지요. 법당 청소할때도 조그마한 먼지만 있어도 아이구, 부처님이 나를 야단하시겠구나 하고 스스로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 나를 살피게 되더라구. 그러니 아이들 보살핀 것도 부처님이 나를 야단치지 않도록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고, 내 일생의 모든 행동은 모두 부처님께 잘 보이려고 한 것이지. 부처님의 마음으로 나를 단속하니 부처님을 닮아가게 되더군요. 여러 불자님들도 스스로의 마음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스스의 마음과 행을 마음안에 계시는 부처님께 비추어가면서 생활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정운스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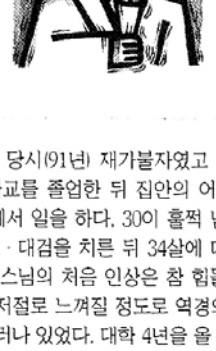
스 님 이 야 기

설송스님

황금과 백옥만이 귀한 줄을 알지 마소 / 가사 옷 얻어입기 무엇보다 어려워라 / 이 몸을 알고 보면 서천축 스님인데 / 무엇을 반연하여 제왕가(帝王家)에 떨어졌나 / 십팔년 지나간 일 자유라곤 없었도다 / 내 이제 손을 털고 산속으로 돌아가네

위 시는 순치황제 출가시의 일부다. 중국 명나라 말, 여진족의 누루하치가 청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청태조라 칭했다. 삼대 왕 세조는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전역을 통일했다. 이 세조(호:순치)가 위의 출가시 주인공인데 재위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터에 살면서도 선(禪)에 관심이 깊었다. 결국 진리를 구하고자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였다. 나는 이 출가시를 불교대학 강의 때마다 수업시간 전 학생들과 함께 독송할 정도로 좋아한다. 이 시를 독송할 때마다 오버랩되는 스님이 있다.

비구 설송스님이다. 스님은 동국대에서는 1



년 선배로 당시(91년) 재가불자였고 만학도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집안의 어려움으로 생활전선에서 일을 하다, 30이 훌쩍 넘어 검정고시, 고검 · 대검을 치른 뒤 34살에 대학에 입학하였다. 스님의 처음 인상은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가 저절로 느껴질 정도로 역경의 세월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대학 4년을 올 장학금으로 졸업하는 동시에 출가를 했다. 출가후 은사 스님의 배려로 대학원에 적을 두었는데, 학문에 대한 열정이 보통 아니었다. 스님은 어학실력을 갖춘 뒤 일본 용곡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년간 유학도 다녀왔다.

스님의 학문에 대한 지견을 알고 있던 터라, 언젠가 "스님은 敎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스님은 "처음 출가는 敎로부터 발심하였으나 교는 이제 접어두고, 내 일생일대의 목숨을 걸어놓고 참선으로 재출가할 겁니다" 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승에게 문제점은 교에 대한 집착없이 수행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교에 천착한다는 점이다. 스님의 확고한 참선정진에 대한 결심을 듣고도 설송스님이 '敎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고정된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스님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남방의 위빠사나 선을 하겠다면서 석사논문도 '사마타-위빠사나(止觀)에 대한 연구'를 썼다. 그러던 스님이 마음이 변한 모양이었다. "한국스님으로서 현 한국선방에서 지향하는 간화선 수행을 해보지 않고 남방불교 수행을 한다면 뿌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 한국에서 몇 년 안거를 성만하고 남방선을 해야겠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몇 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안거에 들어갔다. 해제 때도 산철결제에 들어가 정진하는가 하면, 어느 산철에는 기도정진하기도 하였다. 안거 3철정도를 마쳤을 무렵 인사동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너무도 행복해 보였다. 환희심으로 가득한 얼굴이었다.

스님은 "선방에서 정진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소? 조금만 더 일찍 불법을 만났더라면 좋았을 걸… 어쨌든 남들보다 늦게 출가했으니 배를 들여 수행해야 겠지요. 내가 무슨 복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지, 부처님 은덕이 참으로 지중합니다." 스님의 이 말을 듣고 참으로 내 자신이 왜소함을 실감하였다. 나는 조금 이른 나이에 출가한 탓인지 초발심의 정진이 희석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늦깎이' 지만 쉼없이 수행정진

현재 미얀마서 위빠사나 전념

불가에서 늦은 나이에 출가하는 것을 '늦깎이'라 한다. 늦깎이란 말은 세속에서 살아온 습에 너무 푹 젖어 쉽게 중물이 들지않는 경우를 지칭하지만, 늦게 출가해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도 많다. 구산스님, 효봉스님이 대표적인 경우다. 효봉스님은 38세 늦은 나이에 출가해 쉼없이 좌복에 앉아 정진했는데 어찌나 열심히 했는지 엉덩이가 짓물러 진물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참선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설송스님은 출가도 늦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념으로 정진하는 올곧은 수행자로서 저 앞서서 나아가고 있었다.

스님은 지금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승가의 살림살이가 비구스님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종단 현실이고, 출가자나 재가자 모두 차별성을 인식하지만 균형을 찾기란 쉽지 않다. 나 또한 세속의 바람때문인지 페미니즘 사상이 강한 편이다. 출가년수가 높아질수록 '법랍'이라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출가승이라는 상(相)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출가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 일대사 인연(一大事 因緣)을 해결하겠다고 사기충천했던 출가했을 당시를 되새기는 떠올려 본다.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CHAMP 인간 승리자들의 모임 챔프그룹

참향 참나무 류창열 목초액 木酢



心性矯正研究家
방송인, 사회사업가, 환경보존연구가

방송출연
•인천방송(iTV) "드전건강백세" 36회방영
•e채널 (정보통신) 케이블TV
"전자상거래와 네트웍 마케팅과의 만남"
•ch26 케이블TV "건강특집" 44회방영
•MBN 매경TV ch20
"OK 한방스케쉴-사람 살리는 목초액"
방송출연중
•MBN 매경TV ch20 "류창열의 건강특강"
•이벤트방송 "류창열의 삶 맛 나는 세상"
•저서: "심뵤를 고쳐야 病이 낫지" 外다수
저자 건강특강 - 청강무료
•월~목:14시~16시(13시 45분까지 입장)

柳 昌 烈

매스컴이 격찬한 목초액의 신비!
• KBS다큐멘터리(1997년 11월) ····· 목초액 효능, 효과 및 연구과정
• MBC, SBS, CJB뉴스(1999년 5월) ····· 식용목초액 항암, 당뇨병 치료 효과
• MBN매경TV ch20(2002년 2월 11/12일 2회방영) ····· 사람 살리는 목초액
• KBS다큐멘터리(2000년 6월) ····· 참나무도 자원이다

무점포 SOHO 지사장 모집안내
전업자, 퇴직자, 남여노소 구분없이 지역사회 인맥, 신용, 덕망있는 자로 소자본으로 누구든 환경을 살리면서 손쉽게 평생사업을 할 수 있음.
지사 : •제주(064)726-3213 •정읍(063)532-8210
•전주(063)285-7258, (063)244-8901

CHAMP 한국 농·중·소(주) CGN Co., Ltd | www.champgroup.co.kr (02)516-8939 (080)595-2929

사단법인 코베트 : 코리아 · 베트남혼혈아 : 자립, 양자녀, 장학, 취업

특별할인행사(선착순 99명) : 목초식첨용1ℓ ~~₩495,000~~ ⇨ ₩297,000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목초액의 신비!!



류창열 참나무목초액은 참나무를 열분해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참나무의 200여가지의 성분이 연기로 변할때 급냉하여 액화시켜 숙성후 산업용, 임업용, 농업용, 축산업, 생활용으로 정제하고, 식첨용은 고도의 첨단 정밀, 정제기술에 의해 투명하게 만든다. 특히 식첨용은 오래 두어도 색깔이 투명성을 유지하여야만 고순도 및 고기능, 완전 무해한 식첨용으로서 강력보습효과, 강력천연방부제, 강력탈취, 강력해독, 강력살균 및 멸균, 강력항산화력등에 의해 광물, 미생물, 식물, 동물을 自然으로 회생시키고 세포를 공명, 공진시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인체의 항상성기능을 강화시키므로 인체 스스로 젊음과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참나무 목초액을 이용한 생산제품
•식첨용 :1ℓ, 150㎖, 40㎖ •생활용:1ℓ, 150㎖, 40㎖
목초 고기능비누, 발시트, 고기능스킨, 고기능로션, 고기능크림, 고기능바디샴푸, 고기능바디크렌져, 고기능발크림, 고기능치약, 수질개선 주방세제(주방식기, 세탁용)
9월 출시예정 목초 자매품
목초겸, 사탕, 우리밀과자류, 우리밀빵류, 라면, 우동, 냉면, 칼국수, 김치, 된장, 간장, 젓갈

스님들 어떻게 여름 날까?



◇스님들은 참선과 다도, 산행, 계곡 산책 등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더위를 잊는다.

초복(初伏) · 중복(中伏) · 말복(末伏)이 나란히 이어지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30여일은 일년 중 가장 더운 때다. 옛 사람들은 세 번만 잘 엎드리면(三伏) 여름을 난다고 했다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 산과 바다, 계곡을 찾는 등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준비한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산사에서 스님들은 어떻게 여름을 날까?

공교롭게도 선방의 여름 안거가 바로 이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다. 화두와 씨름하는 스님들에게 '더위'라는 또 하나의 화두가 주어지는 것이다.

선풍기 · 에어컨도 필요없는 '화두삼매'

옛 선사들 가르침 음미하며 차 한잔 더위 잊어

이열치열 산행으로 굳어진 근육 풀기

하지만 깨달음을 향한 불퇴전의 길에 들어선 수행자 앞에서 더위는 무기력 할 수밖에 없다. 스님들은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안으로 돌리고 돌리는 참선 수행으로 청량함을 얻는다. 자연에 순응하며 본래의 마음자리 찾아가는 참선 수행이야말로 불제자들에게 가장 탁월한 피서법이 아닐까? 여름휴가와 방학이 한창인 때 전국의 사찰마다 수련회가 성황을 이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참선과 더불어 차 마시는 일 또한 스님들이 더위를 이기는 비법 가운데 하나다. 함께 앉아 차의 맛과 향, 그리고 옛 선사들의 가르침을 음미하며 더위를 잊는다.

또 복날 선방의 스님들은 절 뒷산을 오르는 산행을 하기도 한다. 산행을 다녀오면 스님들끼리 "보약 한 재 잡수셨네요!"하고 덕담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데, 이는 계속되는 참선 수행으로 자칫 굳어질 수 있는 몸의 근육을 풀어주어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복날 세속의 사람들이 보신을 위해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절이 있는 곳에는 물도 있게 마련. 스님들의 계곡 산책도 빼놓을 수 없는 여름 나기 방법 중의 하나다. 무더운 날 도반 스님들과 함께 근처의 계곡을 찾아 시린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수박 한덩이 나눠 먹는 맛, 이것도 사치일까?

강원의 초년생 학인스님들은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아 땀 닦을 시간도 없다고 한다. 고학년이 되어야 그나마 수건을 열려 두었다 예불 후에 흘린 땀을 닦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그리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이 더위를 이겨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알기에 스님들은,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을 여의고 자연에 순응하며 부처님 가르침 따라 생활하라고 일상생활을 통해 온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사찰 여름 별미



◇싱싱한 채소에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맛을 내는 생채소 비빔밥

냉면… 들기름에 볶은 표고버섯 · 양념장 곁들여

매실 장아찌… 씨 뺀 매실 고추장 버무려 입맛 돋궈

스님들은 오욕락을 벗어난 경지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스님도 인간이기에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여름의 대표 음식으로 손꼽히는 냉면. 스님들이 좋아하는 사찰의 여름 별미 가운데 하나인 표고버섯 냉면은 들기름에 볶은 표고버섯으로 양념장을 만들어 찬 음식인 냉면에 따뜻한 기운을 더한 것이 시중의 냉면과 다른 점이다.

먹으면 장수한다하여 장명채(長命菜)라고도 불리우는 쇠비름을 비롯해 오이, 깻잎, 상추 등 여름철에 흔히 구할 수 있는 채소를 이용한 비빔밥도 스님들이 즐겨먹는 별미다.

채식위주의 식생활도 자칫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콩국 · 콧국탕을 만들어 먹거나, 옥수수 · 호박 · 미역 등으로 맛을 내 모양이나 맛이 독특한 옥수수 된장 수제비, 시원한 매실차와 차를 우려낸 매실의 씨를 빼고 고추장에 버무려 만든 매실고추장 짱아찌 등도 여름철 무더위로 잃어버린 입맛을 돋구어주는 사찰 음식이다.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참고>

문화소식

'모현선의 我采美展'



◇모현선作 '我 - I'.

몸과 옷은 본래 하나다. 연꽃잎의 반복과 교차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찾아 본 이색적인 전시회 '모현선의 아채미(我采美)' 전이 10일~16일 서울 관훈동 갤러리 창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끊임없이 움직임과 변화를 반복하는 살아있는 자연물로서의 몸, 고귀한 예술 작품으로서의 몸,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완벽한 조형물로서의 몸,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몸을 위한 옷 20여점이 선보였다.

만해백일장 최고상 대통령상으로 격상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문학 혼을 기리고 문학인재 양성을 위해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열려온 만해백일장의 최고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아 8월 2일~3일 강원도 인제 백담사에서 열리는 만해 전국고교생백일장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2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문화 체험학교 개설 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8~20일 주한외국인 및 교포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한다. 민속학자 주강현 씨의 민속강좌, 사찰문화체험(템플스테이), 한지공예, 김치 담그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02)760-4573~4

창단 10돌 기념앨범 발매 영남불교대 합창단

영남불교대학 합창단이 창단 10주년 기념앨범을 발매했다.

영남불교대학 합창단의 세 번째 앨범이기도한 이번 앨범에는 '성불을 위하여', '화택세계', '공심공체 돌 아닌 노래' 등 총 18곡의 찬불가가 담겨있다.

구국 영웅 · 당당한 師表

사명당, 내년 '이달의 문화인물'을 반기며

특/별/기/고



조영록

사명당기념사업회 이사
전 동국대 교수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6일 사명당을 2003년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했다.

사명대사는 불교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태어난 나이든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민족적 영웅으로 숭앙되는 분이다. 임진왜란을 당하여서는 의승병대장으로서 적을 만나 싸움에 지는 법이 없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사후처리를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뛰어난 외교적 수완으로 국가의 새 진로를 모색하는데 큰 공적을 세웠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옛날과는 달리 의병을 이야기할 때 그 분의 이름만을 겨우 올려놓거나 일빈 아동 전기물에서는 아예 빼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사명당과 같은 민족적 위인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정신을 배우는 일이 더 없이 중요한 일인데도 말이다.

사명당은 구국의 영웅으로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도 당당하고 늠름한 사표(師表)였다. 금강산에서 왜장을 설복시킨 일이나 울산 서생포 가토오 기요마사 진영에서의 회담, 그리고 일본 경도에서 새 권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회담에서 당당히 자기 주장을 펼쳤던 위인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한 양국간의 문화교류가 자연스레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사실 사명대사는 장군으로서보다는 사상가로서, 시인으로서 또한 서예가로서 완숙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지금도 일본 가토오 기요마사의 원찰인 구마모토의 본묘사(本妙寺)와 사명당이 유숙하였던 경도의 흥성사(興聖寺)에 소장되어 있는 사명당의 유묵은 사명당의 그러한 풍모를 잘 전해주고 있다.

사명당의 공적은 다양하다. 따라서 그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부분만을 논해서는 안된다. 그를 단순히 의승병대장에 국한하여 호국의 인물로서만 평가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문화관광부측에서도 사명당은 보훈처에서 실시하는 호국의 인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명당기념사업회와 불교계 여러 기관에서 여러 차례 추천하였는데도 번번이 탈락됐던 것이다.

그러나 2003년의 문화인물 선정에 대비하여 우리는 먼저 표충사가 있는 밀양시와 건봉사가 있는 고성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들과 서로 연

의승장이기 전에 사상가 · 시인 · 서예가

민족구제 · 인류평화정신 크게 선양돼야

계하면서 사명당의 문화인물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문화관광부 담당관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작년 8월 회원들을 상대로 제1차 성지순례단을 조직하여 2박3일간 표충사, 통도사, 해인사 홍제암, 직지사를 다녀오면서 참가자 20여명으로부터 '사명당의 문화인물 지정 청원서'에 서명을 받아 문광부에 제출한 것도 그 한가지 경우에 속한다. 이 서명에는 고병익 전 문화재위원장과 이원경 전 문화관광부 장관, 본회 오재희 회장 등도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 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문화인물 선정에는 우리의 그러한 설득작업이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정부에서 사명당을 내년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때를 맞아 우리 교계에서는 불교정신에 바탕한 대사의 민족구제와 인류평화의 위대한 정신을 세상에 크게 알릴 방안들을 모색하는 계기를 삼아야 될 것이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국내 최초 유일의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2002년 9월 1일 개교합니다.

I. 모집 학과 및 인원
1) 모집학과 : 불교(명상)학과 · 상담심리학과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 00명, 연구과정 - 약간명

II.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부전공과 상관 없음)

III.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7.18(목) ~ 7. 31(수)
• 장 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2) 전형일시 : 8. 3(토) 10:00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IV.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진첨부)
2)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V. 전 형 료 : 50,000원

VII. 특 전
1) 성적우수자 및 모범학생 장학금 지급
2) 우수 졸업생 해외유학지원 가능
3) 자격증 취득
불교(명상)학과 : 포교사, 불교명상치료사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사, 상담심리전문가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808-3321, 6582 / 팩스 (02) 808-6581
주 소 : 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회원모집 안양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안양유원지 입구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가 최고시설의 납골당을 준공하여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장례에서 납골 · 49재까지 완벽한 서비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 인가 전문대학원) · 보문중고등학교(대전) ·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체주차장과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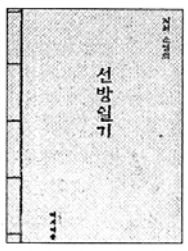
본 대학원대학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의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납골당)에서 조성되는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영각당에서 조성되는 수익금은 전액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 보문중고등학교(대전) · 안양시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휴가, 배낭에 佛書 한권 쯤…

놀러가는 휴가때 배낭에 채울 짐도 많은데 책을가져 가는 것은 약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동중 가볍게 읽을만한 책 한권이 짐속에서 빠진다면 왠지모를 허전함 또한 한번쯤 경험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책이 바로 삶의 중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막상 무슨 책을 가지고 갈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출판 관련 전문가 조언과 언론의 서평을 참고하여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결코 경박하지 않은 책 10권을 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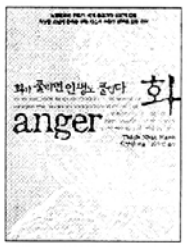
휴가 도반 베스트 10

선방의 일상 생생히 묘사



⊙선방일기(지허 스님 지음, 여시아문 刊): 선방의 일과가 솔직 담백하게 실려 있는 〈선방일기〉는 결제 불공을 마치고 용맹정진하는 선객들의 모습에서부터 소임, 선방의 생태와 풍속, 포살, 해제 등은 물론 3개월 동안의 결재 과정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지허스님이 털어 놓는 선방의 뒷이야기도 이 책의 또다른 맛. 조실스님과 주지스님의 시자(올깨기, 늦깨기)들의 서열다툼, 원주스님 몰래 숯불에 감자를 구워먹는 이야기 등은 책을 읽는 솔솔한 재미를 불러일으킨다. 값 5천원.

화날때 마음 다스리기



⊙화(틱낫한 지음, 명진출판 刊): 틱낫한 스님의 저서 '화(Anger)'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붉히게 되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방화범을 잡기보다 불을 먼저 꺼야 하는 것처럼, 화가 날 때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화를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볼 것을 권한다.

또한 스님은 화를 다스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값 8천9백원.

'왜 우리는 푹-쉬지 못할까'



⊙휴식(월호 스님 지음, 해들누리 刊): 하루하루 복잡하고 바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휴식과 안식을 찾게 된다. 하지만 막상 휴식할 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푹- 쉬지를 못한다. 고작 한다는 짓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를 뒤적이는 것이 전부이기 십상이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월호 스님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휴식'을 가질 것을 권한다. 〈휴식〉에는 '나는 하루 동안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모든 스트레스에 0을 곱하자' 등 휴식에 관련된 60여편의 글들이 실려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心淸淨 國土淸淨)'는 〈유마경〉의 말씀에 빗대어 "내 마음이 쉬면 세상이 쉰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세상도 평화롭지 못하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진정한 휴식이라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는 월호 스님. 진정한 쉼을 선의 정신에서 찾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값 8천원.

초심 불자 필독서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지현 · 일지 · 윤창화 공저, 민족사 刊):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는 불교 초심자들을 위해 탄생한 책이다. 하지만 결코 초심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불교교양대학 학생들은 물론 포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한 포교사들까지, 불자라면 한번쯤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널리 쓰이는 불교 용어 가운데 막상 짚어보면 그 뜻을 잘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주제들은 그동안 학자나 스님들이 '이 정도는 다 알겠지'라며 등한시 해왔던 것들이다. '가사와 장삼은 언제 입는 법복입니까'를 시작으로 '절을 왜 절이라 합니까' '깨달으면 부처나 나나 다 똑같다고 하는데 어째서입니까' 등 경전과 교리 그리고 신행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 상식 150가지를 간추려 읽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이해 놓았다. 값 6천8백원.

부처님의 삶 그대로 따르자



⊙내가 본 부처(도법 스님 지음, 호미 刊):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이 부처님의 인생 이야기를 풀이한 책이다. 스님은 대뜸 "부처님이 곧 불교"라고 말한다. 불교의 출발이 부처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제대로 알면 불교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그러나 단순히 부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은 아니다. 연대기적 나열이나 평면적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부처님의 삶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 현실에서 부처님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 스님은 "부처의 가르침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본래 1998년 가을부터 2000년 가을까지 행자교육원에서 갓 출가한 행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묶은 것이다. 값 7천원.

부처님 일생 소설형식 서술



⊙붓다(유홍종 지음, 해누리 刊): 이 책에 굳이 부제를 붙인다면 '초보자의 불교 읽기' 쯤 되겠다.

카필라 성의 부왕에 이어 왕권을 계승해야 할 왕세자는 무슨 이유로 그 막강한 권력과 영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참담한 고행 길로 들어선 것일까? 부처님이 품었던 위대한 야망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 붓다는 니르바나의 열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도대체 그의 깨우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등 어려운 한자 용어에 갇혔던 부처님의 생애가 편안하게 술술 읽힌다.

소설가 유홍종 씨는 다큐멘터리 소설 형식을 빌려 부처님의 생애를 추적한 이 책에서 "모든 경전은 붓다의 설법에서 나왔으며, 모든 설법은 붓다가 깨달은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 깨달음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값 1만5천원.

'달라이 라마' 마음 수행법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달라이 라마 지음, 공경희 옮김, 문이당 刊): 달라이 라마가 인도 델리에서 매년 열리는 투시타 법회에서 설법한 강연 원고이다. 대부분 지당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 국내 스님들의 생활 에세이를 많이 접한 불자들에게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불교의 원리에 입각해 마음닦는 방법을 달라이 라마 특유의 나직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어 종교와 삶에 대한 생각이 한층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나를 가장 낮게 여기고 다른 이를 높이 받드는 마음이 있어야 자기 마음 속의 탐욕이나 적에 대한 분노 역시 서로가 의존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평온과 비폭력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달라이 라마의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항상 유지하고 사는 것만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값 8천원.

일엽 스님의 구도의 길



⊙청춘을 불사르고(일엽 스님 지음, 김영사 刊): 일엽스님의 〈청춘을 불사르고〉의 옛 문체를 읽기 쉽게 다듬고 한자어에 대한 각주를 달아 30여년 만에 재출간된 책이다. 이 책은 화가 나혜석과 함께 개화기 신여성운동을 주도했으나 결혼에 두 번 실패한 뒤 32세의 나이에 돌연 출가한 스님의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담고 있다. 춘원 이광수가 '일엽'이라는 호를 지어줬을 정도로 뛰어난 문재를 지닌 작가였던 일엽 스님은 수덕사 견성암으로 출가한 후 '글 또한 망상의 근원'이라는 스승 만공 스님의 뜻에 따라 절필한 지 32년이 지난 뒤에 이 책을 썼다. 1960년 출간 당시 큰 인기를 끌어 젊은 여성 독자들의 구도의 길로 이끌기도 했다. 값 1만1천원.

절과 사람 이야기 한폭 풍경화



⊙적멸보궁 가는길(이산하 지음, 이룸 刊): 시인 이산하 씨가 불교 최고의 성지로 꼽히는 5대 적멸보궁과 3보 사찰, 3대 관음성지를 둘러 보고 쓴 명상 에세이집이다. 책은 지은이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다는 적멸보궁과 3보 사찰인 통도사, 송광사, 해인사, 3대 관음성지인 홍련암, 보문사, 보림암 등의 현장을 찾아가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정작 시인은 문득 떠오른 충동에 기대어 이리저리 발길을 옮긴다. 거대한 눈썹바위 아래 마애불이 새겨진 강화도 보문사, 머슴 부처와 누운 부처 등의 신비를 간직한 회순 운주사의 풍광과 절집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천진난만한 스님들과 아이들의 이야기가 한 폭의 풍경화처럼 소담스럽게 담겨져 있다. 값 1만2천원.

죽음을 넘어서는 법



⊙소멸의 아름다움(필립시먼스 지음, 김석희 옮김, 나무심는사람 刊): '인간은 고집스런 동물이라서 삶을 새롭게 바라 보려면 강한 충격이 필요하다. 내 경우 그 충격은 고작 서른다섯 살에 루게릭병(근 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5년 안에 죽게 되리라는 소식이었다.' 책은 저자의 이런 고백으로 시작한다. 그는 영문학교수로서 또 장래가 촉망되는 문인으로서 이제 막 생의 활기찬 걸음을 내딛으려던 순간, 갑자기 '죽어가는 기술'(Art of dying)을 배워야 하는 암담한 처지에 놓인다. 그러나 8년여가 지난 지금 그는 통계적으로 벌써 죽어야할 처지이지만 오히려 '살아가는 기술(Art of living)'을 터득해 가고 있다. 이 책은 인생이란 우리가 소중한 것보다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오래 산 이들을 위한 책이다. 값 8천5백원.

불교 신행전반 가이드북

조계종 '짧은 글, 큰 깨달음' 10권 발행



사찰에 들어가 가장 먼저 참배를 올리는 대웅전은 왜 대웅전이라고 할까? 싯다르타 태자가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영웅, 즉 대웅(大雄)이라 부른다. 대웅전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서 진리를 설하는 전각이다. 사찰에 처음 가는 초심자들이나 일반인한테는 사찰예절을 비롯해 전각 하나에 붙여진 의미, 참선의 자세 등 궁금한 것들 투성이다. 이럴때는 누구라도 붙잡고 차근차근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번에 조계종 포교원에서 펴낸 포교 소책자 시리즈 〈짧은 글, 큰 깨달음〉(조계종 출판사)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총 10권인 이 책은 우선 제 1권 '가람을 찾아서'로 출발한다. 이 책에는 금강문과 천왕문, 대웅전, 무량수전 등 전각의 의미와 사찰에 깃든 신앙적 의미들이 이야기식으로 소개돼 사찰을 처음 찾는 이들이 손에 들고 가면 가이드북으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고자 하는 초발심자들은 제 2권 '신행의 길잡이'를 보면 된다. 발심편과 입문편으로 나눠져 있으며, 특히 각 편마다 불자들이 실천해야할 사항들을 적어놔 초발심자들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신행생활을 쉽게 할 수 있게 구성했다.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의 세계관이 알고 싶다면 '부처님오신날'의 부제가 달린 제 3권을 읽어보자. 출가 · 열반절을 다룬 제 4권에서는 출가의 참된 의미와 공덕, 출가자의 삶을 비롯해 부처님 열반의 의미가 설명돼 있다. 불자 청소년 들이나 대학생들은 제 5권 '우리들의 마니또'와 제 6권 '우리들의 좋은 인연'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그들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꾸며 놓았다. 현재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는 제 7권 '치유의 손길'을 권한다. 병의 치유를 위한 마음 자세, 통증 완화를 위한 호흡법 등이 소개돼 있어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될 것 같다.

제 8권 '소중한 인연'에는 팔정도, 참선의 자세와 호흡법, 보왕삼매론 등이 실려 있으며, 제 9권 '주머니속의 평화'에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육신이 고단할 때 일러주는 방편이 적혀 있다. 제 10권 '참 자유의 길'에서는 참 자유의 길은 무엇이며, 서로 의지하며 함께사는 세상에 대한 지혜를 들려준다. 각 권 1천원.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낫한	명진출판사
2	신묘장구대다라니경강해	임근동	솔바람
3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4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낫한	김영사
5	꽃은 져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명정 · 정성욱	예문
6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화동	은행나무
7	시선	원성	이레
8	마음은 없다	페이비 키드먼	탑구사
9	극락은 있다	관정	붓다의 마을
10	차한잔의 풍경	김창배	솔과학

도서 안내: (02)737-0695

아미타불을 친견, 직접 극락을 다녀오다!

중국 관정 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신간



극락은 있다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 신국판 | 정가 8,000원

실화 체험기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본문 중에서-

극락세계 체험의 내력 / 도솔천에서 스승 허운화상과 상봉

미륵보살의 설법 / 아미타불을 친견 / 하품 · 중품 · 상품연화

아미타불의 부촉 / 인간세계로 돌아오다 ……

관정 큰스님은 현재 중국 복건성 선유현 적수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미국·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좋은 佛書 좋은 佛子를 만드는- 붓다의마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9 갤러리상 405호 ☎ 02)722-0292~3

명리학의 骨格을 확실하게 세워준다



滴天髓衡義 第上卷

전국 서점 절찬 판매중

滴天髓衡義

적 천 수 형 의

공유성 지음
신국판/양장본
788페이지
정가 40,000원

역학도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적천수)가 비로소 완전정복 된다.

적천수 원문 완전 수록 역학계의 혜성 유성 선생이 적천수, 적천수 천미, 적천수 징의를 理氣로써 저울질 하여 그 심천을 살피고, 허실을 짚었으며, 오류를 찾았다. 또한 주를 달고, 임상실례를 첨가함으로써 이 한권으로써 누구나 쉽게 명리학의 기초부터 실전의 뼈대를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譯註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원계관 신국판/양장본/진성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尤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16 꿈풀이 삼풍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흉기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김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호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6~7일 동국대와 일본 인도학불교학회(이사장 기무라 기요타카)가 공동 개최한 한 · 일 공동 인도학불교학 학술대회는 무엇보다 한국 불교의 독자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불교 독자성 확인 계기

한일공동 인도학불교학 학술대회가 남긴 것

지역불교 중요성 주목, 종합적 연구 필요

공동개최 의미 제대로 못살린 점 아쉬워

그 동안 일본 불교학계는 한국 불교를 중국 불교의 아류로 보고 한국불교의 독자성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한국측 준비위원장 보광 스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불교학을 자랑하는 일본 불교학계가 처음으로 외국 학계가 손잡고 학술대회를 연 것 자체가 한국 불교를 새롭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불교, 초기불교, 대승불교 등 10개 분과로 나눠 250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불교 관련 논문이 51편에 달하고, 이 중 26편이 일본 불교학계에서 활동하는 학자라는 것은 한국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 인도학불교학회 전 이사장은 "인접국가를 알아야 일본 불교학이 발전한다는 생각에서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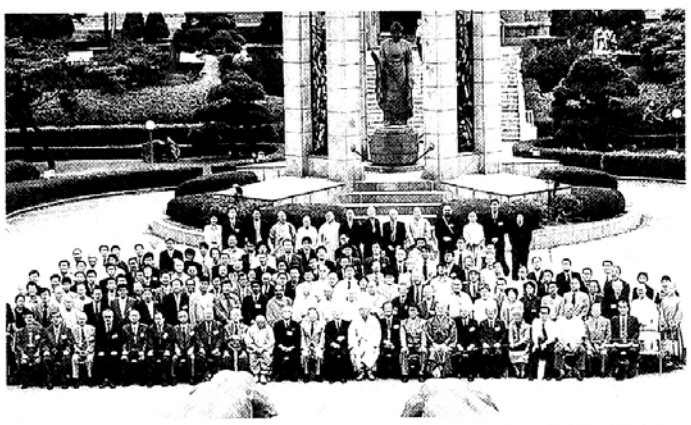
한국 불교학에 대한 관심은 문헌학에 기초를 두는 일본 불교학계의 자기 반성에서 나왔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문헌학자인 마에다 에가쿠(前田惠學) 애지학원 교수가 특별강연에서 "종파 불교에 빠진 일본 불교는 불교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안목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로 전개된 불교가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지역불교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본에서 활동중인 오진 스님(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강사)은 "근대 불교학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불교학계가 학문을 위한 학문도 중요하지만 불교학은 인간을 위한 학문의 길이라는, 연구방법론적 전환기에 접어들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종범 스님은 "적극적인 참여, 철저한 책임의식 등 선진 학회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거나 유치함으로써 국내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학술대회가 공동 개최라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학술대회 중 새로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에 선출된 기무라 기요타카(木村淸孝) 전 동경대 교수조차 "일본학회를 한국으로 그대로 옮겨왔다는 인상이 강해 아쉽다"고 말했을 정도다. 기무라 이사장은 "한국에서 한다는 의미를 살려 적어도 한국불교 관련 분과에서는 한국어로 된 진행표를 따로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새로 가입해 한국내 가입단체는 동국대와 원광대, 동아대, 전통불교문화연구원 등 5개로 늘어났으며, 중앙승가대와 위덕대가 가입 신청을 했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동국대와 일본 인도학불교학회가 공동 개최한 한 · 일 공동 인도학불교학 학술대회가 6~7일 동국대서 열렸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장면.

"대승은 출가 수행자 사상운동"

시모다 동경대 교수 새 학설



시모다 마사히로(下田正弘 · 사진) 동경대 조교수는 5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동경대학 불교청년회가 가진 공동 심포지엄에서 대승불교에 대해 기존의 학설을 뒤엎는 새로운 개념 정의를 내렸다.

시모다 교수는 이날 "대승불교는 기존의 부파 불교 내에서 생겨나 발전한 사상운동이었으며, 이들은 금욕적 고행의 길은 걷는 출가 수행자들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초기 대승불교는 불탑 신앙에 부정적이었으나 점차 세속화, 대중화 경향을 띠기 시작하면서 불탑이나 불상 숭배의 공덕을 설하는 대승 경전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대승불교가 불탑 신앙을 숭배하는 재가불자들에 의해 생겨난, 알기 위한 쉬운 불교라는 기존 학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불탑신앙 초기엔 부정적
세속 · 대중화 과정서 파생

시모다 교수는 또 "대승불교가 부파 불교에서 독립한 교단이었는지 학파에 머물렀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승불교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한 이러한 개념 정의는 일본의 권위 있는 불교학 사전 가운데 하나인 〈이와나미 불교사전〉의 개정판에 실릴 예정이다.

'이와나미 불교사전' 개정판 수록 예정

스님 · 불교학자 첫 대면 학술 모임

12~13일, 전국강원연합회 불교학술대회

"한문경전 고집 이유없다" 한글화 주장
강원 장점 지켜가면서 현대 흐름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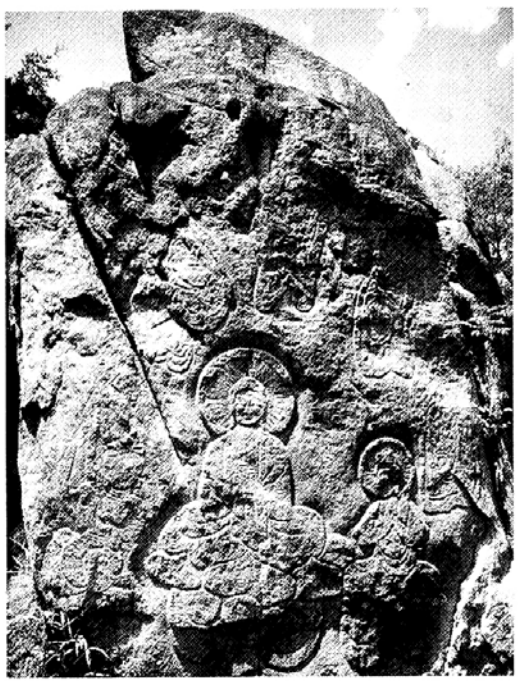
스님과 재가 불교학자가 만나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학술모임인 '제5회 전국 강원 연합 학술대회'가 12~13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렸다. 전국 18개 강원 연합체인 전국강원연합(의장 목산)이 매년 한 차례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를 강원 학인만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 학자들과 함께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드칠학과 인도대승이전 불교 등 4개 분과로 나눠 열린 이번 학술대회의 공동 주제는 '강원 교육의 현황과 불교의 시대적 역할'.

이혜숙(동국대 강사) 씨는 "강원 교육은 외부 현실과의 소통에 매우 소극적이다"며 "출가 수행자가 역사와 사회의 제반 문제점을 불교적 시각과 방법으로 조명하고 해결할 수 있으려면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조현춘 교수(경북대)는 "이미 중국에서조차 사용하지 않는 고대 중국 한어로 된 경전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교재의 한글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태원 스님(봉녕사 강원)은 "강원은 원시교단이 가지고 있던 수행과 대중화합을 위한 장치 및 제도들이 가장 충실히 시행되고 있는 곳"이라며 "불교의 전통에 입각해 불교와 사회의 관계에서 위상을 정립하기 보다 현대사회의 교육이나 문화에 발맞춰 나가기에 급급한 모양의 승가교육개혁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제 강연을 한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은 "강원 교육의 낙후성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렇다고 현대식 교육이 해내지 못하는 아름다운 전통까지 훼손시키면서 현대식 교육을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며 "전통강원의 논강식 교육, 여법한 대중 생활 수행자로서의 습의 교육 등은 계승 발전시키는 가운데 현대의 흐름을 승가의 정신에 맞게 추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각산 스님은 "단편적으로 현대불교학을 접한 학인이나 승가의 깊은 내용을 모르는 학자 모두에게 발전이 되는 학술대회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 남산은 63개의 계곡을 따라 절터 147곳과 118개의 불상, 96기의 탑이 산재해 있는 불교문화유산의 보고다. 사진은 보물 201호 마애조상군(磨崖彫像群) 동쪽면.

골마다 절터, 바위엔 불보살

불교문화유산의 보고 '경주 남산' 보급판 발간

"온 산이 절터." "신라 불교 문화의 보고." 1940년 최초로 문화재 전문가를 동원해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을 조사한 일본인이 남긴 탄성의 기록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자 국가사적 311호인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과 선사유적, 왕릉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민속의례, 수려한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도록 〈경주 남산〉(민족문화)이 발간됐다. 도판편과 해설편, 2권 1질로 나온 종합도록은 경주문화재연구소가 올 5월 내놓은 종합 학술보고서 〈경주남산〉의 일반 보급판이다.

유적 · 민속의례 · 수려강산 한눈에
도판편 · 해설편 2권 1질로 꾸며

경주 남산은 우리 나라 미술사학계의 대부 고유섭이 "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고자 한다면 경주 남산에 가 보아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 나라 불교문화유산의 보고다. 경주문화재연구소가 4년여 동안 200여 차례의 현장조사 끝에 확인한 절터는 63개 골짜기에 147곳. 아울러 118구의 불상과 96기의 석탑과 22기의 석등, 8기의 부도를 확인했다. 골짜기마다 절터요, 바위마다 불 · 보살이 새겨져 있었던 셈이다. 벼랑 위 바위에 새겨진 신선암 마애보살상이나 상선암 마애여래좌상 등에선 산 정상에까지 불상을 조성했던 신라인의 불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남산에는 불교유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사유적과 왕릉, 산성은 물론 고려와 조선시대 유적과 유물도 풍부하고 지금까지 남산에서 행해지는 민속의례나 수려한 자연유산도 자랑거리다. 박혁거세가 태어났다고 전하는 나정(蘿井)과 신라 멸락의 비운을 상징하는 포석정을 비롯해 모두 672건의 다종다양한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다. 〈경주 남산〉은 이 모든 것을 총정리했다.

도판편에는 현재 남산에 있는 문화재뿐 아니라 박물관 등으로 옮겨진 중요 문화재와 탁본 실측 자료 등 800여 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해설편에는 각각의 유물, 유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161장이 추가됐고, 금석문 자료, 고대문헌 자료 및 연구논저목록, 1940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경주 남산의 불적〉의 한글 번역문 등 남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실었다.

특히 불상 도면은 3차원 레이저 촬영을 통해 등고선화한 실측 도면을 실어 앞으로 문화재 훼손시 복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값 2권 1질 23만원.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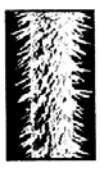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입부는 달이고 입부는 튀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입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붓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점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리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복 재질 목(울 50%)



하복 재질 목(울 50%)



※ 순면(무늬 있는 먹물) ₩130,000
하복 구입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1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조끼 · 중

셔츠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지역 대리점 모집

불교는 끝간 데 없는 진리

여러분의 신심이 돈독해서 이 자리에 공부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됐습니다. 법당에 부처님 한 분을 모셔 놓은 것은, 여러분 몸과 둘이 아닌 도리요, 여러분 마음과 생명이 둘이 아닌 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고깃덩어리를 보지말고 내 골수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정신계와 물질계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줄 모르고 항상 기복으로써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말라는 권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래의 정신세계와 더불어 같이 내 마음의 굴레를 굴리지 않으면 절대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공부를, 불교는 영원한 근본의 생명,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교(敎)이기 때문에 불교라고 한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불교라는 것은 영원한, 즉 말하자면 끝간 데 없는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 불 · 바람 · 흙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 · 수 · 화 · 풍으로서 뭉쳐졌고, 생명이 생겨났고, 생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수 억겁을 거쳐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이 말을 하려면 하도 길어서, 말한 사이도 없고 말 한마디하면 과거로 그냥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머리가 어딘지 발이 어딘지 모르게끔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납득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입니다. 불교는 끝간 데 없이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부처님의 말씀은 우주 전체의 불 바퀴라고 하고 불성을 먼저 알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블랙홀이라고 말합디다마는 블랙홀이라는 그 자체의 생산처는 바로 내 가슴에 직결돼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지금 여러분이 안이하게, 이 울산 지역에서 사니깐 답을 둥그렇게 쳐 놓고 천야만야하게 떨어질 줄 모르고 답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번 바깥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땅 속이나 물 속이나 저 허공이나 다른 혹성이나 별성이나 어디고 아니 다니는 데 없이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 · 수 · 화 · 풍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은 그게 바탕이 돼서 오신통이라는 문제도 굴릴 수 있는 그런 법바퀴 말입니다.

그 법바퀴를 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앞에 바탕으로 돼있는 지 · 수 · 화 · 풍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쓰고 있고 의학적으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충만히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50%의 저 언덕을 몰라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50%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차 말하지만 지 · 수 · 화 · 풍으로 바탕이 돼서 생명이 생겨나서 미생물의 시대도 있었고, 곤충의 시대도 있었고, 공룡의 시대도 있었고, 난폭한 짐승들의 시대도 있었고, 인간이 될 수 있는 진화력을 가지고 실험하는 시대도 있었고, 인간이 증발해 버리는 그런 시대도 있을 겁니다.

법당에 가서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게 불자인 줄 알지 마십시오.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다 불자입니다. 불자라면 불자 노릇을 해야 불자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기의 근본을 알고, 우주의 근본이 자기의 근본 속에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모두 가설이 돼서 마음속의 근본에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허공을 믿을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을 것도 아니고, 우리 스님네들 고깃덩어리를 믿을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는 그 속에 바로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몸이 움죽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끌고 갑니까. 저 허공에 부처가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몸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 살 때 인연을 맺은 것만큼, 악으로 맺었으면 악이요, 선으로 맺었으면 선이요, 악업 선업이 다 인연으로 인해서 만나 바로 여러분의 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몸 속에서 시키는 대로, 파워가 일어나는 대로 입력이 돼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저리로 가면 잘되겠지, 이 직장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면 잘되겠지 하지만 여러분의 입력기가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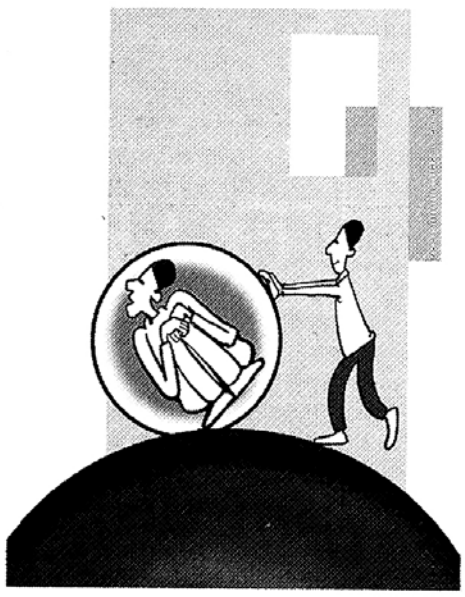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생각들, 지금 살아나가는 생각들이 자꾸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 속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며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겁니다.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남에게 못되게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잘했으면 즐겁고, 남한테 좋은 일을 했으면 즐거운 마음을 가질 테고, 남을 언짢게 생각했다면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한테 모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한 찰나에 연락이 되며, 한 찰나에 들고나며, 한 찰나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습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다, 그렇다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알지 못하듯이,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꺾지 못하듯이 여러분이 지금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떠한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한테 항상 말해드리는 것은 그 입력기가 바로 여러분한테 있고, 팩시밀리, 탐지기, 무전통신기, 천체만원경, 레이다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교에서는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로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불가에서 말하는 건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천안통 숙명통 그 다섯 가지를 굴릴 수 있는, 바깥으로 벗어나서 그걸 굴릴 수 있는 지배인을 누진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뜻을 생각해서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행하고, 똑바로 말하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딱할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인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그건 이름입니다. 만약에 혈관이 막히고 뭉쳐있어서 그것을 암이라고 이름 지어 놨다면 암인 것입니다. 그러나 암이라고 한다고 해서 미리 속지 마시고 그 이름에 질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한테 있다는 것은 바로 지 · 수 · 화 · 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발전소가 됩니까? 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은 지 · 수 · 화 · 풍으로 뭉쳐져 있고 지 · 수 · 화 · 풍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부 각자 지 · 수 · 화 · 풍으로 뭉쳐진 혹성입니다.

>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 들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신 뜻은 모두가 한자리 · 한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 혹성 속에는 뭐가 살까요? 생명체가 별성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습은 그럽지언정 운행을 안 해준다면 우리가 못 사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의 별성인 것입니다. 혹성은 둘레라고 한다면 별성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이날까지 왔다는 증명서입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그 자체를 한 번 들여다보시고 한 번 바깥을 보십시오. 바깥에 있는 건 더럽고 무섭고 징그럽지만, 그 징그럽고 더럽고 무서운 것들이 전부 나를 운행 해주고 나를 움죽거리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또는 파워를 일으켜서 나를 못 살게 만들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두서 없이 말한다고 해서 두서없이 들어서는 안됩니다. 두서 없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두서 없이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가깝고 여러분이 지금 지구 속에서 지구를 집 삼아서 살고 있고, 저구가 우리 몸이라면 몸 속에 사는 생명체들처럼 우리도 지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붙어서 살고 있을까요? 적든 크든 모두 생긴 것도 다르고 차원들도 달라서 이 소임을 맡은 사람이 있고,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그릇대로 맡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릇들을 보십시오. 종지가 있는가 하면 큰 그릇이 있고, 그렇게 여러 층이듯이 사람들의 차원도 도랑물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연못이 있으면 그게 썩지 않고 살수가 있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역대 조사들도, 만약에 너희가 바깥으로 찾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마귀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돌로 보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한데 떨어져서 마구니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이 지극하고 아무리 이론으로 무불통진 설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구니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공덕이 없다고 그랬죠. 우린 사랑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더불어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입력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나무는 밤이면 나오는 게 있고 사람은 낮에 나가고 밤에 주는 게 있고 낮에 받고 살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나 산소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고 말입니다. 고거 한마디만 해도 증명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마음 속의 주인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에너지와 혼은 다 뺏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 속에 자력이라고 하기 이전에 큰 자석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쇳덩어리는 다 여러분 자석에 붙어 들어오지마는 여러분이 자석이 없으면 조그마한 내 자석 하나 있는 것마저도 다 딴 데로 가서 붙어버려요, 원리가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 빈집이 돼서 주인도 없고, 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에너지와 혼을 뺏기고 빈집이 되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아귀들같이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세균성 업보성이 다가오는 겁니다. 와도 그것을 어떻게 카바를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실천하는 데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데서 또 실험을 하면서 우리는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남한테 기대는 마음, 항상 남을 믿고 보증이나 서주는 마음, 남한테 속기나 하고 망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속고 속이는 마음들을 가지고서 살아나가니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삼스럽게 이런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의 모든 의식들은 좋고 나쁘고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가 저거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따라 주고, 여러분이 선한 일 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따라주기만 합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속에 있는 것뿐이 아닙니다. 벌레들도 좋고 나쁜 거를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저 막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을 잡아먹고 잡아먹히지는 않아도 정신이 잡혀 먹히고 뺏기고 그럽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지배인의 자격을 가졌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죠. 인간은 좋고 나쁘고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좋고 나쁘고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이, 모든 중생들이 모르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하화중생입니다. 내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먼저 알아야 여러분 몸 속의 좋고 나쁜 거를 아는 마음,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는 다스리는 마음, 나라는 아집과 착을 다 놓고 다스려 나가는 그 마음이 바로 천백억화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32응신으로 모든 중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약에 악이 와서 '날 좀 살려주시오' 하면은 둘이 아니게 한마음을 내서 바로 건져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한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 세상에 모두가 나일 뿐이고, 나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내 자리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으니 끝간 데 없는 진리,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땅을 딛고 있는 것도 내 발이기에 바로 평발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발이 뭉뚝해서 평발이 아니라, 벌레 발 하나도 내 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평발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들으니 가섭이 웃고 한마음이 되었으니 둘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한마음이라고 가르쳐주셨고, 나아가서 그 꽃을 들고선 대중 속으로 들어가셨으니 모두가 한자리요, 한 몸이라는 뜻을 일러 주셨습니다. 말없이 일러줬다고 해서 무시하면은 아니 되죠. 그 뜻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한 거지, 말이 중요하고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교를 믿을 때에 올바로,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풀 한 포기만 남아도 아니, 흙만 있어도 불교는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그 네 가지로 빚어진 몸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도 물에 가면 물이 좋고, 산천초목을 보면은 좋죠? 그렇게 신선하고 좋죠! 여러분의 고향이니깐 그런 겁니다. 수 억겁 광년을 거쳐왔다 하더라도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산천초목에서 뛰어 놀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들에서 뛰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정신, 혼을 뺏기고 뺏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 속에 식구들이, 악업 선업의 인연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 보살로 화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마음, 한마음! 다스리는 마음, 아집이라는 마음, 착이라는 마음을 다 다스리면서 겸손하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동, 남을 이익하게 하는 마음, 자기가 조금 밑지더라도 말입니다. 둘로 보지않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다 할지라도 고정되게 나쁜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도 고정되게 좋은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모를 때에 내 모습으로 생각하고, 어린 사람은 내 형제로 생각하고 내 자식, 내 부모로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많은 해골더미에 큰절을 하셨다고 했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생자부인 어버이신데 어찌 해골에다가 큰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수 억겁을 거쳐오면서 차원에 따라서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만나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수 억겁을 거쳐 나왔으니 저 해골이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절을 안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와 같이 네 부모 내 부모가 없고, 네 자식 내 자식이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짚단 모이듯한 식구가 인연 따라서 그릇대로 모였다가 또 사대로 흩어지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차원끼리 또 만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의 부모만 내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저리로 돌아가서 내 부모가 됐다면 또 어떡하시렵니까? 수없이 거듭거듭 돌아가면서 거쳐 나왔으니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고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이고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절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말간 공산주의지 행동이 독재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마음을 평등하게 쓰면서 그냥 사는 사람보다도 더 기가 막힌

광력 ·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누구에게나 충만함을 알아야…

일이죠.

한마디 말할 것은 일본에서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활약으로 인해 불교라면 자지러져서 불교국으로 아주 삼았지 않습니까, 생활을 불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교에서 따간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가사 장삼을 하오리로 만들었고, 오조 가사를 사무라이 총발이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악습니까? 처음에는 행전을 당코바지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각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바루 공양을 공기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글도 우리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혼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이 먼저 향을 꽂으면 자기가 꽂아놓은 거 빼 버렸다고 그냥 야단이 나고, 물 떠다 놓고 초 켜놓고 이래야만이 정성드리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남이 향을 꽂아 놓고 초를 켜놓았다 하더라도 수천 수만이 그 초 한가락에 밝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남이 꽂아 놓은 거고 내가 꽂아 놓은 거고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 침착한 마음으로 서로 뺏고 먼저하고 나중하고 이렇게 생각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이 지극하면 마음의 등이 밝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뒷면에 영원한 밝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의 인등을 켜신다면 아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밝고 공덕일 것이로되, 백일기도만 드리면은 나중에는 지구가 안 돌아가나? 백일기도만 드릴 때만 지구가 돌아가고 백일기도 드릴 때만 자기가 모두 움죽거리나요? 백일기도 드리고 난 뒤에는 어떡할 겁니까, 불이 꺼져도 괜찮습니까?

이 세상 진리는 항상 밝고 항상 움죽거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바퀴는 돌아가고, 불바퀴는 별성이나 우리 사는 혹성 모두 운동하는 데서 바로 에너지가

☞ 18면으로 계속

만중생에 한마음으로 응하면 자유인



그림 · 최주현

☞ 17면에서 계속

배출되면은, 그 불바퀴는 아까 얘기했죠. 자석에 모두 붙는다고요. 크니깐 다 불어서 하나로 돌아가면서 바로 법바퀴가 전력을 빼서 쓰듯이 우리가 그렇게 빼서 바로 생산을 내는 거죠. 멸하고 생산되고 멸하고 생산되고 이러죠. 이게 인간 살아나가는 작용이죠, 바로.

이런 진리를 탐구할 생각은 안하고, 그러고 가정에 살림살이 속에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해내는 데도,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내고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항상 자기 집은 주인이 없이 비워놓고 남한테 다가 기대고, 물질에 기대고, 이름에 기대고, 그저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또 그뿐인가, 요기다 놓지 않아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면 어쩌나? 저기다 놓지 않았으니 어쩌나 그러고는 그 땀으로 뭉쳐진 종이짝 몇 개 가지고 빌면서 안 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인간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하는 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끄달리면서 종교를 믿는 것마저도 편안치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니 어떻게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무슨 석달 열흘 기도를 드려라, 인등을 켜라, 뭘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절대 팔자 운명이 없다, 따로 없다, 내 생각에 의해서 팔자 운명이 붙는 거다, 시간과 공간이 없이 돌아가는데, 공했는데 팔자 운명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유전성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가난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우환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날짜를 정해서 가지 않으면은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어디 있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할 수 있는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불자며 인간입니까?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저도 달을 하다 보니까 침이 말라서 이 물을 먹어야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목이 마르면 아니,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생활하는 데에 배가 고픈 일이 너무도 많고 애처로운 일이 너무도 많고, 쓰라린 일이 너무도 많고 터무니없는 일이 너무도 많고, 사시는 데에 천차만별로 닥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는 비밀도 많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한테 그런 건 털어놓을 수 있어도 정말 자식한테는 털어놓을 수 없고 부모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 없다면 어떠한 거든지 커버해 나갈 수도 없으며 몸 안에서 병이 들어도 커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는 그런 까닭이 바로, 이 속에 중생들이 자기와 더불어 한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몸, 한마음 말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한마음으로 문을 열어주니까 거기서 생각할 때에 둘이 아니라는데 그걸 알게 되자 바로 세포가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게끔 작동을 하죠.

여러분이 마음으로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거기에 맡기고,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난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뭐든지 거기다 맡기고, 자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부지런히 움죽거린다면 그게 바로 시자죠.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부처님 앞에 가서 빌기만 하면 부처님이 그냥 봐줄 거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다보면은 나를 발견하고, 첫째는 나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주인공에다 믿고 다 맡겨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밝게 나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둘이 아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맡겨야 합니다. 나는 견성했다고 고개를 탁 들고 내가 나라고 이렇게 한다면 둘이 아닌 도리 공부는 글렀죠. 그러고 미해지죠. 세 번 째는, 둘이 아닌 걸 알았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둘이 아닌 그 도리를 알았으면 고 다음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개구리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개구리가 되고, 한마음으로 응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달래든 못생긴 사람이 달래든 잘생긴 사람이 달래든, 부자가 달래든, 새가 달래든 곤충이 달래든 짐승이 달래든, 아무런 말없이 그저 그대로 돼주는, 그렇게 돼줄라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적어져야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건져 주죠.

그래서 어느 때에 부처님이 뭐가 됐을 때에 부처라고 할까? 사람이 됐을 때 부처라고 할까? 그래서 '부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다' 라는 얘깁니다. 한말 되하고 한말 되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인이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실천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면 거기서 할 수밖에 없으니 거기다 맡기라고 하지 기도를 하라 뭐 정성을 들여라 이럽디까?

모두를 모를 때의 내 모습

내 형제, 내 자식, 내 부모로 생각해야…

그것이 바로 성불이며 열반이며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앞뒤가 없는 불바퀴를 넘어 참으로 영원한 밝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지를 얻는다면 바로 평등공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는 칠보황궁공법에 해당이 되고, 고 다음에는 팔수레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도리천의 자유인으로서, 도리천하면 모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평발, 평손, 평눈이 하는 것이 다 종합된 그런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 자유인이 바로 부처자 신이죠. 여러분이 그냥 보통 불러도 自神이러죠.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자신이 있는데 왜 타신을 믿습니까? 자신부터 알아야 타신도 둘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내 집부터 전화통을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가 올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법당에 음식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방편으로 말했습니다. 찰떡을 둥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그 떡 한 그릇이 전체를 먹이고도 되 남는다는 뜻을 아시라고 말입니다. 내 조상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법당에 올라가시면 마음으로 부처든 나든 조상이든 중생이든 할 것 없이 그냥 둥글려서 지극하게 삼배 올리면, 백팔 배를 해도 한 새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북하면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더러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약사발을 안겨서 죽일 건 뒤 있습니까. 죽은 몸이 없어진 뒤에도 짚세기 한 짝은 거기 두고 짚세기 한 짝은 주장자 끝에 턱 메고서, 즉 말하자면은 사신으로 보냈던 사람이 오는 도중에 만나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없어졌는데도 그 모습을 다시 해 가지고 양무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였으니 어떻습니까? 어버이의 마음은 죽으나 사나, 지금 부처님께서 내내 가르치고 지금도 살아 계신, 여러분이 살아 계신 것이 바로 부처님이 살아 계신 것이니까요.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열반한 게 아닙니다. 사대가 흩어졌을 뿐이고, 그 분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그 뜻을 아실 거예요. 언젠가는요.

> 가정 살림살이 속에도
> 부처 · 법신 · 화신 있어
> 일체만법 들이고 내

그러니까 법당에 가시면은 마음을 둥글려서, 물질이든 형상이든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부처라는 걸 알게 돼요. 모셔놓은 부처님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한데 굴리세요, 둘이 아니게. 그러다 보면 아하! 방편으로 모셔놓았지만 진짜 부처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부처니까요.

우리가 밥 먹고 배설하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 생각 잘하고 소화를 잘 시킨다면, 이런 소리나 똑같은 얘깁니다. 한번 생각 잘하면 먹는 것이고, 한번 생각 잘했으면 소화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먹고 소화 못시키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있는 거지, 여러분 빼놓고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빼놓고 부처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부처가 어디 있는지 봤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부처를 보고 믿게 되고 듣고 보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 세계에서 관습에 젖어서 기복에 젖어서 그렇게 산다면 요다음에 몸 속에 인과응보로서 뭉쳐진 것이 수없이 늘어나 가지고, 내가 죽은 뒤에 턱 하니 나와서 살아있는데도 수없이 자꾸 파워를 일으키고 용도에 따라서 자꾸 입력돼서 나오는데 죽어서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면서 요만한 벌레도 크게 돼 가지곤 그냥 눈에 다 보이면은 한 발짝도 못 들어서요. 자기가 인연지은 대로 나오는 거니까 머리 풀어 산발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벌레, 독사로 나오기도 하죠. 아, 그렇게 나와서 늘비하게 늘어져 있으니 그 길밖에 없는데 한 발짝이나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거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게 일 단계예요.

이 단계는 뭐냐?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하죠? 그것도 뛰어넘는 거지만 일 단계에도 마음으로 뛰어넘으면 될 것을 내가 의식으로 항상 물질로 관습이 됐기 때문에 젖은 거죠. 그래서 배가 와야 건너가지 그냥 어떻게 건너갈 수 있나, 빠져죽지 하는 생각으로 영혼들이 주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나 카톨릭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불교에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저 언덕을 넘어가자'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죽어서도 배가 올 때를 기다리니 5백 생을 기다리면 옵니까? 그러니 천도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요새 그런 도리를 배우니깐 좀 아시겠지마는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걸 몰라서 일일이 따지고 덤비고 그냥 먹으려고 했던 거죠.

하여튼 우리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내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내 몸 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천백억화신 보살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며, 둘째는 그렇게 해야만이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가난도 소멸할 수 있고, 또 돌 듯하면서도 안 되는 가환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입력된 것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한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만….

※위 법문은 1991년 8월 11일 울산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범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심사 신나는 여름불교 숲속학교

◈일 정 : 8월 18일 ~ 8월 20일 (2박 3일)
◈인 원 : 선착순 100명
◈대 상 : 초등학생
◈교육내용 : 사찰예절, 숲길산책, 캠프파이어, 발우공양
◈신청기간 : 7월 20일 ~ 7월 30일
◈접 수 처 : 041)543-2696 533-9993
◈장 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0 세심사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운동화, 침낭(이불)
◈신청에서 지급품 : 수련교재, T셔츠 증정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 말사 세심사(洗心寺)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영가천도 「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등 이중에서 50 ~ 60% 이상이 영가의 영향에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머리글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매월 합동 천도재 봉행, 천도재상담 전화 및 무료책자 신청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
041)567-6820, 567-6822

음양체형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서초구 소재 보현정사(주지 보현스님)에서는 현대의 선 · 후천성 기형, 비만, 체형의 변화에서오는 병상증들이 음양체형관리에 의하여 건강을 되찾고 체력, 활력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양로원, 장애인, 고아원 등의 소외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스님의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음양체형관리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홈페이지 www.skin-reform co.kr(com)/음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 육 안 내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반 AM 10 ~ PM 12시 30분
오후반 AM 7 ~ PM 9시 30분
▶ 교 육 비 : 보현정사 추천에 의하여 무료교육
▶ 교육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4 진솔빌딩 B1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직장재직증명서1통 (전업주부아닌 경우)
▶ 상담 및 문의처

보현정사 포교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전화번호 : 02)583-1080, 02)521-1415
H · P : 016)321-1080

※ 현 피부미용이나 비만 체형관리실 운영하는 분은 제외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행자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수락산 백운사
02)939-0221
011)9162-4517

산수수려한 서울 인근 사찰에서 부전으로 기도하고저 합니다. 연락주십시오.
016-811-678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2) 487-8500
02) 475-8600

제의식, 불공 등 입시로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바랍니다
051) 462-7374
018) 523-737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불심있고 성실하신 분
▷40 ~ 60세 사이
054)272-4633
017)502-7451

공양주,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봉구, 월 100만원 지급
02)3491-4848
019)254-4883

오래된 해수 천식 특효한 효능 있는 토종약효 있습니다
임법당 8500만원 양도
043)645-7604
011)748-7604

제사, 천도재, 불공, 의식 및 법회
신심으로 봉행
각종 의식이나 법회에 스님이 필요한 곳은 연락주십시오.
(스님없는 빈 토굴이나 사찰 원합니다)
011) 556-8541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 575-2532
FAX : 031) 575-2647
자 택 : 031) 563-8733
031) 563-8771
H · P : 011) 255-3286

◎ 모십니다 ◎
무료 양로원에서 임소할 독거 노인을 모십니다 (만 65세 이상)
천혜의 자연조건, 깨끗한 환경
●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30분거리
● 순천시에서 30분거리
● 주소 : 전남 곡성군 겸면 괴정리 873번지 홍산 보금자리
전화 061)363-8898
팩스 061)363-8897

절에서 일하시면서 기도 하실 분
보살님 또는 처사님
(조그만 암자)
054)748-928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 877-7514

『모십니다』
섬진 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백운산 자락 무등암에서는 함께
수행정진할 행자와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무등암
전화 061)772-4109/772-5401
휴대폰 011)351-6067

법납 5년 미만 행자 또는 비구스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 선봉사
02)387-8445
016)381-1319

심야전기 온돌난방
▶ 축열식 심야전기 히트온돌난방(M.I CABLE)
▶ 축열식 전기 온수기, 온풍기, 보일러
▶ 온수 바로바로 히팅케이블 보급 시공
스노우엘팅 주차장, 출입구, 언덕, 안전도로
동파방지 및 히팅케이블 냉온수배관, 송유관, 유체라인 등의 보호
한전승인업체
남 강 기 전 02)338-0400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경남 거창군 덕유산 입구 소재 사찰 터 싸게 내려 합니다
016)857-4500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7천
011)9756-4845

사찰 안내
● 위치 : 춘천시내에서 10분거리 산속 사찰
● 부지 6300평
● 종교용지 1600평
● 가액 : 3억 7천만원
011)366-4047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목조 새건축)단청완료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철원(시내)
● 땅 : 197평, 건물 : 30평
● 법당 : 삼존불, 탱화 외
● 가액 : 대지, 건물 1억 3천 (융자 3000만원 포함)
● 시설비 : 2000만원(절충가능)
011)895-2919
016)328-3752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해인사 055) 932-7252 김창본
신부락 011) 545-7252 처 사

행 자 모 집 [남]
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1. 도심사찰의 신기원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생, 7만의 등문신도
2. 민주적 교육에 의한 능력을 갖춘 수행자 배출 목표
3. 수계 후, 모든 지원함.
4. 행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감포분원의 산중 사찰에서 기거할 수도 있슴
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우학(주지 겸 학장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www.TVbuddha.co.kr
행자원 011)9852-0075 [T. 053)474-8228]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갓바위 뒤길
● 대지 : 70평
● 건물 : 요사채 3칸, 부속건물 30평
● 특징 : 갓바위 뒤길 도로인접 산세수려, 삼존부처님, 지장보살 모심
● 가액 : 전세 3000만원 (비품비 포함)
011)247-655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거사 3리 902번지
● 대지 : 202평(자터) 산밑 기도도량, 산신각 10평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법당에는 삼불부처님, 산신각에는 칠성부처님, 탱화일체, 범종 20권, 인등 30개짜리
● 옥수그릇, 공양그릇 모두 도자기
● 가액 : 7천 5백만원
031)531-5328

사찰 안내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조정가능)
● 임야, 대지 : 5000평
● 대웅전 : 30평, 요사채 : 2동
전 남 서 산 사
061)434-7724
019)660-6954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 논산 중간
● 대지 : 150평
●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학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사 찰 안 내

• 위 치 : 춘천	• 위 치 : 경북	• 위 치 : 논산
• 법 당 : 10평	• 법 당 : 3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35평	• 요 사 : 30평	• 요 사 : 100평
• 부 지 : 6300평	• 부 지 : 570평	• 부 지 : 900평
• 가 액 : 3억 7천	• 가 액 : 1억	• 가 액 : 3억 8천

※ 전국사찰, 포교당다량보유, 양도,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옆
● 건물 : 5층 건물 중 4층(53평)
● 특징 : 시설완벽 포교당 최적지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5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868-5997
051)761-1573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남산역 3분거리
● 평수 : 40평 (법당 25평) 방2개, 거실, 주방, 화장실 완비, 삼존불 모셔져있고, 즉시법회가능 10대이상 주차 가능
● 가액 : 1억 2천만원
051-512-0437
016-574-0437

사찰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 땅 : 650평, 평당 40만원
● 특징 : 건물 20평 포교당이나 절 지음에 최적지, 유동인구 多, 바다가 보이며 공기 좋고 경관이 수려
02)6245-8710
018)603-871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평수 : 땅 대지 200평 법당(콘크리트 기와) 28평 산신각 2층 5평, 요사채 30평 공양간 5평, 대지 공양간 5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5천만원
052)294-7025
016)9294-7025

탈 종 공 고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1972년 종단 등록시 종헌취지와 현재 차이가 많아 종단을 탈종합니다.
2002년 7월 17일자
● 사찰명 : 천경사 ● 대표자 : 박경옥
● 주 소 : 경북 칠곡군 석적면 도계 2리 85-3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419호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충남 서산 소재
● 부지 : 3000평
● 법당 : 25평
● 명부전 : 25평, 요사 : 50평
● 양도가 : 2억(융자가능)
● 산세 좋은 도량 임
● 위치 : 인천시소재 (지하철역 200m)
● 법당 : 65평, 방 4개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3,000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같이 운영 하실 분 모심
● 위치 : 동서울 버스터미널 근교
● 법당 : 평수 70평
● 방 4개 욕실 주차장완비
● 비구, 비구니 보살도 환영
02)2201-07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심가
● 건물 : 4층 건물 3층 30평
● 시설 : 법당, 용양간, 스님방
● 조건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없음, 사무 집기 일부 보시
011)9541-8538

사찰부지안내
● 12500평중 대지 500평 큰사찰 창건하여 불자 중 같이 사실 분을 찾고있습니다. 전통법패를 가르치는 강사스님입니다.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 납골당 적용지 가능
연락바랍니다
031)865-4893/011-661-9119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진산면 (대전에 20분거리)
● 대지 : 전, 밭, 임야 합 8746평 도로 전기 공사 완료
● 육각정(목조) 한동
주거용 컨테이너 1동
약수터(옹달샘) 및 연못
가액 : 평당 3만오천원
011)826-6888

암자·토굴·공부터안내
● 위치 : 지리산 함양 지역
● 평수 : 다양
● 임야 전답 잡종지
055)963-8167
011)863-8167
경남 함양군 효천면 문정리

암자 안내
● 법당, 삼존불, 요사채 (새로건립)
● 방 5개, 거실, 주방, 심야전기, 보일러 기름보일러 2개, 주방시설 완비
● 전세 2천만원, 월 10만원
● 왜관 IC에서 5분거리
017)565-1599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면적 : 실 면적 약 34평 지층 방2개 사무실1개 주방1개 법당1개
● 보증금 5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7)217-2219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 평수 : 종교부지 97평
● 대지 : 94평
● 법당 : 목조건물 15평
● 지장전 : 1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1억 천만원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43)853-4779

사찰 안내
● 위치 : 안성
● 부지 : 818평
● 법당 : 15평, 요사채 : 21평
● 좌청룡우백호
산세좋고 앞에 저수지가 있음
시내버스 30분 간격 운행
● 가액 : 6억 8천
011)9961-0241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375번지
● 면적 : 준농림지 약 7500평
● 대지 : 900평 ● 건물 : 약 30평
● 평당가액 : 4만원 (분할 판매 가능함)
055)283-1733
018)577-5581

사찰 양도 안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용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귀 대창불교건축 귀 대 창 목 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봉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갑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도리원
● 목조로 지은 한옥 황토집 보존상태 양호, 최근에 부분 수리 했음
● 대지 150평, 건평 30평 방 3개 대청마루 부엌, 목욕탕, 곡간, 창고,
● 암자나 토굴로써 적합
● 가액 : 4000만원
011)9376-4684

암자 안내
● 위치 : 포항 흥해읍
● 건물 : 임법당 (삼존불) 거실, 주방 방 2개
● 시설비 일체 : 1,200만원 월세 : 10만원
● 포항시내 10분거리
054)241-4544
011)813-0108

암자(급)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2층 건물 37평, 1층 요사채 2층 임법당
● 가액 5,500만원(융자포함)
※ 지하수, 뒷편공원, 교통편리 거의 새집
061)762-2630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 교통체 유지
● 4층건물 중 3층, 50평 법당, 주방, 방3개, 주차장완비, 즉시 법회가능, 시설완벽
● 보증금 3000만원 월 46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55)336-5691
017)556-5691

사 찰 안 내
● 위 치 : 수원 ● 부지 : 90평
● 법당 : 27평 ● 요사 : 35평
● 가액 : 2억 3천만원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1동
● 대지 : 67평(255m²)
● 건평 : 1층 법당 40평 지층 요사 40평 방 5개 2층 지장전 20평
● 가액 : 3억 5천
● 현재포교원 운영 중. 스님 신병으로 급 양도 함
꼭 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02)2292-7295/016)824-0946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령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티어 아주 좋음
● 가액 : 3000만원(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 부지 : 4150평
강원도 영산이 사방에 있는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진입로에서 10분거리에 들어서면 깊은산속같은 민가없는 청정도량임 뒤에는 높은 돌산이 앞에는 일급수가 흐르는 보기드문 도량임
종교부지 천평 토목, 진인로, 조경완료. 현장을 보시고 확인한다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가액 : 2억 2천(꼭 인연있는 분만 연락 요망)
011)321-0194

암자용도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근교, 대구서 50분 ~ 1시간
● 부지 : 밭 600평, 중심에 대지 : 150평 + 계곡부지
● 건물 : 신축한옥 30평 (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마당앞엔 사철 흐르는 청정계곡이 있고 마당까지 큰차진입
● 가액 : 7800만원(실제공사비)
054)337-5156
011)9857-5156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소태동 제2순환도로 무등산 진입로 부근
● 임야 : 4천 20평
● 대형차량 진입가능
● 대지 : 400평, 전환가능
● 평당 : 14만원
016)471-8758

'축구 열풍' …이것만은 알고 하자

직장 · 동네마다 붐 – 전문가들이 말하는 운동효과…부상방지 요령



◇월드컵으로 인한 축구열기가 직장이나 동네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국가대표 수비수 홍명보 선수의 헤딩장면.

월드컵의 신화는 계속된다. 직장이나 동네의 축구 열기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학교 운동장과 축구골대가 있는 공터 어디에서든지 축구하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민생활체육연합 축구회 등 단체와 대부분의 조기축구회에는 신규 가입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전국의 많은 동네에서도 자체 상금을 내건 '조기축구회' 리그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같은 축구열풍은 노인들과 여성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노인 조기축구회와 여성 조기축구회, 부녀회 여성축구모임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축구는 운동종목 가운데 스키 다음으로 부상이 많은 격렬한 운동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운동효과와 부상방지 요령은 꼭 알아야 한다.

준비운동 필수…허리 무릎 등 스트레칭
탈수 · 열사병 대비 이온음료 충분 섭취
30~40대 경우 경기시간 전후반 40분 적당

△운동효과= 전력을 다해 달리고 뛰고 차는 등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동작이 동원된다. 따라서 축구는 스피드와 힘, 순발력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축구는 하체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물론 장시간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 주고 근지구력, 민첩성, 유연성, 균형 감각 등을 길러주는 훌륭한 전신 종합운동이다. 특히 축구는 잦은 몸싸움이 많아 뼈의 골밀도를 높여주어 외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다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축구를 하면 노년기에도 고관절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

△준비운동 필수=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경기전에 몸전체가 후끈한 기운이 돌만큼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노령자는 골절과 같은 부상시 청장년보다 배 이상 치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준비운동을 할 때는 먼저 몸에 힘을 빼고 2~3회 가볍게 흔들어 준 후 목과 어깨, 팔, 손, 허리, 무릎, 다리, 발목 등의 순서로 스트레칭을 한다. 동적인 스트레칭보다는 스트레칭을 한 상태에서 15~30초간 유지해 주는 정적인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다. 평소부터 지구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는 박원하 실장(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실)은 "근력과 지구력 강화 운동으로는 20~50m정도의 단거리를 전력질주한 뒤 20초 정도 쉬고 다시 뛰는 것을 10~20회 정도 반복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효과적이라고 일러준다.

△자주 발생하는 부상= 초보자가 축구경기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부상은 발목을 삐는 일(염좌)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비운동을 할 때 발목만을 이용해 영어 알파벳 A에서 Z까지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새벽에 힘줄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찰 경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기 쉬워 특히 배가 나온 과체중의 중년 남성들은 장딴지 근육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더운 여름에 축구를 하면 탈수 상태에 빠지거나 일사병, 열사병 등에 걸릴 수도 있어 경기 전과 도중에 물과 이온음료를 마셔줘야 한다.

▶부상방지 요령◀

1. 최소한 10분 이상 준비운동을 한다. -발목 돌리기와 일어났다 앉기, 허리 굽혔다 펴기 등 스트레칭을 반복해 준다. 또 다리 사이를 최대한 벌리고 열 셀때까지 유지하는 스트레칭을 반복한다.
2. 30세이후라면 과격한 동작은 삼가해야 한다.- 욕심을 버리고 과격한 태클이나 드리블, 헤딩, 트레핑 등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3. 물을 충분히 마신다.-물과 스포츠음료는 경기 두시간 전에 500㎖, 30분 전에 2백㎖를 마시고 경기중에는 15분마다 한컵씩 마시는 것이 좋다.
4. 마무리 운동도 필요하다.-경기 후 근육에 젖산 등 피로물질이 쌓이면 뭉치고 아프다. 피곤하더라도 제자리 뛰기 등 가벼운 몸풀기 운동을 해주면 근육이 한결 부드러워 진다.
5. 적당한 경기 시간과 엄격한 벌칙이 필요하다.
6. 경기시 급출발과 급제동을 피한다.

△장비

축구화, 팬티, 티셔츠, 스타킹, 신가드(무릎과 다리 보호대) 등이 필요하다. 공은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처리해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이 가죽공보다 가벼워 헤딩시 뇌 손상과 목부상 위험을 낮춰준다. 신발은 맨땅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징이 많은 것을 골라야 한다. 일반인이 전문축구화를 신으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많아진다.

☞도움말=박원하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실장, 김승기 동국대 축구감독

건강 · 레저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며…
올 피서 '생태관광지' 어때요?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생태관광'의 해다. 어차피 인간의 삶이란 자연에 빚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연 생태를 원형 그대로 즐기는 것도 보존의 한 방편일 것이다. 그것이 곧 '생태관광'이다. 여름 휴가를 겸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를 소개한다.

철새 도래지

△경북 영주 상석리 왜가리서식지: 영주시 부석면 상석리의 감살미 마을 뒷산 솔숲에 있다. 매년 중대백로 1천여 마리가 날아들어 번식하는 곳이다. 중대백로는 봄에 찾아와 여름을 나고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여름철새. 한 여름 벼가 무성하게 자라나 초록빛 물결을 이룰 때 그 위로 백로가 한가로이 날아다니는 풍경은 한 폭의 풍경화처럼 아름답고 평화롭다. 또 푸른 소나무 위에 커다란 눈송이처럼 점점이 박힌 백로떼의 모습은 선경(仙境) 그 자체이다.

△경남 창녕 우포늪: 국내 최대의 늪지로 각종 희귀 수서생물이 산다. 아름다운 갈대밭과 철새도래지로도 유명하다. 현재 우포늪 일대에는 430여 종의 식물이 분포한다. 이곳에서 가장 흔한 수생식물은 생이가래 · 마름 · 자라풀 · 개구리밥 · 가시연꽃 등이다. 이 식물들은 그 자체로도 귀한 생명체이지만, 늪의 수질을 정화해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다.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남부지방 최대의 철새도래지. 다양한 수서생물과 희귀 동식물들이 군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창원시 동읍에 위치한 주남저수지는 인근 구룡산과 백월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범람하는 낙동강 물을 수원으로, 산남 · 주남 동판의 3개 저수지가 수로로 연결된 약 180만평 넓이의 저수지이다. 광활한 늪지와 갈대가 자생하고 있는 섬이 있어 개구리밥, 붕어마름 등 각종 먹이가 풍부해 철새도래지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먹이 풍부 천혜의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희귀 수서 · 습지생물, 아름다운 갈대밭 우포늪

수목원 · 갯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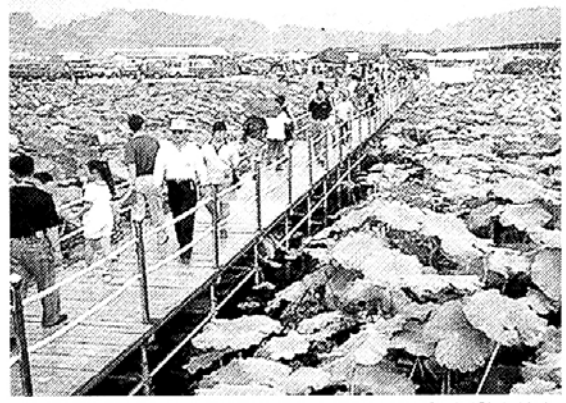
△전남 완도 수목원: 장보고의 청해진으로 알려진 완도 중앙부에 위치. 난대 상록수림으로 우거진 수목원이다. 1991년 조성된 우리나라 유일의 난대수목원으로 전 국토의 15%에 불과한 난대지방을 대표하는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등 조경 및 식 · 약용가치가 높은 상록활엽수 자생수림이 200여 ha에 분포하는 천연의 산림군락으로서 난대성 희귀식물인 사철난, 금새우난, 약난초 등 709종이 자생하고 있다.

△경북 포항 내연산수목원: 포항 내연산 남쪽 자락에 있다. 수목원은 고산식물원, 울릉도 자생식물원, 식용식물원, 수생식물원, 방향식물원 등 5개의 식물원을 비롯해 테마정원, 창포원, 침엽수원, 활엽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 반딧불이 마을: 다슬기가 서식하는 청정지역 무주 남대천가에 자리한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산길 주변에서도 늦반딧불이를 흔히 볼 수 있다. 적상면 삼유마을 산길엔 늦반딧불이가 많이 서식하는데, 8월중순~9월중순의 밤 7~9시가 시간당 20~35 마리씩 출현하여 밤하늘에 환상적인 빛의 마술을 펼쳐보인다.

△전북 김제 진봉반도 갯벌: 진봉반도는 갯벌을 이해하고 체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 갯벌은 물이 들고나는 시간을 확인해서 물이 들기 시작하는 1시간 전까지는 나와야 한다.

삼유마을 밤하늘 반딧불이의 환상적 빛의 마술
생태체험 최적 진봉반도 갯벌 … 물때 미리 살펴야



◇무안 회산 방죽에서는 해마다 8월이면 풍성하게 핀 연꽃을 감상할 수 있다.

연지(蓮池)

△전남 무안 회산 연꽃방죽: 방죽에 빈틈없이 들어찬 연꽃의 풍경이 일품이다. 회산 연꽃방죽의 백련은 해마다 7월부터 9월에 걸쳐 피고지기를 거듭한다. 그 석 달 가운데 가장 많은 꽃을 볼 수 있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연꽃축제가 열린다.

화산 연꽃방죽 백련꽃 일품, 8월 15일 연꽃축제

△전북 김제 청운사: 백련 감상과 함께 백련차도 마실 수 있다.

△충남 아산 인취사: 8월 2~3일 '제9회 백련시사(白蓮詩社)'가 열린다.

목초수액시트 가격인하

잠자는 동안 발바닥에 붙어 온몸을 상쾌하게!!

발바닥에 붙여 몸속 노폐물을 빼내는 화재의 상품 목초 수액시트!!!

효도선물 용최적 골드 150매 판매중



발은 제2의 심장 전신의 급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44,000원 → 30,000원 / 30매(送別):일반 85,000원 → 60,000원 / 60매
50,000원 → 40,000원 / 30매(골드) 160,000원 / 150매
50,000원 → 45,000원 / 30매(일본산) 99,000원 → 85,000원 / 60매

※ 이런 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온몸이 차거나 저리거나 팔 다리가 쑤시는 불편하신 부모님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 산후조리 및 자고나면 손발이 붓는 분
- 수술 및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분
-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
-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하신 분

자매품 : 일반목초액 500cc 20,000원,식용 목초액 900cc 120.000원
목초비누 3개 30.000원

www.GAJA.TV 송금후 1~3일 택배로 배달

판매원 : 가자라이프
상담(02) 5454-010
농협: 063-02-124288
국민: 010-01-0617-701
예금주 : 이수일

한국 대승불교 조계종
종 정 : 김봉진

종회의장 황관능 총무원장 신법성
원로원장 서영인 사서실장 성운고
교육원장 강법성 감찰원장 손일모
포교원장 김대공 연수원장 고성봉

서울종무원장 이수봉
부산종무원장 성운고
대구종무원장 왕도성
경기종무원장 조법타
강원종무원장 심법공
경남종무원장 유도화
경북종무원장 최보해
전남종무원장 정수봉
전북종무원장 박월해
충남종무원장 이일봉
충북종무원장 박선재

종 도 일 동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불국사
055)521-1236
사 서 국 051)852-3707(전송겸용)
051)853-5622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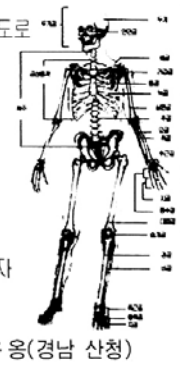
부산지사
051-463-5331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불교 이래서 좋다

나현정 대한불교청년회 조직부장

"불안 · 허무가 희망으로"



맑은 향내음과 가슴을 울리는 풍경소리. 처음 절에 가서 느꼈던 그 편안함과 고요함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길을 가다 절에 들어가게 되었던 건 운명이었을까.

암흑 같던 여고시절이 지나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는 날아갈 듯 기뻤다. 그러면서 불교는 가슴속에만 존재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4학년이 되어 허무하고 조금은 불안한 그 시절 난 정식으로 불교를 알게 되었고 사모하게 되었다. 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아카데미를 통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도 심도 있게 불교를 접하게 된 나는 22년의 세월동안 삼독과 무명에 싸여 있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공부를 하면서 불교교리를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기쁘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흔히들 말하는 초발심 시절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던지 매일 매일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울던 기억이 난다. 16년 동안 학교만 다니다가 처음 맞게 된 사회에서는 힘든 일들이 지척에 널려 있었고 난 참회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렵게 들어갔던 회사생활을 마감하고 대한불교청년회에서 본격적으로 부처님 일을 하게 되었다. 조계사 근처라서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있다면 향내음이나 목탁소리, 스님 기도소리를 매일 들으니 절로 신심이 나는 내 모습이다. 법당에 들러 절도 하고 염불하는 날이면 세세생생 지은 업장이 녹는 듯해 눈물이 난다. 세상사 무상하다는 것, 그 하나의 도리만 깨닫는다면 다시는 괴로울 일도 슬플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무상함은 허무가 아닌 희망이라고 누군가 그랬던가.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으며 보내고 있다.

담배를 끊읍시다

청소년 흡연 증가 이유

① 사회 전체적으로 흡연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주위에 흡연자들이 많아 담배에 노출될 기회가 너무도 많기 때문. 친구들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가족들 또는 사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형이 담배를 피우고, TV나 영화, 드라마에서는 청소년의 우상인 연예인들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또한 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며 담배를 피운다는 것.

② 청소년의 흡연을 말리는 어른이 거의 없다.

길에서, 학교에서, 학생이 담배를 피워도 말리는 어른이 이제는 거의 없다는 것. 많은 학생들이 흡연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는 학교도 많은 실정. 담배로 인한 피해는 담배를 피우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③ 담배 회사들이 청소년을 미래의 고객으로 유도하고 있다.

담배 회사도 기업이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수는 사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담배회사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도 새로운 흡연자가 있어야 한다는 셈.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감소하니까.

사회적 용납 분위기 … 막는 어른 없어

'봉사 점수' '땀의 의미' 함께

눈길 끄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봉사점수'와 '땀의 의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성큼 다가온 여름방학.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전국 불교계 각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단체 등에서 알차게 준비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에서는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닌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눈길'을 끈다.<표참조>

채소재배 · 하천청소 등 농촌생활캠프
'푸름이 봉사대' 환경 주제 지역신문 제작
위안부 역사관 관람 · 시청각 교육 참가

올해는 예년에 주류를 이루던 청소 · 목욕봉사 등의 단순 '노력봉사' 차원을 벗어나, 가두 캠페인 · 농촌봉사활동 · 역사 현장 탐방 · 지역사회 안내 신문 만들기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 다소 '전문분야'의 봉사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또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놀이문화'로 승화한 '캠프' 형식의 프로그램이나 자연생태 체험 중심의 봉사프로그램들도 늘어나고 있다.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청소년 생태체험 캠프'를 부산 산성마을에서 연다. 이번 캠프에서는 채소재배, 하천 청소, 목장 노동 등 농촌생활을 체험한다. 또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지부도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삼랑진 여여정사에서 '흙사랑 농촌봉사활동캠프'를 연다. '벌레가 친구 되는 자연체험'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서는 농작물 기르기, 짚신 짜기 등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 도봉서원종합복지관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가평 꽃동네에서 '2002 청소년 자원봉사캠프'를 갖고, 대전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농촌봉사활동을, 옥수종합복지관은 8월 1일부터 2일까지 장애인체험을 통한 봉사프로그램 등이 준비되고 있다.

지역 사회 속으로 찾아가는 봉사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 부산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90여명의 '단빛 청소년봉사단'을 결성한다. 이 봉사단은 정신지체아 방과 후 교실, 저소득층 자녀 교실 등에서 프로그램 보조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부산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50여명의 '푸름이 봉사대'를 조직해, '환경'을 주제로 한 '지역사회 신문 만들기'를 실시하고, 구미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위한 청소년봉사단을 모집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도' 형식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가두 캠페인 등 사회운동 성격의 자원봉사도 마련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관내 4층 강당에서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원봉사자 기본 자세이외에도 부산아시안게임 성공 기원 가두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냉림사회복지관도 거리질서 캠페인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홍보 행사를 갖는다.

장애인 시설 등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봉사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다.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광주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 집'에서 '제3회 청소년봉사캠프'를 연다. 위안부 역사관을 관람하고, 시청각 교육 등 생생한 역사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소찍새마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산책, 목욕봉사 등의 활동에는 5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을란물예방운동본부' 학생이 참가한다.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불교계 청소년단체 및 복지관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관명	프로그램명	일 정	문 의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	여름방학 자원봉사교육	8.5~8.8	051-868-0750
대전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농촌봉사 활동	7.22~24	042-488-0732
파라미타 청소년협 부산지부	휴사랑 농촌봉사 활동캠프	7.22~25	051-853-2445
청소년교화연합회	'2002 청소년자원봉사 한마당'	6월~12월	02-735-8165
옥수사회복지관	제4회 청소년봉사캠프	8.1~2	02-2282-1100
일산노인복지관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7.19	031-919-8677
강북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 교육 및 장애체험	수시로	02-989-4215
길음사회복지관	청소년자원봉사단 활동	7.30~8.2	02-985-0161
능인사회복지관	제3회 청소년 봉사캠프	7.25~26	02-571-2988
도봉서원복지관	'2002 청소년자원봉사 캠프'	8.13~15	02-3494-4755
서울시립요양원	흐체험 자원봉사 학교	7월중	02-939-6176
삼전사회복지관	소찍새마을 자원봉사	8.7~8	02-421-6077
은평노인복지관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수시로	02-385-1351
개금사회복지관	'단빛 청소년봉사단' 활동	7.24~8.28	051-893-5034
공창사회복지관	제3회 생태체험 봉사학교	7.29~31	051-363-2063
낙동사회복지관	'푸름이 봉사대' 활동	8.5~8.9	051-271-0560
몰운대사회복지관	해수욕장 정화 활동	8월 내내	051-264-9033
금오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실태 조사' 자원봉사	7.29~8.7	054-458-0230
원종사회복지관	농촌봉사 캠프	7.31~8.2	032-6770-108
법동사회복지관	사회봉사 체험 활동	미정	042-633-1141
한솔사회복지관	소찍새마을 봉사캠프	8.5~10	031-716-4215
명륜사회복지관	저소득, 장애아 학습지도	7월 내내	033-762-8131
삼척사회복지관	동굴엑스포 자원봉사	7.15 접수	033-573-6168
제천장애인복지관	청소년 봉사 캠프	7.23~24	043-652-0901
냉림사회복지관	자전거 타기 캠페인	수시로	054-532-5687
영주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자원봉사단 캠프	7월 중	054-633-6415
의성노인복지관	자원봉사 교육	7.29~8.2	054-833-6006

청소년 단신

9일간 청소년국토순례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는 7월 24일~8월 1일까지 '제9차 화랑정신 계승 청소년 국토순례'를 떠난다.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평화의 댐, 양구 선사박물관, 동학혁명위령탑, 망향의 동산 등 총 200km를 순례하게 된다. 참가대상은 서울 및 전국 초 중학생 200명. (02)849-7077

청소년 금연캠프 열어

사단법인 우리누리 청소년협회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7월 22일~24일까지 계룡산 갑사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 금연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에서는 흡연청소년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자연과 함께 활동하고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흡연에 대한 해악성을 다양한 실습을 통해 알게 함으로써 금연의지를 불어넣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참가대상은 중 고등학생 70명. 참가비는 1인당 4만원. (031)217-3407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하이텔 불교동호회

정보수집 10년 … '불교자료의 보고'
지역 · 테마별 소모임 큰 특징

우리 속담에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십년동안 금강 신심을 유지하며 온 · 오프라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네티즌 동호회가 있어 화제다. 1992년 6월 창립한 하이텔불교동호회(이하 하불동 · 대표시삽 유보련화)가 바로 그 주인공. 하불동은 지난달 22~23일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불동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반의 정을 나누었다.

하불동은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산실로 유명하다. 실체가 없는 사이버 공간, 그것도 PC통신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현실을 극복하고 온 · 오프라인에서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사찰수련회나 가서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오관게(五觀偈)를 일상에서 매일 독송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역시 하불동은 다르다는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6월 22~23일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 사진.

하불동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 테마별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 경상, 강원, 전라, 제주, 총청 등 전국적으로 지역모임이 결성되어 있고 매달 정기법회를 보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또한 테마별로는 95년 3월 한 장애우불자의 "우리도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싶다"는 작은 소망으로 시작되어 매년 두차례 장애우와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모임을 가지는 칠연회, 그리고 다도 소모임 명등계 등이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갖고 있다.

'불교자료의 보고'라는 것도 하불동의 자랑. 10년동안 회원들이 하나 둘씩 하불동에 올린 자료가 이미 불교계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에는 생활속의 잔잔한 이야기부터 불교교리, 신행담 등 회원들이 올린 글을 모아 〈부처세상〉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김두식 기자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강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학, 태도학, 修學,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금세기 최초공개
고차원 치유에너지활용법
전수생 모집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
자 격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로서 일반인, 주부,
남여직장인, 해외 이민 희망자
강좌개설
타시도 거주자반, 속성반, 직장인반
교육과정 및 능력전수
고차원 치유에너지 인체적용법 약, 약초, 침, 뜸, 수술, 기동의 도움이 없다. 이학문을 전수 받으면 당신은 능력자로 변신한다 당신이 비만인을 조정하게 된다면 상대는 6일 이후부터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 입게된다.
부작용, 요요현상도 없다 암, 난치의제질병, 비만, 피부 및 피부미용등 전체적인 조정자로 변신하게된다.
상대가 원상 회복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확인 할 수 있으므로 놀랍다 기적이다 라고들 한다. 이학문을 보급할 때가 되었으므로 선택된 희망자에게 전수하는 것임.
문의처 부산시 진구 전포2동 608-1
051) 808-1315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硏究學會

실버타운 입주안내
1. 입주자격 및 절차
◆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 및 60세 미만 부부
◆ 소정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분
◆ 보증인(자녀)과 노인동행으로 직접 내원 상담 후 결정
2.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 1부, 증명사진 3장
3. 시설안내
◆ 3동(96실) ◆ 숙실평형 : 9.5평
4. 부대시설
회의실, 강의실, 진료실, 간호실, 재활치료실, 약국, 사우나, 식당, 세탁실, 강당, 상담실, 휴게실, 수영장, 체련실, 바둑 게이트볼, 삼림욕장, 탁구장, 독서실, 공작실, 서예실, 노래방, 채소재배단지, 온천탕(시공중), 산책로
5.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2인	50,000,000	900,000

※입주금 중 보증금은 퇴실시나 사후 돌려드립니다.
6. 연 락 처
02)743-0294,011)9781-7301 Fax 02)747-4866
사회복지법인 성라실버타운

희소식
圓 梵 音
범종! 범종! 자명(自鳴)범종!!
귀의삼보 하옵고,
諸方寺庵 주지스님께 이 기쁜 소리가
메아리 되사이다. 小人이 十餘年前에
부처님의 生死解脫法이 세상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발원!!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불암사 범종에
자동시스템을 설치. 춘하추동 사계절
조석예불 시간과 정오에 인적이 있고 없고,
크나큰 종에서는 치는 이 그림자도 없이
원범음이 삼세를 뚫어 오늘 지금까지
또 다함없는 미래까지 울려 퍼져
모든 중생고는 사라지고 해탈의 법열이
충만함이여!! 사중외호와 불사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거룩하신 스님들께
작으나마 편의를 드렸으면 하고!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구리3반 48번지
부영공업사 대표 신 현 직 두손모음
☎ : 033-562-1535
H·P : 011-369-2732

"미주한국불교 현지화노력 필요"

스님·학자·관계전문가 심포지엄 한목소리



◇1967년부터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4곳의 선련사를 창건한 자혜불교회 회주 삼우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참선 좌세를 변형시키는 등 현지화로 포교에 성공했다.

미국문화 적응 창조적 변용 모색해야

포교사 양성·영문불서 등 인프라 구축도

36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의 선불교를 전세계에 포교하기 시작해 30개국 120여 곳에 선원을 창건, 5만여 외국인들에게 불법을 펼쳐온 숭산스님(화계사 조실).

1972년 숭산스님은 미국에 프라비던스 선원을 개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수계식을 집전했다. 그해 겨울, 숭산스님은 한국과는 달리 미국인 제자들이 출가해 스님이 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며 수행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미국식 '법사제도'를 창안했다. 이때부터 국제포교의 기반이 빠르게 구축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스님은 하버드 랭귀지 스쿨에 등록해 직접 영어를 배우고, 미국인들이 선불교를 일상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지인 포교에 나섰다.

미주 포교 40주년을 한 해 앞둔 지금, 현지 '개척불교'가 아닌 '교포불교'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한국의 불교 전통과 수행을 미주 사회에 정립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6일 카멜 삼보사에서 삼보사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열린 '미주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스님과 학자, 관계전문가들은 모두 이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조은수 교수(미시간대, 아시아 언어문화학과)는 "현재 미국내 한국불교는 미국 불교로 동화내지 전환해가는 상황"이라며, "전통을 넘어서 미래의 불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문화에 적응해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형근 미주현대불교 발행인은 "미주내에는 100여개의 한인사찰과 30~40여명의 스님이 있다"면서, 대부분 사찰의 신도수가 적고 신도의 고령화와 빈약한 재정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형근씨는 "미주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공과 기도 위주의 법회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2세와 미국인들을 신도화 하기 위한 불교 교양대학과 토요 한글학교 개설, 동양 사상강좌, 참선 수행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시했다.

전 가주국제문화대학 김재범 교수(사회학)도 "미국내 한국불교가 선불교의 전통을 제대로 이어나가면 문중중심과 기복불교의 폐단을 극복, 미국에 뿌리를 내릴수 있을 것"이라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이 포교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m@buddhapia.com



◇전등사는 '한 사람의 외국인이 한국불교 홍보대사'란 정신으로 외국인들에게 불심을 심어주었다. 새벽예불을 봉행하는 외국인들.

전등사 '템플스테이 으뜸사찰' 평가

홍보·지역연계·통역봉사자 등 치밀한 준비

수묵화전·갯벌체험·염전실습 등 좋은 반응

외국인 117명 숙박, 3200여명 방문으로 템플스테이 으뜸 운영사찰로 평가받은 강화 전등사(주지 계성)의 노하우가 화제다.

전등사는 자체 영문 인터넷 사이트(www.jeondeungsa.org)를 오픈하고 강화군청과 긴밀한 협조아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외국인들과의 충분한 면담, 학교 및 지역축제와 연계 활동, 외국 대사관 및 지역언론 홍보, 우수한 통역 자원봉사자(13명) 등 알찬 기획과 빈틈없는 준비로 많은 외국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등사와 '문화집단 솟대'가 공동 주최해 월드컵 기간 동안 전등사 갤러리에서 연 '자연, 그리고 자연과 하나된 사찰 수묵화전'과 수묵화 서예 학습 및 체험은 외국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밖에도 전등사는 예불과 참선, 갯벌 체험, 염전 실습, 색종이로 민속의상 접기, 취나물 고사리 등 5가지 나물을 비며먹는 밥우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마니산이나 인근 보문사 등 문화유산 답사도 반응이 좋았다.

김재경 기자

22일 금정산고속철 2차 토론

범대위, 27일 대규모 불교도대회서 '반대' 재천명

경부고속철이 금정산을 통과할 경우 발생되는 생태부분, 소음진동부분에 대한 학술적 자료들이 제시될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서 관심을 모은다.

22일 열리게 될 금정산 고속철 통과반대를 위한 2차 토론회(생태, 소음진동,설문조사)에서는 경부고속철이 금정산 생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학술적 근거와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부고속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설문지는 경부고속철 구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과 부산~경남 구간중 천성산과 금정산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찬반, 금정산과 천성산 통과에 반대할 경우 대안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문조사는 침묵했던 대다수 부산시민들의 경부고속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습지보존대책위원회 이인식 대표, 부산카톨릭대 김화일 교수, 동국대 조경학과 이영경 교수등이 발표자로 나서 '금정산 습지의 중요성' '고속철 금정산 통과에 따른 소음진동의 영향' '경부고속철도 부산시민 의식조사'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갖는다. 또한 금강암 주지 정만스님, 녹색연합 서재철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금정산 고속철 통과반대 범시민대책위'는 토론회에 이어 27일에는 대규모 범불교도대회를 열어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는 경부고속철 금정산·천성산 통과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할 방침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호국영령추모비 건립

진여원, 화명근린 공원내

해마다 보훈유가족을 초청, 호국영령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안잔치를 열어온 조계종 포교원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이 호국영령추모비를 건립한다.

오는 24일 화명근린공원내에 세워지게 될 호국영령추모비는 폭 2m 50cm, 높이 5m로 배상도 북구청장과 박재식 53사단 125연대 6대대장의 도움으로 제막될 예정이다.

남보타월 원장은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값진 교훈이 되길 바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추모비를 건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방글라데시 불교 지켜달라"

한국거주 현지인들, 자국내 불자 보호요청

한국에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불자들이 자국내 불교인들의 안전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방글라데시 불교친선협의회 사무국장 바루아(S.K. Barua)씨를 비롯한 20 여 방글라데시 불자들은 8일 한국주재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방문해, 지난 4월 중순 있었던 갸나죠티(Rev. Gynajyoti) 스님 피살사건의 살해범 체포와 불교활동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갸나죠티 스님의 죽음은 방글라데시 전체 불교인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며 "살인자를 즉각 체포하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500개 사찰의 안전보장과 스님이 운영하면 고아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조계사로 자리를 옮겨 갸나죠티 스님 살해범 즉각 체포와 방글라데시 불교인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린 뒤 피켓시위를 벌였다.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사회복지활동가인 갸나죠티 스님은 지난 4월 21일 이슬람교도로 추정되는 강도에 의해 두상이 잘리우는 잔혹한 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방글라데시 정부측은 불자 300여명이 대정부 규탄시위를 벌이자 몇 개 사찰에 경찰력을 증강하기는 했지만, 살해범 검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변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목사 문화부장관?

한 명 우 (취재1부 차장)

"얼마 남았다고 또 바꿔" "뭐야, 불교를 휘어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11일 문화관광부 장관에 김성재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자들은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재 장관은 우선 문화부의 주요 업무인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힘든 경력을 갖고 있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출신으로,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등이 주요경력의 전부임을 감안하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고는 볼 수 없다. "구멍가게 주인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김성재 장관이 누릴 재임기간은 겨우 5개월이다. 업무파악만 하자고 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런 마당에 50개가 넘는 소속기관과 단체들을 거느리고 있는 문화부 행정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는 또 있다. 김성재 장관은 개신교 목사이자 신학자이다.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부 장관은 불교, 천주교 등 주요 종교는 물론 민족종교까지도 끌어안고 가야 하는 자리다. 본인이야 객관적으로 임하겠다고 하겠지만 목사가 과연 문화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김 장관이 문화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편견없이 모든 종교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알 일이다. 하지만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화부장관 인사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목탁소리

북한산 온 정체불명 승려들

김 원 우 (취재1부 차장)

11일 오전 10시 북한산 송추 농성장인 철마선원 60m 앞까지 정체불명의 승려 150여명, 괴청년 30여명이 들이닥쳤다.

12시경 '철마선원을 폭력으로 침탈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계종 스님들과 불자들, 그리고 취재기자들이 속속 현장에 몰려들자 그들은 '조계종 정법수호회' 명의로 북한산 관통도로가 건설돼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철수했다.

그동안 북한산 문제가 불교계와 정부, 서울고속도로(주), LG건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법수호회 소속 승려들의 출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현응스님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LG건설이 정화개혁회의에 참여했던 승려들에게 수십억원의 금전보장을 약속하고 농성장 해산 청부를 의뢰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10일전부터 받았지만 '설마' 했었다"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경악했다.

철마선원은 북한산관통도로 공사를 저지하여 자연과 수행환경을 지키려는 불교계 환경수호의지의 보루다. 그런 곳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일군의 승려와 괴청년들이 들이닥쳐 건설사 입장을 옹호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납득 못할 일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주장대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 건설사가 있다면 참으로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 불교계의 반대의지를 또다른 불교계 세력을 매수해 '공격'케 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이 아닌가.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시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를 둔 것이다. 물론 그런 자충수의 '돌'이 되었던 '승복입은 분들'도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

최면 수련생 모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면-전생을 통하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전생(前生)의 문을 열면 당신의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① 타인최면유도
② 최면으로 하는 제령(際靈)
③ 원격최면
④ 전생퇴행최면
⑤ 파동(波動)요법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 강의시간 : 주 3시간, 3개월 과정
◈ 문 의 처 : 051)806-8500, 051)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동 방 최 면 전 생 연 구 소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
제2회 명예 (박사) 학위 취득 연수
세계불교 중심지이며 불교의 극락이라 불리는 미얀마 아무미따지 대학원에서 제1회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한번 연수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과목 - 백침술(100%확실하게 살빼는 속효 법)
정통사주학, 관상학, 독성법,
비방단침술, 특수기공도통법
❖ 지원자격 - 학력, 나이 관계없음(선착순 25명)
❖ 제출서류 - 등본2통, 사진5장, 여권, 비자, 지원서1통
❖ 접수기간 - 양력 7월 15일 ~ 8월 26일까지.
(일정은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양력 9월 1일 ~ 6일 까지(5박6일)


전화 031)867-4131 , 011-214-4135 , 018-370-4133
MYANMAR, YANGON
yangon office : 5b 3b floor, kamayut, townshlp 2ayarthlrl rd,
아우미따지 불교성도대학 한국분원 사무국



◇12일 철마선원을 방문한 서울 · 경기 · 강원 본말사 주지스님 200여명이 북한산 살리기에 동참하는 뜻으로 대형 플래카드에 서명을 하고 있다.

북한산 살리기 3보1배 참회기도

불교환경연대, 18일 서울역에서 조계사까지

시민대책위, 천성산고속철 반대 불교도대회

신원미상 150여명 11일 철마선원 진입시도

자연과 수행환경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자연 파괴의 주범이 우리 자신임을 일깨우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조계사까지 '북한산 살리기 3보 1배 참회기도'를 연다. 또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부산 범어사에서 '천성산 ·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 반대를 위한 부산 · 경남지역 불교도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 경기 · 강원 본 · 말사 주지스님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세 지역 주지스님 200여명은 12일 북한산 송추 철마선원(선원장 수경)을 방문, '북한산 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주지스님들은 결의문을 통해 "북한산은 불교의 정신이 깃든 대도량이자 한국불교의 지주"라며 "인간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북한산 관통노선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 불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정법수호회'라고 밝힌 신원 미상자 150여명은 11일 철마선원 진입 및 철거를 시도하다 12시 경 자진 해산했다. 경남과 부산 등지에서 왔다고 신분을 밝힌 이들은 "환경단체 및 불교단체 등에서 공사현장을 점거, 한국불교를 조직적으로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농성자들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양, 선전 선동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철마선원에 있는 불상을 여법한 법당에 이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2면>

이에 앞서 오전 9시경에는 엘지건설 측이 굴삭기 2대를 송추법당에 동원해 한 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자연 및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계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법부로 온 제보에 의하면 오늘 사건은 LG건설이 정화개혁회의의 일원이었던 승려 법철에게 송추농성현장 정리를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제공해 일어났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 부위원장 현응스님은 "농성장 해산을 불교집안의 종권다툼으로 왜곡시키려는 교활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지난 4일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열린 종교인대화마당에서 "북한산관통도로 문제는 이미 10년 전에 시작,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백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LG건설과 서울고속도로가 제기한 철마선원 철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은 1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다르마법우회 회원들이 법률상담을 하고있다.

다르마법우회 무료 법률상담

조계사서 불교강의 듣고 참선수행도

'무료 법률상담도 하고 불교도 배우고'

8일부터 19일까지 일정으로 조계사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다르마 법우회' 회원 20여명은 2년 전에 이어 올해도 조계사를 찾았다. 토지분쟁이나 손해배상소송 등 다양한 상담내용에 대해 '다르마 법우회' 회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까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11 12일 오전에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으로부터 '불교사상' 주제로 강의를 듣고, 15일에는 참선실수도 했다. 불교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고 싶다는 '다르마 법우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16일과 18일 두 차례 더 강의를 들을 예정이며, 두 조로 나눠 이달말과 다음달초 열리는 송광사 여름수련회에도 참가키로 했다.

'다르마 법우회' 김형남 회장(38)은 "올해는 봉사보다는 불교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왔다"며 "좋은 프로그램만 있다면 어디든지 참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마곡사 주지선거 문제없다"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전불교단체협 반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곡사 선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전지역백제불교단체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는 12일 회의를 열고 장곡스님(갑사 주지)이 제기한 이의신청심의에서 '마곡사 선거는 선거인명부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장곡스님이 제기한 진각스님 주지후보자격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명스님은 "대전지역 신도단체들이 제기한 도덕성 문제와 한 스님이 진각스님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호법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대전지역백제불교단체협의회는 진각스님 주지후보 당선 무효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협의회 소속 단체 신도들은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항의표시로 이날부터 열흘간 철야정진기도에 들어갔으며, 18일 일간지와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20일에는 동학사 비리사건 사법기관에 고발, 23일에는 전국 신행단체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수령 600년된 은행나무 불영사 삼존불로 환생

신라 고찰인 울진 불영사(주지 일운)의 내력을 고스란히 간직한 수령 600여년의 은행나무가 불상으로 거듭났다.

불영사는 7일 대웅보전에서 수령 600년이 넘는 은행나무로 만든 삼존불(석가모니불, 문수, 보현보살)의 점안식을 가졌다. 불상의 크기는 약 1m에 이르며 각각 금30돈으로 도금됐다.

불상의 재료가 된 은행나무는 지난 98년 태풍으로 밑동만 남은 채 부러진 사찰 뒤뜰의 600여년된 고목. 밑동만 남은 은행나무는 이듬해 다시 새싹이 나면서 자라고 있다.

불영사 신도회 총무 주현석(40)씨는 "부러진 나무의 활용을 놓고 고심하다 이 나무가 불영사와 궤를 같이하는 만큼 불상 조성에 사용키로 뜻을 모았다"며 "고사 직전이던 고목이 다시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을 보면 영험함과 경외로움을 느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점안식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부부와 김용수 울진군수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청허당·소요당 부도 보물지정 예고

둔화재청은 11일 전남 해남 대둔사 청허당(淸虛堂)부도와 전남 장성 백양사 소요당(逍遙堂)부도를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대흥사 청허당부도(전남 유형문화재 57호)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끈 서산대사의 부도이며, 석종형 부도로는 유일하게 범종 모양을 한 소요당부도(전남 유형문화재 56호)는 조선시대 소요대사의 부도다.

청허당 부도는 통일신라이래의 팔각원당형 석조 부도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부도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조각 기법이 사용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도는 입적한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모신 탑이다. 권형진 기자

"미군 장갑차 참사 책임자 처벌을"

경불련등 13개 불교단체 성명 발표

실천승가회 인권위, 경불련, 불교인권위 등 13개 불교단체들은 경기도 양주에서 6월 13일 발생한 주한미군 2사단 궤도차량에 의한 신효순, 심미선양 사망사건에 대해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철저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두 여중생 참사 사건은 명백한 미군측의 과실에 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 전모에 대한 진실규명과 기본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개 사과 △사건 전면 재조사 및 책임자 처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10일 대한불청만해교육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단체별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시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석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박봉영 기자

다음카페에 홈페이지 개설 사찰생태연구소

사찰생태연구소가 다음카페에 홈페이지 '사찰생태연구소(cafe.daum.net/empleeco)'를 개설했다.

'사찰생태연구소'에는 불교의 생명사상, 해우소의 친환경성, 발우공양의 생명성, 불교와 생태계, 환경모니터, 108사찰 생태기록 등 다양한 사찰생태환경 자료가 구축돼 있다.

02) 712-5812. 김원우 기자

서해교전 사상자에 성금 해동용궁사 천만원 기탁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해동용궁사(주지 정암)와 신도들이 서해교전 사상자들을 위해 5일 국방부에 성금 1천여만원을 기탁했다.

주지 정암스님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군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턱없이 낮아 신도들의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해동용궁사는 또 지난 5일부터 서해교전 전사자를 위한 49재에 들어갔다. 서해교전 전사자를 위한 49재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대법당에서 열린다. (051)722-7744.

김재경 기자

무의탁노인들의 쉼터 '노인의 집' 개원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작은 쉼터 '노인의 집'이 9일 문을 열었다.

'도봉서원 노인의 집'은 의지할 곳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들에게 의식주 생활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도봉서원종합복지관(관장 전승범)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개원했다.

서울 도봉구 방학2동에 소재한 '도봉서원 노인의 집'은 지상 1층 규모의 건평 25평 다세대 건물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은 무의탁 노인 6명이 생활하게 된다.

김철우 기자

육六임壬래來정情비秘법法

◎ 혁 신 판 (全12卷) 활인전문천역자용
1,500,000원 (휴대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1,300,000원 (좌정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350,000원 (기존판 : 설명비디오 3개)

■ 활인천역자(스님 · 오행가 · 신명제자)의 필수서로 이미 검증 되어 있습니다.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속사정을 시간별로 미리 알고 먼저 말해 줄 수 있는 비서 입니다. 먼저 할 말은 앞면에, 묻는 일의 대답은 뒷면에 시간별로 써져 있습니다.
■ 귀신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의 침범을 정확히 먼저 밝힌 후 이를 제거 · 해소 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천도 · 시식 · 부적 · 굿의 효과 여부를 미리 알고 시행할 수 있어 후련하고 명쾌해 집니다. 또 효과가 있게 하는 방법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바인더 처리」하여 매월 매일 것을 꺼내 보고 넣고 하게 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보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더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구입하신 후 전화하십시오. 전국어디라도 책 도착 날로 부터 3일안에 찾아뵙고 자세히 그 활용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인천역(신도단련)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 효 사 -

◎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원
육임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순서 : 기본편 입문편 전문편 활용편 형이상편 비방편 상담편 운명판단편 세밀정단편 월장편의 순(順) 입니다.

◎ 육임학당 효사숙 비디오강의 1,2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 총 28개)
육임학당 효사숙에서 실시하고있는 3개월 과정의 강의 내용이 그대로 녹화 되어있어 육임 공부가 독학완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육임학당효사숙 입강안내 1,5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오는 9월 6일(금)부터 제 3기 강의가 시작 됩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만 순서에 들게 되십니다

※ 「한장 한눈으로 판단하는 사주법」과「한장 한눈으로 짓는 작명 감정법」을 코팅처리로 만들었습니다. 만세력이 필요없이 평생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개 100,000원입니다. 신청하십시오.

▶ 주문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직접배달-정현철) ▶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팔공산 자락 봉황 알품는 형국
한겨울에 오동나무 꽃피운 절



◇팔공산 남쪽 심장부에 자리잡은 동화사의 중심공간인 대웅전 영역. 대웅전 맞은편에 봉서루, 좌우에 강생원과 심검당을 둔 ㅁ자 구조다.

그 절에 가면

팔공산 동화사

"
큰 도회지 옆 '깊은 산속 절'

극달화상 창건·심지대사 중창

양명한 기운의 '금당선원'

보조·사명·성철스님 수행처
"

붉은 함성이 전국을 뒤흔들어 놓았던 지난 6월, 한국팀의 월드컵 4강이 확정된 그 때, 동화사로 향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사람들은, 4강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신화'라는 비현실적 포장지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열광의 한 방법이겠지요. 사실, 기대 이상의 것이 너무 갑작스레 다가오고 보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는 일이 너무 팍팍할 때, 혹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행복할 때, '꿈 같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현실을 꿈으로 돌려 놓고 한숨 돌리려는 것이든가 아니면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변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던 환상과도 같은 6월을 살았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드라마를 고쳐 쓰다 '신화'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 신화는 벌써 '허망'한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부처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깨비' 같은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네 삶 또한 허깨비 같은 것임이 이로써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화두 하나 챙겨 봅니다. 오늘 하루를 땅 위에 두 발 올려 놓고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인 한, '현실이라는 허깨비에 흘리지 않고 현실을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날, 동화사로 가던 날,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하늘을 끌어내리고 있었고, 안개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스며들듯 길을 줄이니, 홀연히 동화사였습니다.

역시 등잔 밑은 어두웠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가운뎃산(中嶽)'이라고 이름 붙였던 팔공산은 그림자보다 더 짙은 안개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품에 깃든 동화사는 돌올했습니다. 고요히 우뚝했습니다. 월드컵이 만들어낸 열기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대구라는 커다란 도회지 곁에서 세상사 온갖 시름을 다 들으면서도, 그날 동화사는 '깊은 산 속 절'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절이라는 공간이 왜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저 열광의 도가니, 참으로 엄청난 크기의 번뇌덩어리였음을 알게 합니다.

동화사(桐華寺), 오동나무가 한겨울에 꽃 피웠다 하여 그 이름이 비롯된 절입니다. 신라 소지왕 15년(493) 극달(極達)화상이 창건하여 유가사(瑜伽寺)로 부르다가 흥덕왕 7년(832) 심지(心地) 대사가 중창할 때 오동나무가 겨울에 꽃을 피웠다 하여 동화사라 이름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진표 율사로부터 영심(永深) 스님에게 전해진 여덟 개의 간자를 심지 대사가 받은 뒤 팔공산에서 다시 던져 그것이 떨어진 곳에 절을 지으니 그곳이 바로 동화사 첨당(簷堂) 북쪽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팔공산, 신라 오악 중 하나입니다. 동악(東嶽) 토함산, 서악 계룡산, 남악 지리산, 북악 태백산, 그리고 중악 팔공산. 신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허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화사가 팔공산 남쪽 자락 봉황이 알을 품는 형국에 여여부동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없는 자리에 '금당선원(金堂禪院)'이 있습니다. 오동나무 탕빈 고경이에 금당이 있는 것입니다. '비움(空)'으로써 진여의 본체를 포착하는 '선(禪)'의 양명한 기운이 거기에 있습니다.

금당선원, 동화사 창건 이후, 신라 말의 영조(靈照) 선사, 고려의 보조(普照) 국사, 조선의 사명 대사 그리고 근세의 석우, 성철 스님이 환희심 가득한 한 세월을 보낸 곳입니다.

혹 동화사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넓은 찻길이 있는 동화문 쪽보다는 봉황분 쪽으로 발길을 옮겨가십시오. 봉황문 앞 바위 부처님(보물 243호)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일러 주실 것입니다. 아니, 바위에 새겨진 그 큰안한 얼굴, 모든 분별을 다 넘어선 그 웃음만으로도 한 세상 일렁임을 능히 이겨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깃들고, 대나무 씨앗만 먹고 산다 했던가요. 동화사 대웅전 뒤 댓바람 소리에 틈든 귀, 아직도 파랗습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팔공산의 얼굴 진제스님

범부가 부처되는 길 있네

"범부가 부처되는 길이 있네"라는 온사 석우 스님의 한 말씀에 이끌려 불문에 든 진제 스님. 그때(1954년) 스님의 나이는 스물하나. 이후 태백산 동암, 남해 바닷가의 묘관음사, 오대산 상원사 선방을 두루거쳐 향곡 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는다(1967년).

1994년부터 동화사 금당선원의 조실을 맡아 납자들을 제접하신다. 올 10월,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릴 '국제무차선회'를 위해 '방망이(棒)'를 벼리고 계신다.



◇동화사 입구 마애불(보물 제243호). 구름 위에 올라앉은 자비로운 모습은 중생의 아픔이 있는 곳이면 어디로든 날아갈 듯하다.

